

ASAN REPORT

한-아세안 국방협력 확대 방안 평화유지활동(PKO) 협력을 중심으로

김명웅, 차두현, 이신형

2025년 11월



Asan Report

한-아세안 국방협력 확대 방안
평화유지활동(PKO) 협력을 중심으로

김명웅, 차두현, 이신행

2025년 11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과 육군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본 보고서는 아산과 육군의 협력프로그램에 따라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던(2024년 12월~2025년 5월) 김명응 육군중령의 연구결과에 아산정책연구원 전문가들의 견해가 추가된 것입니다.

저자

김명응

김명응 중령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객원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육군 보병 소위 임관 후 다양한 제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직을 수행하였으며, 동티모르, 이라크, 레바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다국적군(MNF), 국방 교류·협력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방부 국방정책실과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근무 시, 유엔 PKO 정책, ADMM-Plus PKO 분과회의, 유엔 기여공약, 파병 전 교육 등 PKO 관련 업무 및 교육을 담당하였다. 국방대학교에서 안보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호주, 인도, 세르비아에서 PKO 관련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연구 및 관심분야는 유엔 PKO 정책 및 교육훈련, 인태전략, 한-아세안 PKO 협력 등이다.

차두현

차두현 박사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 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 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 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신형

이신형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학사와 법학(국제법)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 관심분야는 국제공법, 기후변화, 국제기구, 신기술안보,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 등이다.

목차

요약	08
I. 서론	10
II. 아세안의 전략적 위상과 협력구조	13
1. 아세안 개황 및 전략적 가치	13
2. 발전 과정과 제도화 배경	17
3. 안보협력 체계와 국방협력 구조	21
4. 국방협력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25
5. 전략환경 변화와 PKO 협력의 전략적 의의	27
III. 아세안의 PKO 전략과 다자협력구조	29
1. 유엔 PKO의 진화와 전략적 변화	29
2. 아세안의 PKO 참여 현황과 특징	32
3. 국방협력 체계를 통한 PKO 협력구조	42
4. 아세안-유엔 PKO 협력구조	58
5. 아세안 PKO 전략의 평가와 과제	61
IV. 한-아세안 PKO 협력 현황과 전략	65
1. 협력 기반과 추진체계	66
2. 한국의 PKO 참여 현황	74
3. 한-아세안 PKO 협력 현황과 주요 사례	76
4. MOU 기반 양자협력과 제도화	89
5. 협력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90

V. PKO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92
1. 전략적 연계와 정책 실행력 강화	92
2. 대상별 맞춤형 협력 전략	94
3. 유엔 PKO 체계에 기반한 전문성 강화	95
4. 정책 추진체계와 협력자원 정비	98
5. 단계별 과제와 중장기 협력 전략	100
6. 국가 평화활동(PO) 전략 수립 방향	105
VI. 결론	110
참고문헌	112
약어표	122
아산-육군 정책 연구 시리즈	128

그림

[그림 1] 아세안 회원국	14
[그림 2] 아세안 공동체	20
[그림 3] ADMM-Plus 구성	24
[그림 4] 유엔 PKO 임무단('25. 2월 기준)	30
[그림 5] 아세안 평화유지센터 네트워크(APCN)의 주요 활동	43
[그림 6] ADMM-Plus PKO 분과회의 제4차 주기 주요 활동	45
[그림 7] 제10차 AAPTC 총회(2022, 베트남)	57
[그림 8] ADMM-Plus PKO 분과회의(2015 & 2023) 활동	77
[그림 9] 국제평화활동센터의 편성 및 주요업무	78
[그림 10] 국제평화활동센터 PKO 교육 수탁생(左)과 교환 교관(右)	79
[그림 11]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TPP)	82
[그림 12] 한-캄보디아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TPP)	83
[그림 13] 유엔 PKO 여군 참여 비율(군사 전문가 및 참모)	85
[그림 14] 유엔 PKO 여군 참여 비율(부대 단위)	86
[그림 15] 여성 유엔평화유지군 포럼(2023)	87
[그림 16]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 과정(2023~2024)	88
[그림 17] 유엔 평화유지 교육·훈련 단계	95
[그림 1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01
[그림 19] 미 인태사 주관 2024 다국적 평화유지훈련 (몽골 Khaan Quest & 네팔 Shanti Prayas)	102
[그림 20]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	103
[그림 21] 다국적군(청해부대) 및 국방교류협력(아크부대) 해외파병	105

표

[표 1] 아세안 대화상대국	15
[표 2] 아세안 회원국의 PKO 참여 현황('25. 2월 기준)	32
[표 3] ADMM-Plus PKO 분과회의 의장국	45
[표 4] 아태지역 PKO 훈련센터 협의체(AAPTC) 회원국	57
[표 5] ASEAN-유엔 협력 개요('24. 7월)	59
[표 6] 아세안-유엔 간 PKO 관련 행동계획	60
[표 7] 한-아세안 국방협력 관련 국가 전략 및 정책 발표 현황	67
[표 8]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2021)	68
[표 9]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2022)	69
[표 10]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계획에 반영된 PKO 과제	70
[표 11]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계획 내 PKO 이행성과(2024)	71
[표 12] KASI의 8개 중점 추진 과제	72
[표 13] 2016-2020 PoA에 명시된 PKO 협력 사항	73
[표 14] 한국의 부대단위 유엔 PKO 참여 현황('24. 12월 기준)	75
[표 15] 국제평화활동센터 외국군 수탁생 및 교환 교관 현황	80
[표 16]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연도별 주요 내용	81
[표 17] 유엔 여성평화유지군 역량 강화 과정 교관 및 교육생 현황	88
[표 18] 해외파견 및 한-아세안 PKO 협력 관련 기관별 업무 분장	98

요약

본 보고서는 한-아세안 국방협력 확대 방안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협력을 중심에 두고, 실질적 협력 모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202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로 격상되었으며, 같은 해 국방장관회의에서 해양안보, 방산협력, 평화유지활동(PKO)이 3대 우선협력 분야로 설정되었다.

PKO는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활동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고 실무 중심의 협력이 가능하며,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지점으로 주목된다.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좁은 회랑(Narrow Corridor)’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지속하는 중견국으로, 아세안 회원국도 포함되어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평화·안보 협력의 롤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아세안의 PKO 전략과 한국의 PKO 참여 경험을 분석해, 기존 병력·예산 중심의 파병 방식에서 기술·역량·지식 기반의 다층적 기여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우리의 국방개혁 계획과 「육군 기본정책서 2024-2040」에서 제시된 스마트 파병, 정예 예비 전력, 민군 복합역량을 결합해, 첨단기술 기반의 평화기여 전략을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PKO 협력은 단순한 파병을 넘어, 전략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UN-CIMIC(민군협력), 공병, 의료, 여성·평화·안보(WPS)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단편적·부처별 접근을 넘어 ‘국가 평화활동 전략(National Peace Operations Strategy, NPOS)’이라는 상위 대전략을 수립해, 평화유지(Peacekeeping)뿐 아니라 평화구축(Peacebuilding)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평화활동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민·군·외교의 통합 거버넌스, 파병 전-중-후 순환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Acemoglu와 Robinson(2012)이 강조한 포용적 제도 구축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단순 치안·안정보장 수준을 넘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한-아세안 PKO 협력을 통해 한국이 병력·재정 공여국을 넘어 지식·역량 공여국으로 도약하며, 국제 평화안보 질서의 설계자이자 실행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의 다른 분과 협력이나 역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으로, 한국의 다자·양자 국방협력에서 전략 설계자 및 협력 촉진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I. 서론

한국과 아세안 간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 협력이 전략적 수준의 확대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24년 11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양측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협력 강화를 공식화하였다. 특히 △해양안보 △방산협력 △PKO가 3대 우선협력 분야로 설정되며, PKO는 협력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¹

PKO는 유엔헌장, 국제인도법, 국제 인권법, 무력충돌법 등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쟁 지역의 평화적 관리와 국제 안보를 도모하는 유엔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전통적 정전 감시 임무에서 다차원적 평화구축 임무로 발전한 PKO는 현재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심축으로 작동하며, 2025년 기준 11개의 유엔 PKO 임무단이 활동 중이다.²

PKO 초기에는 선진국들이 주요 병력공여국(Troop Contributing Countries, TCC)으로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아세안 국가들도 일부가 포함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PKO 병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전체 PKO 병력의 약 50%를 차지하며,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7개국이 병력공여국으로 활동한다. 2025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병력공여국 6위(2,752명), 말레이시아는 21위(870명), 캄보디아는 28위(613명)를 기록하며, 유엔으로부터 임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³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그동안 성장해온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

1. 국방부,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올해 대화관계 35주년, 한-아세안 관계격상에 따른 국방협력 확대」,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24. 11. 21).

2. United Nations Peacekeeping, “What Is Peacekeeping?”, United Nations, <https://peacekeeping.un.org/en/what-is-peacekeeping> (검색일: 2025. 3. 21).

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Troop and Police Contributors”, United Nations,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검색일: 2025. 3. 21).

맞은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국방협력 추진을 선언해왔다. 특히 국방개혁 계획과 「육군 기본정책서 2024-2040」에서 제시한 스마트 파병, 정예 예비전력 운용, AI·무인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미래 군사전략과 작전 개념은 PKO와 해외파병 분야에서도 점차 적용되며 전략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현재 한-아세안 PKO 협력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산하 PKO 분과회의(Experts' Working Group, EWG),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여공약, PKO 센터 간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 분야의 제도화된 협력 수준은 제한적이며, 관련 정책 연구와 자료 축적도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비해 국방협력은 정책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⁴

아세안과 국방협력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 중심의 접근을 넘어, 중장기 협력 로드맵과 구조화된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세안의 제도화된 국방협력 체계, 회원국별 PKO 전략과 참여 경험, 그리고 한국의 평화활동 참여 역량을 종합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향후 수립될 한-아세안 국방협력 행동계획(Plan of Action, PoA)에서 PKO 협력과제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실질적 협력 모델 개발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아세안과 PKO 협력을 중심으로, 기존 단편적 접근을 넘어서는 전략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정책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안한다.

기존 관행적 접근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국방협력과 평화기여 전략을 마련하려면 제도적 혁신과 실행력을 갖춘 협력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포용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정책 구조, 이를 실현하려는 정책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추진 의지가 협력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전략적 확대 방안 중 특히 PKO 협력을 중심에 두고, 아세안의 제도화된 협력체계와 한국의 참여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4. 이재현, 「한-아세안 관계 35년의 회고와 전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4), p. 27.

분석 대상은 아세안이라는 집합적 지역기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까지 포함해 병행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다각도로 추출하고자 했다. 분석의 핵심 축은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및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 플랫폼이며, 여기에 아세안 평화유지센터 네트워크(APCN), 아시아·태평양 PKO 훈련센터 협의체(AAPTC), 글로벌 사우스 협력체 등 소다자 및 국제기구 협력체와의 다층 연계 구조까지 포함해 검토했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 PKO 협력의 제도화 가능성, 다자·양자 연계 전략, 국방외교와의 실질적 연계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했다.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이론적 배경, 구조 분석, 참여 전략, 정책 설계까지 순차적이고 통합적인 구성을 지닌다. 제Ⅱ장은 아세안의 성립 배경과 제도화 과정을 정리하고, ADMM 및 ADMM-Plus를 포함한 국방협력 플랫폼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해 아세안의 전략적 위상과 협력 논리의 기반을 제시했다. 제Ⅲ장은 아세안의 PKO 참여 전략을 중심으로 회원국의 참여 현황과 특징, 아세안-유엔 간 협력체계, 국방협력을 통한 다자협력 방식을 분석했다. 특히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중국 등 역내 주요국의 협력 사례를 통해 한국의 협력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제Ⅳ장은 한국의 PKO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협력 사례와 주요 성과를 정리하며, 특히 MOU 기반 양자협력 체계의 제도화 양상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제Ⅴ장은 본 연구의 정책적 중심축으로, 한-아세안 PKO 협력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을 다뤘다. 이 장은 전략적 연계 기반, 유엔 기준 부합 협력체계, 단계별 실행 전략, 국가 PKO 전략 수립 방향성을 포괄했다.

본 보고서는 정책수립 및 이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국방·외교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실질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설계와 실행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분석과 제언을 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국제 다자주의의 균형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역할을 구체화하며, 향후 한-아세안 국방협력과 PKO 전략 개발에 실질적 정책 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아세안의 전략적 위상과 협력구조

한국과 아세안 간 PKO 협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아세안의 형성과 제도적 협력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아세안의 역사적 발전 경로와 함께 현재의 정치·안보 협력체계를 연구함으로써 향후 논의될 PKO 협력의 전략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글로벌 사우스, 인도-태평양 전략, 다자 및 소다자 협력체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정책적 연계성을 분석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을 역임한 마티 나탈레가와(Marty Natalegawa)는 「아세안은 중요한가?(Does ASEAN Matter?)」에서 “아세안은 1967년 창설 이후 국제무대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온 지역 협력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아세안이 지역 연합체를 넘어,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국제 협력의 중심축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1. 아세안 개황 및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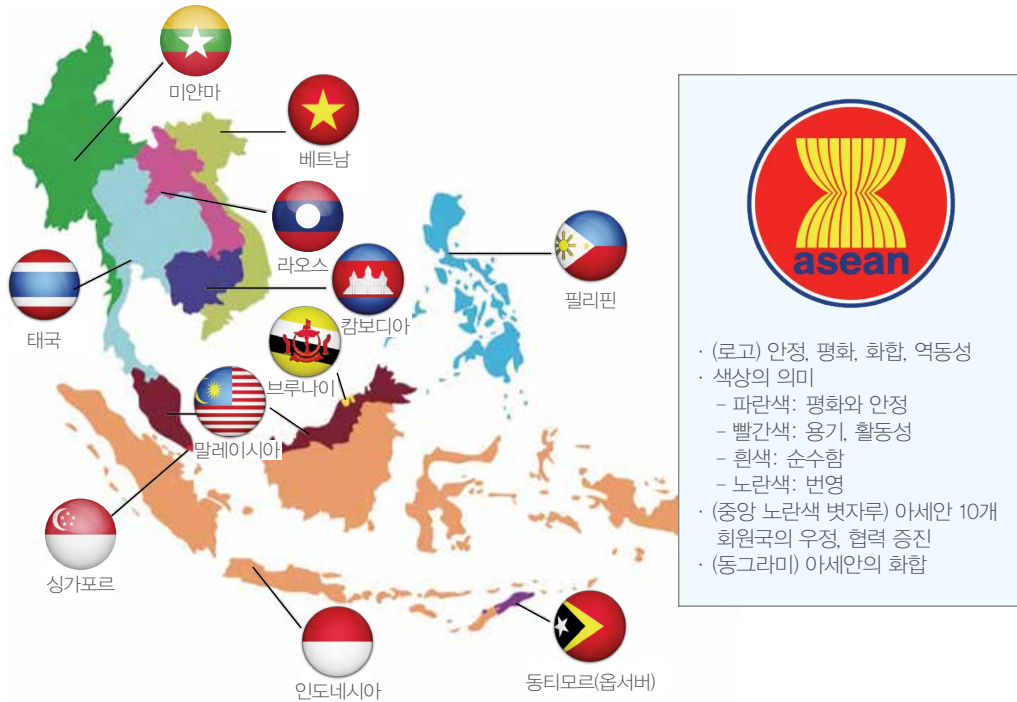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1967년 8월 8일 태국 방콕에서 창설되었다. 현재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며, 동티모르는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원칙적으로 가입 승인을 받은 뒤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아세안의 인구는 약 6억 8천만 명이며, 중위 연령(median age)⁵은 30세로 비교적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다. 이는 풍부한 생산가능인구와 소비층을 의미하며, 경제적 성장 잠재력은 물론 PKO 병력공여국으로서 인적 자원 측면에서도 전략적 장점을 지닌다.⁶

5. 중위 연령(median age)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의미한다. 이는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구 구조를 파악하는 대표 지표로 사용된다.

6.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3* (New York: UN DESA, 2023); ASEAN Secretariat, *ASEAN Key Figures 2024* (Jakarta: ASEAN, 2024).

[그림 1] 아세안 회원국



출처: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아세안 개황 (2024)」을 참고하여 작성.

아세안의 총 면적은 약 449만km²에 달하며, 2023년 기준 GDP는 3조 8,107억 달러이며, 총 교역 규모는 3조 5,774억 달러에 달한다. 수출은 1조 8,275억 달러, 수입은 1조 7,499억 달러로 구성되며, 세계 경제에서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⁷

아세안은 외교적 다변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표 1]과 같이 아세안은 11개의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 8개의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 6개의 개발 파트너(Development Partners), 그리고 국제연합(UN)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6개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여,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⁸

7. 외교부, 「아세안 개황 2024」 (서울: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2024).

[표 1] 아세안 대화상대국

대화상대국(11)	부분대화상대국(8)	개발 파트너(6)	비국가 대화파트너(1)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영국	브라질, 모로코, 노르웨이,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튀르키예, UAE	독일,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페루	국제연합 (UN)

*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출처: ASEAN 및 한-아세안 센터. 홈페이지 https://www.aseankorea.org/main/overview/overview_list.do (검색일: 2025.3.25).

CSP 수립 확대는 아세안이 주요 대화상대국들과 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과 이익을 창출하는 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과 중국은 2021년 CSP 수립 이후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⁹ 미국도 2022년 CSP 체결 후 ‘미래 이니셔티브(Future Initiatives)’를 추진하면서 무역 장벽 완화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다.¹⁰ 이러한 사례들은 아세안이 역내 주요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위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세안은 지리적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아세안을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의 핵심 파트너이자 글로벌 사우스 연대와 협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¹¹

8. ASEAN Secretariat, “Overview of Dialogue Partners and External Relations”, ASEAN, <https://asean.org> (검색일: 2025. 3. 25).

9. ASEAN Secretariat, *Joint Statement of the ASEAN-China Special Summit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China Dialogue Relations: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Security, Prospe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ovember 22, 2021,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11/Joint-Statement-30th-Anniversary-of-ASEAN-China-Dialogue-Relations-Final.pdf> (검색일: 2025. 4. 21).

10. Political Theory Journal (Ho Chi Minh Academy),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New Milestones and Prospects for ASEAN-US Relations”, *Political Theory*, November 2023, <https://politicaltheory.hcma.vn/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new-milestones-and-prospects-for-asean-us-relations-6196.html> (검색일: 2025. 4. 19).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기점으로,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각자의 전략을 수립하며 역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¹²을 핵심 기조로 삼아 민주주의, 법치, 항행의 자유 등 규범 기반 질서 구축을 주도하고 있으며, 쿼드(Quad), G7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구상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과 고속철도 및 항만 개발을 중심으로 역내 공급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¹³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은 일대일로(BRI)에 더해,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DI) 및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 등을 통해 다층적인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며, 미국 중심의 전략 구도와 실질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¹⁴

이처럼 아세안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접점(pivotal arena)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어느 일방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헤징 전략(hedging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 대응이 2019년 아세안이 제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이다. AOIP는 포용성, 투명성, 규범 기반 질서, 아세안 중심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기존의 다자협력 틀(EAS, ARF 등)을 바탕으로 해양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기술협력 등 4대 협력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¹⁵

AOIP는 군사·안보 중심의 대결 구도보다 협력 기반의 실용적 질서 형성을 지향하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도 아세안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으로 기능하

11. 최원기 외, 「한국의 인태지역 역할 확대 방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기획과제 2024-05 (서울: 국립외교원, 2024), p. 8.

12.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2019).

13. 채현정, 「태국의 고속철도 건설: 이동과 연결의 인프라 정치학」, *Diverse Asia*,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ttps://diverseasia.snu.ac.kr/?p=3023> (검색일: 2025. 4. 19).

14. 최진백, 「미국의 중국 수정주의 국가론 검토: 중국의 GDI와 GSI 논의를 포함해서」, 『주요국제 문제분석』 2022-52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pp. 14-16.

15. 이진영 외, 「아세안(ASEAN)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고찰: AOIP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제6권 제3호 (2024), pp. 774-781.

고 있다. 아세안은 다자주의적 외교를 지향하면서도, EAS, ASEAN+3, ARF, ADMM-Plus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실용적 소다자 협력(minilateralism)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 역내 의제 설정과 협력 조율의 조정자로서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 속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인도-태평양 주요국은 아세안을 FOIP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22년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아세안을 전략적 협력 지역으로 명시하고, AOIP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외교적 존중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이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대외전략과 AOIP에 입각한 아세안의 접근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넓혀나가는 한편, 우리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걸맞은 기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될 시기이다.

2. 발전 과정과 제도화 배경

1) 창설과 회원국 확대

동남아시아는 16세기 이후 유럽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하였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는 태국이며, 그 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은 독립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는 냉전 구도 아래에서 국가 간 신뢰 부족, 공산주의 확산, 정치적 불안정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역내 협력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안보 불안정성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는 1961년 공산주의 확산 저지와 역내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동남아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ASA)’을 창설하였다. 이후 베트남전, 중국의 문화대혁명,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 인도네시아의 쿠데타 및 수하르토 정권 등장 등 일련의 지역적 사건들은 연합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ASA 3개국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

16. Ibid., pp. 770-773.

17. 외교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서울: 외교부, 2022), <https://www.mofa.go.kr> (검색일: 2025. 3. 25).

르가 합류하면서,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을 통해 아세안(ASEAN)이 공식 창설되었다.

아세안은 창설 이후 정치·경제 협력의 강화, 역내 안정 유지, 외부 간섭 배제, 경제 성장 촉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1969년에는 ‘아세안 기금(ASEAN Fund)’을 창설하였으며, 1970년대 초 닉슨 독트린 발표와 미중 관계 정상화 등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을 반영하여, 1971년에는 ‘동남아 평화·자유 및 중립지대(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1976년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정치·경제 협력의 확대와 역내 단결을 강조한 「아세안 협력선언 I」을 채택하였다. 같은 해에는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이 체결되었으며, 아세안 사무국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지역 협력체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4년에는 브루나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아세안의 여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90년대 들어 냉전 종식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동남아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아세안은 역내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¹⁸

그 결과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아세안은 현재의 10개국 체제를 완성하였다. 회원국 확대는 아세안이 동남아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 협력체로 성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며, 역내 정치·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2) 정치·안보 협력의 발전

아세안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1994년 7월에는 역내 유일의 다자안보 협의체인 ‘아

18. ASEAN Secretariat, *ASEAN Expansion and Regional Cooperation* (Jakarta: ASEAN Publishing, 2023).

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창설하여, 회원국 간 신뢰 구축과 예방 외교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 및 안보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1997년 제2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역내 통합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¹⁹을 채택하였다. 이 비전문은 △회원국 간 협력 강화, △경제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공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 형성, △대외 협력을 확대하는 개방적 아세안의 실현 등 네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치·안보 협력의 지속적 제도화를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 유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3)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의 출범

2000년대 이후 아세안은 지역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였다. 2003년에는 「아세안 협력선언 II(Bali Concord II)」를 채택하여 아세안 내 협력 강화를 공식화하였고, 2007년에는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의 발효를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²⁰ 이후 2015년에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Kuala Lumpur Declaration on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을 채택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AC)를 공식 출범시켰다.

아세안 공동체는 통합과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조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아세안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이는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 협력을 포괄하는 지역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19. ASEAN Secretariat, "ASEAN Vision 2020", ASEAN, <https://asean.org/asean-vision-2020> (검색일: 2025. 3. 24).

20. ASEAN Secretariat, 『Legal Framework for ASEAN: ASEAN Charter』(자카르타: ASEAN, 2007).

[그림 2] 아세안 공동체



출처: 한-아세안센터,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2016)』.

4) 협력체계 발전에 대한 평가

아세안은 냉전 초기의 안보 위기와 역내 불안정성을 극복하며,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로 발전해 왔다. 아세안의 발전은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역내 평화 정착과 안보 협력의 지속적인 진전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역임한 마티 나탈레가와와는 아세안 50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아세안의 50년 역사는 신뢰 결핍의 동남아 환경을 전략적 신뢰의 기반으로 전환하고, 전쟁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바꾸어낸 근본적인 변화의 여정을 함께해 왔다.”²¹

21. 마티 나탈레가와, 『아세안은 중요한가?』, 최기원 역, (서울: 생각의힘, 2020).

이처럼 아세안은 갈등 예방과 협력 구조의 제도화에 주력해 왔으며, 이는 오늘날 아세안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역 협력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3. 안보협력 체계와 국방협력 구조

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 통합(AEC, AFTA, RCEP)²²과 안보 협력(ARF, 남중국해 문제 해결 등)은 아세안 협력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APSC)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등 총 8개의 회의체를 중심으로 △분쟁 예방, △역내 평화 유지, △국제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정치·안보 및 군사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담당하는 핵심 협의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1)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RF는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 일본, 인도 등 지역 강대국이 부상함에 따라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안보 문제가 대두되면서, 역내 질서 재편과 아시아 안보의 안정적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1년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ASEAN-PMC)에서 ARF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와 1993년 ASEAN-PMC를 거쳐 1994년 7월 방콕에서 아태 지역 최초의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공식 출범하였다. 현재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2. AEC(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경제 공동체, AFTA(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ARF의 주요 목표는 제1차 ARF 의장 성명(1994)에 명시되어 있다.²³ 첫째, 공통 관심사와 우려사항에 대한 정치·안보 문제에 대해 건설적 대화와 협의를 촉진한다. 둘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 구축과 예방 외교(preventive diplomacy)를 위한 노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

ARF는 출범 초기부터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력체로서 역내 안보 협력을 위한 외교적 대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중심으로 기능해왔으며,²⁴ APSC의 3단계 실행 전략(신뢰 구축 → 예방 외교 → 분쟁 해결) 중 신뢰 구축과 예방 외교의 제도화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ARF는 외교장관 중심의 협의체로, 군사 협력 분야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⁵ 예를 들어, ARF 산하에는 군사당국이 참석하는 안보정책회의(Security Policy Conference), 국방당국자대화(DOD), 국방대학총장회의(HDUCIM) 등 군사 관련 회의체가 존재하지만, 합동 군사훈련이나 공동 방위 정책 수립 등 실질적인 군사 협력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²⁶

결과적으로 ARF는 예방 외교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화 플랫폼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APSC의 핵심 전략인 위기관리 및 분쟁 해결 수단의 구체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아세안은 보다 실질적인 군사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ADMM 및 ADMM-Plus를 후속적으로 제도화하며 다층적 안보 협력 구조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²⁷

2) 아세안국방장관회의(ADMM)

1990년대 후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테러리즘, 해적 행위, 국경 분쟁 등 다양한 비전통

23. ASEAN Regional Forum, "First ARF Chairman's Statement" (1994), <https://asean.org> (검색일: 2025. 2. 12).

24. 이숙연,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진전: 역내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대한 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2021), pp. 100-101.

25. 김영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제약」,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26. 김상배,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역할과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50집 제1호 (2010), pp. 123-145.

27. 외교부, 「ARF의 안보 협력 발전 방향」, 『한국외교연구원 정책보고서』 (2020).

적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역내 국가 간 군사 협력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들은 상호 신뢰 구축, 정보 공유, 공동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200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ADMM)가 공식 출범하였다.²⁸

ADMM은 아세안 내에서 국방당국 간 유일한 공식 협의체로, APSC 실현을 위한 핵심 기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특히 ADMM은 군사 투명성과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문서 교환 체계, 공동훈련, 위협 평가 공유 등을 통해 역내 안정성과 분쟁 예방 능력 강화를 도모해왔다.²⁹

ADMM의 주요 협력 과제는 'ADMM 3개년 업무 프로그램(Three-Year Work Programme)'을 통해 구체화되며, 이는 APSC 비전과 ADMM 개념 문서에 기반하여 수립된다. 해당 문서는 아세안의 공동 위협 인식과 역내 안보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립하는 설계도로 기능하며, 실효적이고 단계적인 군사 협력 이행을 목표로 한다.³⁰

현재 ADMM은 전통적 안보보다는 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HADR),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사이버안보(Cybersecurity), 평화유지 활동(PKO) 분야가 중점 협력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군사력 사용보다는 인도적 가치와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아세안의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며,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³¹

3)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201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의 전략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28. ASEAN Secretariat,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DMM): A Guidebook* (Jakarta: ASEAN, 2020), pp. 2-3.

29. 이숙연,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진전: 역내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대한 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2021), pp. 102-103.

30. Ibid., p.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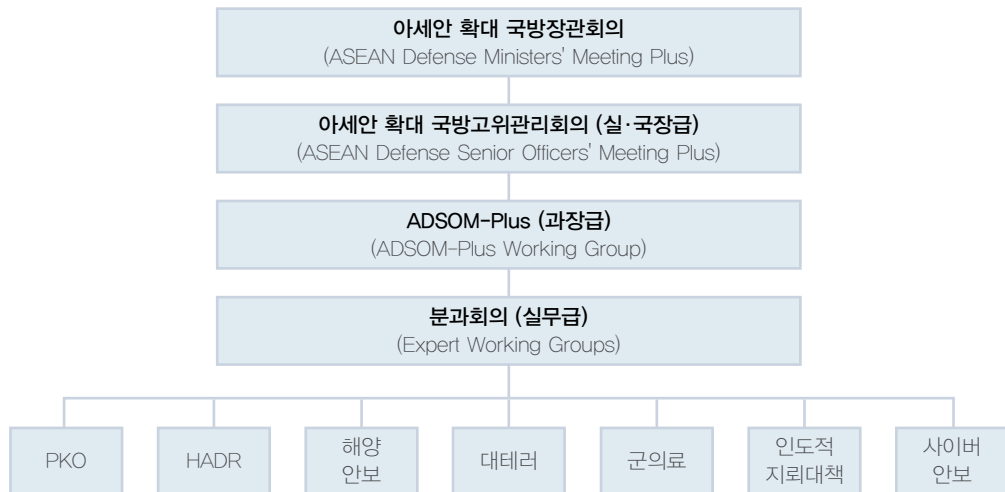
31. Ibid., p. 105.

사이버 안보, 초국가적 범죄 등 다양한 안보 도전이 복합적으로 얹히며,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여기에 더해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확산까지 겹치면서, 아세안은 역내 주요국과 제도화된 군사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은 완전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s)과 구조화된 국방 협력 틀을 마련하고자, 2010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Plus, ADMM-Plus)를 공식 출범시켰다. ADMM-Plus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 등 8개 대화상대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내외 군사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ADMM-Plus는 국방장관회의를 정점으로, 국방고위관리회의(ASEAN Defense Senior Officials' Meeting Plus), 실무회의(Working Group Meeting), 그리고 7개 분과회의(EWG)로 구성된다. 각 분과회의는 아세안 회원국과 대화상대국이 공동 의장국을 맡아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HADR), △해양안보, △대테러, △군의료, △지뢰대책,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례 협력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³²

[그림 3] ADMM-Plus 구성



출처: 국방부 국방정책실.

ADMM-Plus는 기존 ADMM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대화상대국과 실질적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공동 의장국 제도와 야외훈련(FTX)을 기반으로 하는 실무 중심 협력 방식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구조는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안보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4. 국방협력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아세안은 창설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안보 분야에서는 ARF, ADMM, ADMM-Plus로 이어지는 다층적 협력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군사·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협력 구조는 ‘전략적 신뢰’와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지역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합의 중심의 제도화 전략을 통해 심화되어 왔다.³³

ARF는 정치·외교적 대화를 통해 신뢰 구축과 예방 외교를 추구하는 협의체로 기능해왔지만, 실질적인 군사 협력이나 대응 역량에서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2006년 출범한 ADMM은 아세안 회원국 간 국방 협력 강화를 목표로, HADR, PKO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ADMM은 역외 협력까지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고, 협력의 범위도 아세안 내부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2010년 출범한 ADMM-Plus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대화상대국 8개국이 참여하면서 아세안의 군사·안보 협력 외연을 확대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ADMM-Plus 산하 PKO 등 7개 분과회의는 공동 의장국 체제를 운영하며, 정례 협력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이 구조는 미중 전략경쟁 등 역내 갈등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려는 실용적 대응 방식으로 평가된다.³⁴

다층적 협력체계를 통해 아세안은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여전히 위기

32. 이숙연, 「안보목표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제도적 전략: ADMM-Plus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24권 제4호 (2021), pp. 153-170.

33. Ibid., pp. 153-170.

34. Ibid., pp. 163-164.

대응 역량과 집단적 안보 관리 능력 면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APSC)는 제도적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실제 재난과 안보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옌(Haiyan)과 말레이시아 항공기 MH370 실종 사건 당시, 아세안은 공동 대응 메커니즘을 가동하지 못했고, 각국은 개별적 지원에 머물렀다. 이는 재난 대응 및 해양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 체계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35,36}

또한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아세안이 도출한 ‘5대 합의’는 제도적 이행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³⁷ 같은 해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KRI Nanggala-402 침몰 사고에서도 집단 대응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는 양자 협력과 자체 구조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양 안전 및 긴급 대응 측면에서 아세안 공동체가 여전히 제한적인 역량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³⁸

이러한 사례들은 APSC가 선언적 협력 수준을 넘어, 위기 대응과 인도주의적 개입, 갈등 중재 등 비교적 회원국 간 이견의 소지가 적은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제도화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나아가 아세안 중심성의 유지와 실효성 제고 간의 균형을 재정립하고, 대외 협력에서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보완이 요구된다.

35. Ibid., pp. 163-164.

36. 태풍 하이옌 피해 당시 대한민국은 2013년 12월 필리핀에 아라우부대를 파견하여 의무지원, 시설 복구, 인도적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MH370 실종 사태와 관련해서는 2014년 3월 해군 및 해경 함정과 P-3 해상초계기를 포함한 해상탐색지원단을 말레이시아 해역에 파견하여 수색 작전에 참여하였다.

3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얀마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아세안의 역할」, 『안보현안분석』 제179호 (2023), pp. 6-9.

38. CNA, “Indonesia’s missing submarine found, broken into at least 3 parts: Navy”, Channel News Asia, April 25, 2021,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indonesia-submarine-kri-nanggala-found-broken-parts-navy-203501> (검색일: 2025. 4. 21).

5. 전략환경 변화와 PKO 협력의 전략적 의의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는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의 대아세안 국방협력 방식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은 고립주의 경향과 관세 중심의 'MAGA' 기조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³⁹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도 미국은 EAS, ARF, ADMM-Plus 등 아세안 주도의 다자 협력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세안 중심성 약화와 역내 협력 구조의 균열을 초래한 바 있다.⁴⁰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실익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와 동맹 비용 분담 요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 약화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⁴¹

이와 함께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동남아시아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아세안은 '어느 한 진영에도 명확히 편승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자율성 유지노력을 지속하고 있다.⁴² 이러한 입장은 2019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채택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포용성, 투명성, 비차별성, 비정치성을 핵심 원칙으로 설정함으로써 미중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중립성과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⁴³ AOIP는 역내 전략 질서에 대한 아세안의 자율적 비전을 반영하고, 다자주의 기반 협력 지속을 위한 제도적 틀로 기능하고 있다.⁴⁴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세안 내부는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해양안보 이슈에 대해 입장 차이

39. 이재현, 「트럼프 2.0 시대와 동남아, 아세안」, 『아시아 브리프』 (서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4, 11, 18).

40. 박민정, 「트럼프 2.0 시대 동남아의 대응 방향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2024-44호 (서울: 국립외교원, 2025, 1, 8).

41. 강석울, 「트럼프 2.0 시대의 인도-태평양 안보: 대중국 경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지역 전략과 리더십 쇠퇴의 도전」, 『KIDA FOCUS』 제22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5), pp. 2-3.

42. 최원기, 「미중경쟁과 아세안 중심성 약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2023-40호 (서울: 국립외교원, 2023, 12, 20).

43. 이진영 외, 「아세안(ASEAN)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고찰: AOIP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제6권 제3호 (2024), pp. 756-791.

44. 박변순, 「미중 갈등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아세안의 지혜: 이선진 저, 『중국과 공존하는 아세안의 지혜』(박영사, 2023)를 읽고」, 『아시아리뷰』 제14권 제1호 (2024), pp. 289-302.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동의제로서 기능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⁴⁵ 해양안보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일부 해양 국가에 집중된 관심사로, 내륙 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이다. 반면, 유엔 PKO는 아세안 다수 회원국이 병력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야로, 각 국은 PKO를 군의 전문성 제고, 국방역량 강화,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영향력 확대 등 국가발전의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유엔 PKO 운영은 아세안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지속적인 병력 참여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로, 정치적 중립성과 실무 기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자 협력에 적합한 분야로 평가된다. 이러한 PKO의 특성은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의 국방협력 확대라는 양측의 목표가 통합되는 협력 접점으로 귀결된다. 또한,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낮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감한 해양안보 이슈를 우회하면서 아세안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우선 협력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유엔은 창설 80주년을 맞아 ‘UN 80 이니셔티브’를 통해 평화활동의 간소화, 실행력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조직 전반의 구조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PKO를 포함한 유엔 활동 전반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하며, 병력공여국에게는 변화된 기준과 실행 모델에 맞춘 제도 정비와 협력 전략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⁴⁶ 한국과 아세안은 이러한 국제 제도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세안의 유엔 PKO 참여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요 회원국들의 참여 현황과 아세안 차원의 협력 구조를 분석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 PKO 협력이 실질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접점을 도출할 것이다.

45. 배금찬, 「미·중 경쟁과 ASEAN의 전략적 대응: 남중국해 분쟁을 중심으로」, 『정책연구과제』 2015-07 (서울: 국립외교원, 2015), pp. 24-25.

46.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Prioritizes Reform with Launch of UN 2.0, Now Scaled Up to UN 80 for the 80th Anniversary,” UN News, May 2024. <https://www.un.org/en/delegate/guterres-prioritizes-reform-un80-initiative-launch> (검색일: 2025.5.16).

Ⅲ. 아세안의 PKO 전략과 다자협력구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은 전통적인 정전 감시 임무를 넘어,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평화 구축 임무로 진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PKO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유엔 PKO의 발전 경로와 아세안 회원국의 참여 현황, 역내 주요국과 협력 방식, 아세안-유엔 간 제도화된 협력체계, ADMM 및 ADMM-Plus 기반의 다자 협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유엔 PKO의 진화와 전략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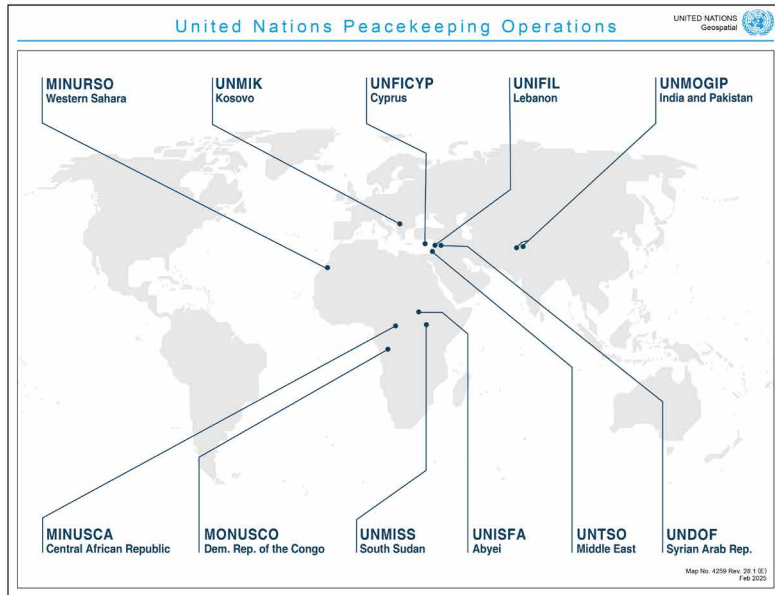
유엔 PKO는 1948년 팔레스타인에서의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휴전감시단(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UNTSO)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유엔은 PKO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도화하고, 임무의 성격과 지역 특수성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점차 확대해 왔다.

2025년 현재, 유엔은 총 11개의 PKO 임무단을 운영 중이며, 약 6만 명의 군·경찰·민간 전문가들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유엔 평화활동 사무국(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DPO)의 지휘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림 4]에 나타나듯, PKO는 임무 유형과 배치 지역에 따라 활동 범위가 상이하며, 전통적 정전 감시부터 민간 보호, 재건 지원, 정치적 중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임무를 포함한다.⁴⁷

4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Overview", United Nations, <https://peacekeeping.un.org/en/departments-of-peace-operations> (검색일: 2025. 2. 17).

[그림 4] 유엔 PKO 임무단(25. 2월 기준)



출처: United Nations, Geospatial, location data for a better world.

초기 유엔 PKO는 정전 감시, 병력 분리, 비무장지대 설정 등 물리적 충돌 방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평화유지활동 형태로, 군사적 감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임무는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⁴⁸ 첫째, 분쟁 당사국의 명시적 동의(consent), 둘째, 공정성과 비편향성(impartiality), 셋째, 자위 및 임무 방어 목적 외 무력 사용 금지(non-use of force except in self-defence and defence of the mandate)이다. 이들 원칙은 유엔 PKO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되며, 분쟁을 격화시키지 않고 평화 과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의 우선적 활용이 전제된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분쟁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PKO는 보다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임무로 확대되었다. 이를 다차원(Multidimensional) PKO라고 하며, 군·경 요원 외에도

4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p. 31.

UN 산하기구(UNCT),⁴⁹ NGO, 민간 전문가, 인권 담당관, 선거 전문가, 법률 자문관 등이 포함되어 정치적 이행, 인권 보호, 민간인 보호, 선거 지원, 법치 확립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⁵⁰

동시에 유엔은 전통적인 군사·정치적 임무를 넘어서, 테러리즘,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 안보, 젠더 기반 폭력, 아동 보호 등 비전통적 안보이슈(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까지 PKO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평화유지의 개념이 전통적인 정전 감시 수준에서 사후 복원력 구축(Post-conflict resilience)과 평화적 거버넌스 정착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⁵¹

유엔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화유지구상」(Action for Peacekeeping, A4P)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A4P+ 우선과제」를 통해 PKO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 전략은 민간인 보호, 여성 참여 확대, 파트너십 강화, 성과 기반 평가 등을 핵심으로 하며, 아세안과 같은 지역 협력체와의 연계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⁵²

더불어, 유엔은 「디지털 전환 전략」(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을 통해 PKO의 효율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혁신을 추진 중이다.⁵³ 이는 위성정보, 사이버 위협 대응, 정보관리 자동화 등 새로운 역량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최근 보고서인 「평화유지의 미래: 새로운 모델과 관련 역량」(Future of Peacekeeping: New Models and Related Capabilities)을 통해 기존 임무

49. UNCT는 유엔 상주조정관의 지휘 아래 UNDP, UNICEF, UNHCR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로, 개발, 인도주의, 인권 분야에서 SDGs 이행을 지원한다. 평화유지임무단이 배치된 국가에서는 WPS, CRSV, 민군협력 등에서 PKO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무단 철수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평화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로 기능한다.

50. UN DPKO, *Principles and Guidelines*, pp. 23-29.

51.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Our Common Agenda Policy Brief 9: A New Agenda for Peace* (New York: United Nations, 2023), pp. 6-9.

52. United Nations, *A4P+: Implementation Priorities for 2021-2023* (New York: UN, 2021), pp. 2-6.

53. United Nations,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New York: UN, 2021), pp. 5-8.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기반 협력, 기술 통합, 민간사회 연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⁵⁴

2. 아세안의 PKO 참여 현황과 특징

아세안 회원국들의 유엔 PKO 참여는 20세기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초기에는 개별 국가 단위의 파병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공동 협력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⁵⁵

1) PKO 참여 현황

[표 2] 아세안 회원국의 PKO 참여 현황('25. 2월 기준)

순위	국가	임무단	인원		
			남성	여성	계
6	 인도네시아	MINURSO(4), MINUSCA(417) MONUSCO(1042), UNFICYP(5) UNIFIL(1252), UNISFA(9) UNMISS(22), UNTMIS(1)	2559	193	2752
21	 말레이시아	MINURSO(10), MONUSCO(8), UNIFIL(831) UNISFA(2), UNMHA(1), UNMISS(18)	771	99	870
28	 캄보디아	MINUSCA(345), MONUSCO(1) UNIFIL(181), UNISFA(1), UNMISS(85)	482	131	613
35	 태국	UNISFA(3), UNMISS(298), UNMOGIP(5)	260	46	306
36	 베트남	MINUSCA(9), UNISFA(195), UNMISS(71)	233	42	275
69	 필리핀	MINUSCA(3), UNMISS(25), UNMOGIP(5)	20	13	33
72	 브루나이	UNIFIL(30)	28	2	30
115	 동티모르	UNMISS(2)	2	0	2
계			4,355	526	4,881

출처: United Nations, DPO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54. United Nations, *Future of Peacekeeping: New Models and Related Capabilities* (New York: UN, 2023), pp. 4-10.

2025년 1월 기준,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유엔 PKO 임무단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아세안 가입이 승인된 동티모르도 소규모로 참여하고 있다. 위의 [표 2]는 아세안 회원국 및 동티모르의 유엔 PKO 참여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⁵⁶

2) 각 회원국의 PKO 전략

(1) 인도네시아: 아세안 PKO의 전략적 선도국

인도네시아는 PKO에 참여한 최초의 동남아 국가로, 오늘날까지 아세안 내에서 가장 활발하고 체계적인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1957년 이집트 유엔긴급군(UNEF)에 ‘가루다 부대(Garuda Contingent)’를 파견한 이래,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등지의 다양한 유엔 임무단에 군과 경찰을 꾸준히 파견해왔다.

인도네시아는 개인 참모, 군사 옵서버, 해군 함정, 정규 보병대대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파병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신속전개대대(Rapid Deployment Battalion, RDB)와 보병대대(UN Infantry Battalion, UNIBAT)는 임무 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유엔 PKO 교리 발전을 위한 교훈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참여는 군사 전문성과 높은 준비태세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며, 2025년 2월 현재 인도네시아는 유엔 회원국 중 병력공여국 순위 6위, 아세안 내 1위를 유지하고 있다.⁵⁷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7년 국방군 평화유지 훈련센터(PMPP-TNI)⁵⁸를 설립하여 PKO 참여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이 센터는 파병 전 교육(PDT), 유엔 민군협력(UN Civil Military Coordination, UN-CIMIC), 젠더 기반 훈련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 및 주요국과 공동 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55. Catherine Jones, “South East Asian Powers and Contributions to Peacekeeping Operations: UN-ASEAN Partnering for Peace?”, February 24, 2024, <https://www.iiss.org/research/analysis/south-east-asian-powers-and-contributions-to-peacekeeping-operations-un-asean-partnering-for-peace> (검색일: 2025. 2. 17).

56.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Troop and Police Contributors”, United Nations Peacekeeping,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검색일: 2025. 2. 17).

57. Ibid.

58. PUSAT MISI PEMELIHARAAN PERDAMAIAN-TNI, <https://pmpptni.tni.mil.id/> (검색일: 2025. 3. 25).

협력 기반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⁵⁹

나아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차원의 공동 기여 논의를 선도해온 국가이다. 2004년에는 ‘아세안 평화유지군(ASEAN Peacekeeping Force)’ 창설을 공식 제안하며, 아세안의 PKO 협력 구상에 제도적 논의를 촉진했다. 비록 일부 회원국의 신중론으로 인해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해당 제안은 아세안 PKO 협력의 방향성을 설정한 이정표로 평가된다.⁶⁰ 이후에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평화유지센터 네트워크(APCN)와 ADMM-Plus의 분과회의(EWG)를 통해 아세안 내 PKO 역량과 연대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2) 말레이시아: 실용성과 역량 중심의 중견 기여국

1960년 유엔 콩고임무단(ONUC)에 특수부대를 파견하면서 PKO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구유고슬라비아(UNPROFOR), 이란-이라크 옴서버, 소말리아, 캄보디아(UNTAC), 동티모르 등 다양한 임무단에서 활동하며 폭넓은 실전 경험을 축적해 왔다.⁶¹ 특히 캄보디아와 동티모르 임무에서는 적극적인 병력 기여와 안정화 지원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 말레이시아 평화유지센터(MPC)⁶²를 설립하여 PKO 관련 교육과 훈련 체계를 제도화하였으며, 아세안 및 ADMM-Plus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군 젠더 어드바이저 과정(MGA), 유엔 참모장교과정(UNSOC) 등 다양한 전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엔의 ‘여성·평화·안보(WPS)’ 구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⁶³

5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Indonesia, *Indonesia's Commitment to UN Peacekeeping: Strategic Contributions and Regional Cooperation* (Jakart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2), p. 19.

60. Vinod Bhatia, *Indonesia an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From Participation to Leadership* (Jakarta: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2023), pp. 13-15.

61. David Capie, "Evolving Attitudes to Peacekeeping in ASEAN", in *New Trends in Peacekeeping: In Search for a New Direction* (Tokyo: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2014), pp. 111-125, <http://www.nids.mod.go.jp/english/event/symposium/pdf/2014/E-06.pdf>.

62. Malaysian Peacekeeping Centre, <https://www.malaysianpeacekeepingcentre.com/> (검색일: 2025. 3. 25).

63. Malaysian Peacekeeping Centre, *Peacekeeping Training and Capacity Development Programmes*, MPC Internal Briefing Document (Kuala Lumpur: MPC, 2023).

최근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통해 중동 지역 분쟁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2024년 7월 1일,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에서 유엔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자지구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아세안 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글로벌 평화 구축에서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⁶⁴

(3) 태국: 지원임무 기반의 실무형 기여국

태국은 냉전 종식 이후 본격적으로 유엔 PKO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레바논, 나미비아, 이란-이라크, 캄보디아, 동티모르 등 20개 이상의 임무단에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첫 파병은 1991년 이라크-쿠웨이트 접경 지역의 비무장지대 감시 임무인 UNIKOM에의 참여였으며, 1993년에는 캄보디아 과도통치기구(UNTAC) 임무에 705명의 공병부대를 파견해 도로 복구, 건설, 지뢰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⁶⁵

또한, 1999년 동티모르 독립 과정에서 호주 주도의 동티모르 국제군(INTERFET)에 1,581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이후 UN 임무단 UNTAET 전환 이후에도 925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태국의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 기여를 기록하였다.⁶⁶ 이후에도 태국은 수단 다르푸르 임무단(UNAMID), 남수단(UNMISS), 서사하라(MINURSO), 아프리카 중앙공화국(MINUSCA) 등지에 군사 옵서버, 참모, 민군협력요원, 여성 평화유지요원 등을 지속적으로 파견해왔다.

태국은 유엔 PKO에 있어 대규모 병력보다는 공병, 의료, UN-CIMIC 등 특수 임무 중심의 기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WPS 의제 이행을 위해 여군의 양성과 파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태국은 PKO를 국제 평화 기여와 군의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무 기반 중심의 증견 기여국으로서 군사력의 다기능화 및 국제 안보 책무 확

64. 강종훈, "말레이 총리 '가자지구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인니와 협력'", 『연합뉴스』, 2024. 7. 2.,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2172700076> (검색일: 2025. 3. 21).

65. David Capie, *Evolving Attitudes to Peacekeeping*, pp. 113-114.

66. Ibid.

대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한다. 다만, 2012년 이후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파병은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소규모 전문 인력 파견 중심의 참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⁶⁷

(4) 필리핀: 확대 기여에서 전략 재조정기로의 전환

필리핀은 1963년 유엔 콩고임무단(ONUC)을 통해 PKO에 처음 참여한 이후, 수십 년간 다양한 유엔 임무단에 병력과 경찰을 파견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티모르, 시리아, 콜란고원, 수단, 남수단, 아이티, 라이베리아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1999년 호주 주도의 동티모르 국제군(INTERFET)에 6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한 것이 대표적인 대규모 기여 사례이다.⁶⁸

또한, 2000년대 들어서도 UNDOF(콜란고원 유엔감시단), UNMIL(라이베리아), MINUSTAH(아이티) 등 다양한 지역에 다수의 군과 경찰을 파견하며 아세안 내 3대 병력 공여국 중 하나로 활약해 왔다. 특히 UNDOF 파견 중이던 2013년에는 필리핀 병력이 시리아 반군에 의해 납치되었고, 2014년에는 무장해제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을 유지한 채 철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⁶⁹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안보 상황과 군 자원의 재배치 필요 등으로 파병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기준, 필리핀은 MINUSCA(중앙아프리카공화국), UNMISS(남수단), UNMOGIP(인도·파키스탄) 등 일부 임무단에 제한된 규모의 병력과 경찰을 파견 중이며, 이는 전략적 재조정기에 들어선 PKO 기여 양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⁷⁰

(5) 캄보디아: 지뢰 및 공병 역량 기반의 실무 기여국

캄보디아는 유엔 PKO와 깊은 역사적 연관을 지닌 국가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자국 내에서 운영된 유엔 캄보디아 UNTAC의 수혜국이었다. UNTAC는 최초의 다차원 임무로

67. Royal Thai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Thailand and UN Peacekeeping", Thailand Mission to the UN, <https://unmissionnewyork.thaiembassy.org/en/content/56079-thailand-and-un-peacekeeping> (검색일: 2025. 3. 25).

68. Capie, *Evolving Attitudes to Peacekeeping*, p. 113.

69. "Filipino force defied UN commander in Golan crisis", The Times of Israel, September 1, 2014, <https://www.timesofisrael.com/filipino-force-defied-un-commander-in-golan-crisis/> (검색일: 2025. 4. 19).

70. Permanent Mission of the Philippines to the United Nations, "Building for Peace", https://www.un.int/philippines/statements_speeches/%E2%80%9Cbuilding-peace%E2%80%9D (검색일: 2025. 4. 19).

서 캄보디아의 총선거 실시, 제헌 헌법 제정, 연립정부 구성 등 분쟁 이후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⁷¹

이후 캄보디아는 수혜국에서 기여국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2006년 UN 수단 임무단 (UNMIS)에 첫 병력을 파견한 이래, 말리(MINUSMA), 차드/중앙아프리카공화국 (MINURCAT), 레바논(UNIFIL), 시리아(UNSMIS), 남수단(UNMISS) 등 7개 임무단에 1,6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며 실질적 기여를 확대해 왔다.⁷²

특히 캄보디아는 지뢰 제거와 공병, 의료, UN-CIMIC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은 이 같은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캄보디아를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임무의 주요 공병·지뢰 제거 병력 공여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UNMIS에는 135명 규모의 지뢰 제거팀을 4개 파견한 바 있으며, UNIFIL에도 공병 150명과 지뢰 제거요원 50명을 파견한 기록이 있다.⁷³

캄보디아는 유엔 PKO 참여를 통해 군의 실무 능력 제고, 국제적 위상 강화, 그리고 양자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2006년 국방백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 무대에 서 군의 명성을 제고하고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PKO에 적극 참여한다”는 전략적 목표와 부합한다. 또한 미국 등 주요국과 교육훈련 협력 및 유엔 보상금은 군 구조 개혁과 역량 강화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도주의 활동 및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1월, 프락 소콘(Prak Sokhonn) 외교부 장관은 “지뢰 제거와 불발탄 처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PKO 및 인도주의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⁷⁴

71. United Nations, “UNTAC Background”, United Nations, <https://peacekeeping.un.org/mission/past/untac.htm> (검색일: 2025. 3. 25).

72. Kingdom of Cambodia, *National Defence Policy 2022* (Phnom Penh: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2022), p. 12.

73. Capie, *Evolving Attitudes to Peacekeeping*, pp.114-115.

(6) 베트남: 후발 참여에서 다차원 기여로의 전환

베트남은 2014년 UN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장교 2명을 파견하면서 유엔 PKO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아세안 국가 중 비교적 늦은 참여였는데, 그 배경에는 자국의 국가주권 존중과 비개입 원칙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이 작용하였다. 식민지배와 외세 침략의 역사적 경험은 외국 군대의 해외 주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였고, 유엔 PKO 역시 외세 개입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오랜 기간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⁷⁵

특히 레 호아이 중(Le Hoai Trung) 전 외교부 차관은 “베트남은 UN PKO를 서방 국가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간주해 왔으며, 이는 유엔 현장과 국제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⁷⁶ 이런 외교적 판단은 1975년부터 1994년까지 유엔 평화유지군 비용 납부를 거부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외교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2008-2009), 아세안 의장국 활동(2010) 등을 통해 PK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엔과 협력의 필요성을 공식화하였다. 2009년 국방백서에서는 유엔 PKO를 “유엔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규정하고, 향후 참여를 준비 중임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상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응우옌 쉰 중(Nguyễn Tấn Dũng) 총리는 PKO 참여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고, 헌법 제89조를 개정해 해외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⁷⁷

베트남은 2014년 5월 27일 평화유지훈련센터(Viet Nam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⁷⁸를 설립하고, 이후 남수단(UNMISS), 중앙아프리카공화국(MINUSCA), 아

74. Buth Reaksmeay Kongkea, “Cambodia Committed to Strengthening Humanitarian Activities with UN”, Khmer Times, December 20, 2024, <https://www.khmertimeskh.com/501611745/cambodia-committed-to-strengthening-humanitarian-activities-with-un/> (검색일: 2025. 3. 25).

75. Vershinina, V. V., Koldunova, E. V., and Kuklin, N. S., “Southeast Asian States’ Approaches to Peacekeeping and Conflict Resolution”, *Vestnik RUDN, International Relations* 23, no. 2 (2023): pp. 265-277, <https://doi.org/10.22363/2313-0660-2023-23-2-265-277>.

76. Ibid., p. 270.

77.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of Viet Nam, *Vietnam National Defence White Paper* (Hanoi: MND Viet Nam, 2019).

78. VNDPKO, <http://www.vnpkc.gov.vn/> (검색일: 2025. 3. 25).

비에이 지역(UNISFA), 유엔본부 등에 장교, 공병, 의료 인력을 파견하면서 다차원 평화유지활동 역량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2018년 레벨2 야전병원을 구성하여 남수단에 파견함으로써 의무, 공병, 군수 등의 전문성을 활용한 실질적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내부에서도 ‘탁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4년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10주년을 맞아 관련 정책을 점검하며, 병력 기여 확대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이다. 베트남의 이 같은 참여 확대는 “외교적 중립성과 국가 주권 수호”를 전제로 한 평화기여 전략의 실현이며, 유엔과 전략적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⁷⁹

(7) 브루나이: 특화 기여를 통한 소규모 실무 중심국

브루나이는 1992년 유엔 캄보디아 UNTAC에서 초기 관찰단 파견을 계기로 PKO에 참여하였으며, 2008년 처음으로 레바논 유엔임무단(UNIFIL)에 병력을 파견하면서 정식 병력 공여국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약 30명의 왕립브루나이군(RBAF) 병력이 말레이시아 대대(MALBAT) 소속으로 UNIFIL에 지속적으로 파견되고 있으며, 이는 브루나이의 PKO 참여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여 사례로 평가된다.⁸⁰

브루나이는 국방자원이 제한된 소규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의 평화협정 감시(IMT)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소규모 군사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다자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비전통 안보 분야(HADR, 해양안보, 젠더 기반 안보 등)에서 실무 협력을 이어오며, WPS 이행을 위한 여성 평화유지요원 훈련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⁸¹

최근에는 브루나이가 ADMM-Plus PKO 분과회의 Cycle #5(2024~2026)의 공동의장국을 중국과 함께 수임함으로써, 단순 병력공여국을 넘어 다자 협력체계 내에서 조정자 및 의제 설정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브루나이가 소규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79.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of Viet Nam, *Vietnam National Defence White Paper*.

80.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Troop-Contributing Countries”, United Nations,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검색일: 2025. 3. 25).

81. Malaysian Ministry of Defence, *Brunei-Malaysia Defence Cooperation Overview* (Kuala Lumpur: MINDEF, 2023).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입지와 국제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⁸²

(8) 싱가포르: 다자 안보 네트워크 중심국

싱가포르는 1989년 나미비아 독립지원그룹(UNTAG)에 의료 및 통신부대를 파견하면서 유엔 PKO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캄보디아(UNTAC), 동티모르(INTERFET, UNTAET), 쿠웨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7개 이상의 유엔 평화유지 및 감시 임무에 특화 인력과 전문가를 파견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캄보디아 임무(UNTAC)와 동티모르 임무(INTERFET, UNTAET)에서 통신·공병·의무 인력 등 특화된 분야에서 기여하며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⁸³

최근 싱가포르는 병력 규모 제한과 전략적 선택에 따라 유엔 임무단에 대한 직접적 병력 파견은 축소하고 있으며, 대신 다자간 안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 기여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ADMM, ADMM-Plus PKO 분과회의, GPOI 등 다자 협력체를 통해 정책적 입장 표명, 평화유지훈련 참여, 군사 역량 공유 등을 지속하면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규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싱가포르의 ‘작지만 유능한 기여국(Small but Smart Contributor)’ 전략을 반영하는 사례로 평가된다.⁸⁴

(9) 동티모르: 평화 수혜에서 기여로의 전환

동티모르는 과거 유엔 임무단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재건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현재는 국제사회에 평화를 기여하는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유엔은 동티모르에 대해 단계별 평화유지임무(UNTAET, UNMISSET, UNOTIL, UNMIT)를 수행하며 독립 지원, 국가 제도 구축, 치안 안정, 선거 관리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엔은 최대 8,000여 명에 달하는 병력과 민간 요원

82.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 "5th Cycle Co-Chairs of EWG on Peacekeeping Operations (2024-2026): Brunei Darussalam & China", ADMM-Plus Official Website, <https://admm.asean.org> (검색일: 2025. 3. 25).

83. Singapore Ministry of Defence, "Singapore's Contribution to UN Peacekeeping Operations", MINDEF Singapore, <https://www.mindef.gov.sg> (검색일: 2025. 3. 25).

84. "Singapore and the United Nations",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ingapore_and_the_United_Nations (검색일: 2025. 3. 25).

을 동원하여 정치적 이행과 치안 안정을 달성하였고, 이는 유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임무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다.⁸⁵

이러한 평화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동티모르는 2018년 평화유지활동 교육훈련센터(Peacekeeping Training Centre)를 설립하였으며,⁸⁶ 현재는 UN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장교 2명을 파견하는 등 소규모이지만 지속적인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4년 9월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가입 승인 이후, 아세안 회원국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역량 구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PKO 분야에서도 향후 병력 확대 및 지역 안보 훈련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동티모르가 유엔과 아세안의 다자 협력 구조 속에서 ‘평화 수혜국에서 평화 기여국’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아세안 회원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유엔 PKO에 꾸준히 기여해 왔으며, 각국은 참여 방식과 수준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장기간의 다차원적 기여와 체계적인 훈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세안 내 대표적인 PKO 선도국으로 부상하였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공병, 의료, 지뢰 제거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필리핀과 태국은 과거 대규모 파병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제한된 규모의 전략적 참여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며, 브루나이와 동티모르는 소규모 병력 파견을 통해 상징적 기여를 지속하고 있다.⁸⁷

이처럼 국가별로 상이한 참여 양태는, 아세안이 개별 국가 수준의 기여를 넘어 지역 차원에서 PKO 협력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ADMM 및 APCN을 중심으로 PKO 관련 협력 구조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전략적 공동 기여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⁸⁸

85. United Nations, “After Years of Conflict, Timor-Leste Turns Peacemaker”, UN Geneva, February 8, 2025, <https://www.ungeneva.org/en/news-media/news/2025/02/103107/after-years-conflict-timor-leste-turns-peacemaker> (검색일: 2025. 3. 25).

86. Ibid.

8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Troop and Police Contributors.”

그러나 아세안 차원의 협력은 여전히 여러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국가 간 참여 수준의 격차, 훈련 및 장비 역량의 불균형, 법적·행정적 체계 차이, 중립성 유지와 정치적 민감성 관리의 어려움 등은 다자 간 협력의 제도화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훈련 체계, 표준운영절차(SOP), 병력 파견 인프라 등이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아세안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지역 협력 주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경험과 교훈의 제도적 공유, △공동훈련 및 SOP 개발, △여성 평화유지요원 확대와 젠더 기반 역량 강화, △PKO 관련 예산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유엔과 전략적 연계성 심화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이 글로벌 평화구축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역내 안보를 주도하는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3. 국방협력 체계를 통한 PKO 협력구조

1) ADMM과 APCN을 통한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

아세안 회원국 간의 PKO 협력은 ADMM을 통해 전략적 방향과 정책적 기반을 수립하고, 아세안 평화유지센터 네트워크(ASEAN Peacekeeping Centres Network, APCN)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 협력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ADMM은 회원국 국방장관 간 정례 회의를 통해 역내 안보협력의 기초를 정립하고, ADMM-Plus 등 외부 파트너와의 다자 협력에서도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7차 ADMM에서는 「ADMM 워크 프로그램(2023-2026)」을 채택하고, 향후 PKO 협력의 중점 의제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⁸⁹ 첫째, APCN을 기반으로 회원국 간 PKO 센터 간의 교육·훈련 협력을 제도

88. ASEAN Secretariat, *Overview of ASEAN-UN Cooperation* (Jakarta: ASEAN, 2024);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the United Nations (2021-2025)*, ASEAN, <https://asean.org/plan-of-action-to-implement-the-joint-declaration-on-comprehensive-partnership-between-asean-and-the-united-nations-2021-2025/> (검색일: 2025. 3. 25).

화하고, 둘째, 유엔 PKO에 참여하는 아세안 회원국의 파병부대에 아세안 공동기(flag)를 게양할 것을 권고하여 지역 정체성과 공동 대응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셋째,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APCN은 2011년 설립 이후, 교관 및 교육생 교류, 훈련 교재 공동 개발, 아세안 평화유지참모훈련(APSE)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아세안의 평화유지 역량 강화를 이끌어왔다. 또한, ADMM-Plus 회원국들과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아세안 공동체 형성과 유엔 PKO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무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⁹⁰

[그림 5] 아세안 평화유지센터 네트워크(APCN)의 주요 활동



출처: MALAYSIAN PEACEKEEPING CENTRE.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934917515405630&set=pb.100066621698542_-2207520000&type=3 (左) / <https://www.malaysianpeacekeepingcentre.com/news/asean-peacekeeping-staff-exercise-2-apse-2> (右)

두 번째 의제인 아세안 공동기 게양은 아세안 회원국들이 유엔 PKO에 파견할 부대에 아세안기를 함께 게양함으로써, 아세안의 집단적 정체성과 연대를 국제사회에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아세안의 통합 의지와 공동체 발전을 표상하는 전략적 메시지로 기능한다.⁹¹

89.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bout ADMM", ASEAN, <https://admm.asean.org/index.php/about-admm/about-admm.html> (검색일: 2025. 3. 25).

90. VietnamPlus, "Vietnam Hosts 8th ASEAN Peacekeeping Centres Network Conference, Workshop", VietnamPlus, April 9, 2024, <https://en.vietnamplus.vn/vietnam-hosts-8th-asean-peacekeeping-centres-network-conference-workshop-post254608.vnp> (검색일: 2025. 3. 25).

세 번째로,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유엔의 평화유지구상(A4P) 및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WPS)의 세부 이행 과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민간인 보호,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과 소통 및 보호 활동에서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여성 요원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역량 개발, 임무단의 숙소 및 편의시설 개선 등 다양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회원국 간 워크숍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표준운영절차(SOP), 위임사항(TOR)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처럼 ADMM의 전략적 정책 방향은 APCN을 중심으로 한 실무적 협력체계를 통해 이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2) ADMM-Plus PKO 분과회의를 통한 다자협력

한편, ADMM-Plus 차원에서의 PKO 협력은 분과회의(EWG)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 [표 3]에서 보듯이, 아세안 국가와 대화상대국(Plus 국가)이 공동으로 의장국을 맡아 3년 주기로 운영한다. 의장국은 의제를 선정하여 정기 워크숍, 도상훈련(TTX), 야외훈련(FTX) 등 프로그램을 주관한다.

예컨대, 제4차 주기 PKO 분과회의(2021~2023)는 베트남과 일본이 공동 의장국을 맡아 WPS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고, 총 4차례의 세미나 및 주기 마지막 년도에 시행한 야외 훈련인 ‘예비 유엔 평화유지요원 역량평가 프로그램(Competency Evaluation Program for Prospective UN Peacekeepers, CEPPP)’⁹²을 실시하였다.

91.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 “About ADMM-Plus”, ASEAN, <https://admm.asean.org/index.php/about-admm/about-admm-plus.html> (검색일: 2025. 2. 17).

92. 의장국에서 분과회의 주기의 전체성과를 평가한다는 개념을 반영하여 야외훈련(FTX) 명칭을 CEPPP (Competency Evaluation Program for Prospective UN Peacekeepers) 변경하여 적용.

[표 3] ADMM-Plus PKO 분과회의 의장국

주기	기간	공동의장국	
		ADMM	Plus
#1	'11.4월~'14.3월	필리핀	뉴질랜드
#2	'14.4월~'17.3월	캄보디아	한국
#3	'17.4월~'20.3월	인도네시아	호주
#4	'21.1월~'23.12월	베트남	일본
#5	'24.1월~'26.12월	브루나이	중국

출처: 국방부 국방정책실.

[그림 6] ADMM-Plus PKO 분과회의 제4차 주기 주요 활동



출처: 국방부 국방정책실 및 육군본부 공병실 분과회의의 참가 결과 보고(개인소장).

3) 아세안과 주요 대화상대국 간 양자협력

아세안 회원국들은 유엔 PKO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CSP를 수립한 주요 대화 상대국과 양자·다자 협력 및 연합훈련을 통해 평화유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협력 강화는 기술 지원 차원을 넘어 전력 운용 능력 향상, 제도화된 협력체계 구축,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및 지역 안보 거버넌스 확립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이 추구하는 대외 전략과 규범 기반의 안보 정체성 형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PKO는 외교·안보 협력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주요 대화상대국들은 자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연계된 PKO 접근 전략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교육훈련, 여성 평화유지요원 지원, 민군협력, 역량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평화유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책임 분담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아세안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 호주를 비롯한 쿼드(Quad)⁹³ 참가국들은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구축을 목표로, 군사·안보뿐 아니라 인프라, 보건, 기술, 재난 구호, PK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협력은 규범 중심의 다자 안보 질서를 지지하는 동시에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앞서 논의한 협력기조를 토대로, 아세안과 CSP를 맺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중국 등의 협력 방식과 그 특징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제도적 지원과 역량 강화 중심의 간접 관여 전략

미국은 유엔 PKO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직접적인 병력 파견보다는 재정적·제도적 지원 중심의 간접 관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 이는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사이에서 ‘선택적 다자주의(assertive multilateralism)’에 입각한 전략적 입장에 기반하며, 국무부 주도의 범세계평화활동구상(Global Peace Operations Initiative, GPOI)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및 제도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⁹⁴

GPOI는 훈련 인프라 구축, 교관 양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평화유지 기여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PMPP-TNI), 말레이시아(MPC), 베트남(VNDPKO)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⁹⁵ GPOI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는 2017년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평화유지센터에 약 1,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강의동을

93.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전략적 대화체로, 2007년 처음 제안되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Freedom and Openness)의 유지, 규범 기반 다자주의, 해양안보, 재난구호, 기술 및 인프라 협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94. Capie, *Evolving Attitudes to Peacekeeping*, p. 120.

건립하고 장비를 제공한 것이다. 해당 시설은 15개의 강의실과 254석 규모의 회의실을 갖춘 다목적 PKO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⁹⁶ 또한 베트남의 첫 번째 레벨2 야전병원이 2018년 UN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의료 장비와 전문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베트남이 유엔 PKO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⁹⁷

미국은 양자 협력 외에도, 인태지역의 주요 유사 입장국가(like-mined countries)와 다자협의체 및 실무협력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PKO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GPOI팀이 주관하는 PKO 역량 및 능력 구축 실무협의체(PKOCB TWG)⁹⁸는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PKO 역량 구축 활동 주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정기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⁹⁹ 이 협의체에는 미국을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 영국 등 주요 기여국(contributing countries)이 참가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국가는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하여 총 2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무협의체(TWG)는 4Ws(Who, What, Where, When) 템플릿을 활용하여 기여 국가별 활동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이 필요한 공백 영역을 식별하고,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며, △협력·조정·공동 수행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주요 기여국의 전략적 자원 분배에도 기여하고 있다.¹⁰⁰

95. Kang Kyu Lee, "Differing US and Chinese Approaches to Peacekeeping",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39, no. 2 (2024): pp. 93-111.

96. D. Ngọc - L. Phương, "Mỹ tài trợ 10 triệu USD cho lực lượng gìn giữ hòa bình Việt Nam", *Người Lao Động*, August 28, 2017, <https://nld.com.vn/chinh-tri/my-tai-tro-10-trieu-usd-cho-luc-luong-gin-giu-hoa-binh-viet-nam-20170828150831606.htm> (검색일: 2025. 3. 25).

97. Trung Kien, "Launch of L2FH No. 1 Confirms Vietnam's Aspiration for Peace", *People's Army Newspaper Online*, October 1, 2018, <https://en.qdnd.vn/military/intl-relations-and-cooperation/launch-of-l2fh-no-1-confirms-vietnam-s-aspiration-for-peace-497433> (검색일: 2025. 3. 25).

98. Peacekeeping Operations Capability and Capacity Building Technical Working Group.

99. U.S. Department of State, "U.S. Peacekeeping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u-s-peacekeeping-capacity-building-assistance/> (검색일: 2025. 3. 25).

100. U.S. Indo-Pacific Command, "Representatives from Eight Partner Nations Participate in Peacekeeping Operations Working Group", U.S. Indo-Pacific Command, March 7, 2023, <https://www.pacom.mil/Media/News/News-Article-View/Article/3303905/representatives-from-eight-partner-nations-participate-in-peacekeeping-operatio/> (검색일: 2025. 3. 25).

이와 함께, 유엔 PKO 협력은 「ASEAN-US Plan of Action, 2021-2025」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행동계획은 △WPS 의제 이행, △유엔 평화유지구상(A4P) 및 A4P+ 참여 확대, △평화유지 훈련센터 역량 강화, △유엔-지원국-수원국 간 삼각협력 프로그램(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TPP) 연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¹⁰¹ 또한 미국은 ADMM-Plus, ARF, 아태 PKO 훈련센터 협의체(AAPTC) 등 PKO 관련 지역 안보협의체와 연계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¹⁰² 특히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GPOI 팀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평화유지전력 운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¹⁰³ 이러한 활동은 미국의 PKO 협력이 기술적 지원을 넘어 규범 기반 다자주의 실현과 지역 안보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0 행정부는 특정 유엔 기구 탈퇴, 출연금 중단 등을 선언하며 유엔에 대한 지원 기조의 전환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유엔 PKO 예산 안정성과 협력 프로그램(GPOI 등)의 지속 여부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¹⁰⁴ 향후 미국의 PKO 참여는 다자주의보다는 선택적 개입과 실용주의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세안 역시 이에 대비한 협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¹⁰⁵

(2) 호주: 현장훈련과 수송 지원을 통한 실용적 연계 협력

호주는 아세안 회원국과 PKO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태국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피랍 자비루(Pirap Jabiru)’ 훈련이다. 이 훈련은 WPS, UN-CIMIC 등 현장 상황에 기반한 지휘참모 훈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101. ASEAN Secretariat, *ASEAN-United States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2021-2025)*, paras. 1.4, 1.8, 4.3-4.6, <https://asean.org> (검색일: 2025. 3. 25).

102. ASEAN Regional Forum, *3rd ARF Peacekeeping Experts' Meeting Summary Report*, June 2019, <https://aseanregionalforum.asean.org/wp-content/uploads/2019/06/AnnexE-3rd-ARF-P-KE-Meeting.pdf> (검색일: 2025. 3. 31).

103. Ibid.

104. The White House,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and Ending Funding to Certain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February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withdrawing-the-united-states-from-and-ending-funding-to-certain-united-nations-organizations-and-reviewing-united-states-support-to-all-international-organizations/> (검색일: 2025. 3. 31).

105. Max-Otto Baumann et al., *Trump 2.0 and the United Nations: Implications for Multilateral Funding and Leadership* (Berlin: Friedrich-Ebert-Stiftung, 2025), pp. 2-6.

있으며, 참가국들의 평화유지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현재 이 훈련은 아세안 회원국은 물론 태도국 및 역내 주요국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안보훈련 플랫폼으로 정착하였다. 2024년에는 19개국에서 약 70명이 참가하였고, 2018년에는 100명 이상(20개국), 2016년에는 22개국의 군·경·NGO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등, 본 훈련은 실증적인 지역 안보협력의 장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호주가 아세안의 PKO 역량 강화를 위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표적 협력 활동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와 Garuda Kookaburra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군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아세안 회원국 PKO 훈련센터 간 연계 협력을 통해 훈련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역량을 확보한 아세안 회원국들이 실제 유엔 임무단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호주 공군은 C-17A 글로마스터 수송기를 제공하여 베트남의 레벨2 야전병원이 남수단(UNMISS)에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베트남의 평화유지군 역량 강화와 임무수행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¹⁰⁶

이와 더불어, 호주는 솔로몬제도에서 수행한 솔로몬제도지역원조단(RAMSI)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아세안의 협력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RAMSI를 통해 호주는 통합 임무 수행, 공공행정 회복, 여성의 평화과정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운영 경험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아세안과 PKO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¹⁰⁷

2024년 채택된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Austral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2025-2029)」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PKO, HADR, 인도적 지뢰 제거, WPS, 청년·평화·안보(YPS) 등의 분야에서 ADMM-Plus를 중심으로 한 실무 협력 및 훈련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PKO 참여 확대, 아세안 지역지뢰대응센터(ARMAC)와의 연계, 지역별 훈련 및 장비 협력 확대는 아세안과 호주

106.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Australia Supports Vietnam Peacekeeping Mission in South Sudan", July 8, 2023, <https://www.defence.gov.au/news-events/releases/2023-07-08/australia-supports-vietnam-peacekeeping-mission-south-sudan> (검색일: 2025. 3. 31).

107. Australian Mission to ASEAN, "Lessons Learnt from Australia's Involvement in Peace and Reconciliation", https://asean.mission.gov.au/aesn/HOMSpeech14_14.html (검색일: 2025. 3. 31).

간 실용적 방위협력의 주요 지향점으로 설정되었다.¹⁰⁸ 이러한 기조는 현장 중심의 연합훈련 경험과 규범 확산 전략을 결합한 호주의 PKO 접근 방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3) 일본: 제도화된 다자협력과 WPS 기반 규범 확산 전략

일본은 국방역량 구축 프로그램과 다자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비엔티안 비전(Vientiane Vision)」 및 「비엔티안 비전 2.0」은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맞춤형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협력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과도 긴밀히 연계된다.¹⁰⁹

일본은 남수단(UNMISS)에 참모장교를 파견하여 PKO에 참여하고 있으며,¹¹⁰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TPP)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병·의료·통신(C4ISR)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협력 시 공병 중장비 및 교관을 지원하여 PKO 훈련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¹¹¹ 또한 WPS 이니셔티브 선도 국가로서, 방위성 차원의 「WPS 이행계획(WPS Promotion Plan)」을 수립하여 △여군의 PKO 참여 확대, △지휘관 대상 성인지 교육, △국제 세미나 개최, △평화활동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규범 내재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아세안 9개국 및 태평양도서국 여군을 초청하여 교관 훈련(ToT), 재난대응, 민군협력, 의료기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SDGs와 연계된 다자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¹¹²

국방역량 강화 차원에서 일본은 「Defense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항공의학, 도로 건설, HADR, 공병, PKO 훈련 등을 장단기적으로 지원해 왔다. 캄보디아에는 도로건설 공병훈련을 제공하여 수료자들이 UNIFIL에 실제 파병되었고, 라오스·미얀마에 항공기상

108. ASEAN Secretariat,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Austral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5-2029)*, paras. 1.2.1, 1.2.6, 1.2.9-1.2.10, <https://asean.org> (검색일: 2025. 3. 31).

109. Shoji Tomotaka, “Japan’s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East Asian Policy* (2024).

110. Japan Ministry of Defense, “UNMISS PKO Overview”, <https://www.mod.go.jp/en/pko/unmiss/overview.html> (검색일: 2025. 4. 5).

11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https://www.mofa.go.jp/policy/un/pko/triangular.html> (검색일: 2025. 4. 5).

112. Japan Ministry of Defense, “WPS Promotion Plan”, <https://www.mod.go.jp/en/dact/dpolicy/wpspan.html> (검색일: 2025. 4. 5).

및 의무 분야 훈련 지원 시, 자위대 시설을 이용한 현장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기술이전은 물론 수요국의 자립형 국방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다.¹¹³

주요 협력사항들은 「ASEAN-Japan Joint Vision Statement Implementation Plan(2023)」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계획은 PKO, HADR, WPS, YPS, 해양영역 상황 인식(MDA), 위기관리 통신체계(ADI) 등을 핵심 협력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¹¹⁴ 특히 일본은 제4차 주기 ADMM-Plus PKO 분과회의에서 베트남과 공동의장국을 수임하며, 아세안의 국방협력 체계 내에서 PKO 분야의 실질적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는 협력 모델 구축에 기여하였다.

(4) 인도: PKO 현장 기반 협력과 글로벌 사우스 연대

인도는 유엔 PKO의 대표적인 병력공여국으로, 2025년 2월 기준 전 세계 11개 유엔 PKO 임무단 중 9개 임무단에 총 5,375명의 병력을 파견하며 병력공여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폭넓은 참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경험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도는 작전·전술 수준에서의 교훈과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인도의 평화유지 훈련 거점인 인도 평화유지 훈련센터(CUNPK)는 2000년 인도 육군 주도로 설립되어 국방부, 외교부, 육군이 공동 운영하는 국방외교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센터는 연간 약 10,000명 이상의 인도 및 외국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파병 전 훈련과 유엔 공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96개국에서 약 1,900명의 외국 군 인원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CUNPK는 아세안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훈련팀(Mobile Training Teams)을 파견하여 현지 기반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2025년 2월에는 뉴델리 마넥쇼 센터에서 ‘글로벌 사우스 여성 평화유지요원 회의(Conference on Women Peacekeepers from the Global South)’를 개최하여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3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¹¹⁵

113. Japan Ministry of Defense, *Japan's Defense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Tokyo: MOD Japan, 2023), pp. 4-12.

114. ASEAN Secretariat, *Final Implementation Pla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2023, paras. 3.6-3.8, 3.13, 3.17-3.18.

양자 차원에서 인도-베트남 양자 육군훈련(VINBAX)은 공병, 의료, WPS 역량을 중심으로 한 통합형 훈련으로, 베트남의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병과도 연계되었다.¹¹⁶ 미얀마와는 인도-미얀마 양자훈련(IMBEX)을 통해 유엔 기준 기반의 기초 역량 훈련, 인도적 재난 대응, 전술 기동 등을 포함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¹¹⁷ 이러한 양자 및 다자훈련은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PKO 역량 강화, 규범 공유,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제도적 측면에서 인도는 「ASEAN-India PoA(2021-2025)」를 통해 PKO, HADR, 의무, 사이버 위협 대응, 지뢰 제거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지뢰대응센터(ARMAC)와의 연계, ADMM-Plus PKO 분과회의 등 다자 협력 틀 안에서 정책-훈련-실행이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¹¹⁸

나아가 아세안과의 협력은 인도의 'Act East' 정책 및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유엔과 함께 규범을 공유하고, 다자주의 기반의 전략적 리더십을 추구함으로써 PKO 분야에서 중견국 외교의 대표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¹¹⁹

(5) 중국: 다자주의와 글로벌 사우스 연계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중국은 유엔 PKO 참여 확대를 통해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병

115. Ind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dia's Legacy in UN Peacekeeping: Leadership, Commitment, and Sacrifice*,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09587#:~:text=Para%20tr%20oopers%20from%20India%20and%20the,security%20in%20the%20developing%20world> (검색일: 2025. 3. 25).

116. Embassy of Vietnam in India, "VINBAX 2024", Vietnam Embassy in India,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09587> (검색일: 2025. 3. 25).

117. Unacademy, "IMBAX Army Exercise between Myanmar and India", Unacademy, <https://unacademy.com/content/upsc/study-material/army-exercise/imbax-army-exercise-between-myanmar-and-india/#:~:text=Conclusion:,the%20armed%20forces%20within%20Myanmar> (검색일: 2025. 4. 5).

118. ASEAN Secretariat, "ASEAN-India POA (2021-2025)",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0/09/ASEAN-India-POA-2021-2025-Final.pdf> (검색일: 2025. 3. 25).

119. 최원기 외, 「한국의 인태지역 역할 확대 방안」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 pp. 22-25.

력공여국 8위,¹²⁰ 재정기여국 2위¹²¹로서 P5 중 최대 기여국으로,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전략적 위상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중국은 아세안과의 PKO 협력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있다.

중국은 의무, 공병, 수송 등 기술 기반의 파병을 중심으로 실질적 기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자 협력 프로그램과 국제교육 과정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평화유지요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60여 개국 1,500여 명 이상의 외국 군을 대상으로 국제훈련을 실시하였고, 특히 지뢰 제거, UN-CIMIC, WPS 관련 교육 과정은 캄보디아, 라오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¹²²

제도적 차원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ASEAN-China PoA(2021-2025)」를 통해 평화유지 및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HADR, 의무, 지뢰 제거, 사이버 안보 등의 분야에서 공동훈련과 군사 싱크탱크 교류, 교육 프로그램은 상호 신뢰와 운용 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광시성에 설립된 ‘ASEAN-China Emergency Management Cooperation Center’는 아세안조정센터(AHA Centre)와의 연계를 통해 재난대응과 위기관리 훈련을 제도화하고 있다.¹²³

중국은 다자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2021년 자국 내 취산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도 태국, 몽골, 파키스탄 등과 함께 개최한 ‘공동 운명-2021(Shared Destiny-2021)’ 훈련에는 1,000명 이상이 참가하였으며, 민간인 보호, 무장순찰, 테러 대응 등의 과제를 반영한 PKO 종합훈련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브루나이와 함께 ADMM-Plus PKO 분과회의의 제5차 주기(2024~2027년) 공동의장국을 맡아 아세안과의 협력 구체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 브루나이에서 공동 개최한 제19차 분과회의에서는 ‘유엔 PKO의 현재 과제와 미래 발전’을 주제로 회원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는 다자훈련의 제도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사례로 평가된다.¹²⁴

120.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Troop and Police Contributors.” (2025)

121. 박상현, “중국이 낸 유엔 분담금 20% 첫 돌파…‘고립 심화’ 미국과 대비”, 『연합뉴스』, 2025. 3. 5.,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095400073?input=1195m> (검색일: 2025. 4. 21).

122.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RC, *China's Armed Forces: 30 Years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Beijing: 2020), pp. 22-23.

123. ASEAN Secretariat, *ASEAN-China Plan of Action (2021-2025)*, paras. 1.1-1.8, 4.11-4.12, Annex.

중국은 유엔 차원의 정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유엔 안보리 공개토론에서 고위급 국방·외교 당국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국가들을 위한 PKO 훈련 및 장비 지원 의지를 공식 표명하였으며, 이는 유엔의 ‘평화유지구상(A4P 및 A4P+)’과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동시에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를 통해 아세안과의 비전통 안보 협력 및 개발 연계를 강화하며, 규범 기반 지역안보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¹²⁵

이러한 전략은 중국이 자국을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으로 포지셔닝 하며, 아세안과의 PKO 협력을 ‘일대일로(BRI)’ 및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실행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교 구상과 맞닿아 있다. 아세안은 BRI 육·해상 루트의 핵심 접점이자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되며, PKO, HADR, 사이버 안보 등은 중국식 안보 규범과 체제 모델 확산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가들이 제시한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¹²⁶ 개념과 결합되어, 군사·비군사, 평시·전시를 구분하지 않는 전방위적 삼투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6) 한국: 교육·훈련 중심의 협력 확대

한국은 국방부 주도하 PKO 센터 간 인적 교류,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TPP)을 활용한 훈련 지원,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 과정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PKO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Ⅳ장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

(7) 아세안의 PKO 양자협력: 전략적 환경과 구조적 특징

아세안의 PKO 양자협력은 주요 대화상대국들의 전략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중 간의 경쟁 구도도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 미국은 GPOI(범세계평화활동구상)를 중심으로 WPS(여성·평화·안보),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기반 훈련,

124. Bandar Seri Begawan, “The 19th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 Experts’ Working Group on Peacekeeping Operations held in Brunei”, Asean All, December 11, 2024, <https://www.aseanall.com/news/8823.html> (검색일: 2025. 4. 21).

125.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ecurity Council Open Debate on UN Peacekeeping Operations”, UN Press Release SC/14093, March 30, 2020.

126. 이지용, 『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서울: EPOCH, 2025), p. 60.

훈련 인프라 구축 등 규범 중심의 제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¹²⁷ 반면, 중국은 BRI(일대일로), GSI(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GDI(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¹²⁸ 병력 파견, 기술 지원, 인프라 제공, 다자훈련 등 실질적 기여 중심의 협력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전략은 PKO를 활용한 안보 협력을 통해 규범 확산과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정학적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략 환경 속에서 아세안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략적 균형 외교를 통해 실익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해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가 지적한 것처럼, 동남아는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접점(pivotal arena)’이며, 아세안은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을 지향하면서도 자신의 규범 정체성과 중심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¹²⁹

한편, 쿼드(Quad) 국가들은 아세안과의 PKO 협력에서 기능별 역할 분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GPOI를 통한 제도 기반 훈련과 정책 지원을 담당하고, 일본은 WPS 및 UN TPP 연계를 통한 규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호주는 수송 및 실전형 훈련 지원, 인도는 CUNPK를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아세안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각국의 전략과 연계된 다층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¹³⁰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MAGA’ 기조하에 유엔 분담금 삭감, 다자기구 탈퇴 가능성 등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의 전략적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¹³¹ 이러한 상황은 PKO 협력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기회 삼아 BRI, GSI, GDI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PKO 협력의 경쟁 구도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¹³²

127. 이강규 외, 「미중의 평화(유지)활동 접근방식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24), pp. 73-76.

128. 최원기, 「미중경쟁과 아세안 중심성 약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2023-40호 (서울: 국립외교원, 2023. 12. 20).

129. 데이비드 샴보, 『강대국이 마주치는 곳, 동남아시아에서의 미중 경쟁』, 이한술, 이지수, 양희용 역, (계룡: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pp. 9-15.

13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Quad Joint Leaders’ Statement”, <https://www.mofa.go.jp/files/100506959.pdf> (검색일: 2025. 4. 6).

131. 최윤정, 「2024년 아세안 정세 평가와 2025년 전망」 (세종연구소, 2024. 12. 27).

이처럼 복합적인 전략 환경 속에서 아세안은 PKO를 자율성과 규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엔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실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 협력의 차원을 초월하여 지역 질서 구축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다자 연계, 규범 확산, 실질 협력이라는 세 가지 전략 축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PKO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아시아·태평양 평화활동 훈련센터 협의체(AAPTC)¹³³ 기반 협력

아세안 회원국들과 역내 주요국들은 유엔 PKO 관련 다자 협력의 일환으로, ADMM-Plus 차원의 정책 협의와 더불어 훈련 실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AAPTC에 참여하고 있다. AAPTC는 역내 PKO 훈련기관들이 정기 총회를 통해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관 및 콘텐츠 교류, 모범사례 및 교훈 등을 공유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훈련 중심 다자 협의체이다.

AAPTC는 현재 ADMM-Plus 18개 회원국 중 15개국을 포함해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등 총 2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유엔 PKO의 최신 교리와 훈련 동향을 주제로 워크숍, 회원국 별 교육 과정 및 PKO 전략 발표, 훈련 표준화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공동 선언문 채택을 통해 회원국 간 파병 전 교육의 상호 협력, 여성 평화유지요원 훈련, 스마트캠프 운영 등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AAPTC는 유엔 DPO, 미 GPOI, 타 지역 PKO 협의체 및 국제기구와 연계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ADMM-Plus PKO 분과회의와도 정책 방향과 훈련 실행을 연계하는 실행 중심 가교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132. 최원기, 「미중경쟁과 아세안 중심성 약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2023-40호 (서울: 국립외교원, 2023. 12. 20).

133. 아시아·태평양 PKO훈련센터 협의체(Association of Asia-Pacific Peace Operations Training Centers, AAPTC)는 2010년 설립된 지역 내 평화유지훈련기관 간 협의체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교육 표준 확산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AAPTC는 미 국무부의 범세계평화활동구상(GPOI) 후원 아래 공동 훈련, 정보 공유, 센터 간 협력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PKO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https://www.aaptc.asia/> (검색일: 2025. 3. 27).

[표 4] 아태지역 PKO 훈련센터 협의체(AAPTC) 회원국

구분	회원국
ADMM-Plus 회원국(15)	(ADMM)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Plus)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미국
기타 역내 국가(7)	방글라데시, 캐나다, 피지, 몽골,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티모르, 통가
옵서버(2)	부탄, 독일

출처: AAPTC 홈페이지(<https://www.aaptc.asia/members>).

[그림 7] 제10차 AAPTC 총회(2022, 베트남)



출처: AAPTC 홈페이지 <https://www.aaptc.asia/storage/files/1/gallery/2022%20Vietnam/banner.jpg>

최근 AAPTC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가 논의되었다. 2018년 한국 서울 총회에서는 유엔 기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정착이 강조되었고,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2022년에 베트남 하노이 총회에서는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 회원국별 비접촉형 파병 전 교육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었다. 이어 2023년 호주 시드니 총회에서는 여성 평화유지요원 프로그램, 공동훈련 확대 등 실천적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2024년 방글라데시 총회에서도 이러한 협력 흐름이 이어졌으며, AAPTC가 역내 실질적 훈련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AAPTC는 훈련 실행력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CSP를 체결한 주요 파트너국 간 유엔 PKO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ADMM-Plus

의 정책 협의 구조와 유엔 중심의 다자 협력체계를 현장에서 연결하는 전략적 매개체로 발전하고 있다.

4. 아세안-유엔 PKO 협력구조

아세안은 1967년 창설 이래 역내 안정과 평화 유지를 핵심 목표로 삼아왔으며, 이는 「아세안 헌장」 제1장 제1조에서 “지역 내 평화, 안전 및 안정성 유지와 평화 지향적 가치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아세안의 가치지향은 「유엔 헌장」 제1장 제1조가 규정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의 목적과도 일치하며, 양측은 PKO 분야에서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왔다.¹³⁴

2024년 발표된 「아세안-유엔 협력 개요(Overview of ASEAN-UN Cooperation)」에 따르면, 아세안은 현재 10개의 유엔 평화작전 임무단에 군 및 경찰 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유엔은 아세안의 WPS 의제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WPS 이행과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참여 확대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제도 구축과 역량 강화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유엔은 간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 선언 이행을 위해 행동계획(PoA)을 수립하고, 정치·안보 협력 분야에서 아세안의 유엔 PKO에 대한 지지와 아세안의 참여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행동계획은 아세안 중심성의 원칙에 따라, 아세안이 역내 협력의 주도적 행위자(Primary Actor)이자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에서 전략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¹³⁵ 이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 협력에서 아세안이 중심적 역할을 통해 다자간 협력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이끌고자 하는 전략적 지향을 반영한 것이다.

PoA는 유엔이 추진 중인 주요 PKO 정책과 연계를 통해 아세안의 기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다음의 5대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¹³⁶ 첫째, 「WPS 공동성명」과 AIPR, AWPR 등을 활용한 아세안의 평화역량 및 젠더 주류화 지원이 이루어지며, 관련 연구·훈련·정책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다. 둘째, 유엔 A4P와 연계를 통해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134. United N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I – Purposes and Principles”,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full-text> (검색일: 2025. 3. 25).

135. 이재현,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전략」, 이슈브리프,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 10. 5).

참여 확대와 PKO의 목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평화유지 훈련 및 교육지원을 통해 UN-CIMIC, 보건·보안, SEA 방지 등 전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세안 평화유지센터 네트워크(APCN)를 통한 유엔 모범사례 공유가 확대되고 있다.

[표 5] ASEAN-유엔 협력 개요('24. 7월)¹³⁷

정치·안보 협력
10항. 유엔은 아세안의 여성, 평화 및 안보(WPS) 의제 추진 노력을 지원해 왔으며, 이를 위해 아세안 여성 평화 위원회(ASEAN Women for Peace Registry, AWPR) 및 아세안 WPS 연구를 지원하였다. 지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i) 2022년 12월 WPS에 관한 최초의 지역 행동계획(Regional Plan of Action, RPA) 채택 및 출범 (ii) 2023년 7월 “아세안 WPS 정상회의: RPA 이행 촉진을 위한 고위급 대화” 개최 이 정상회의는 RPA의 이행 및 국가 차원의 현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WPS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1항. 아세안-유엔 간 평화유지 및 분쟁 후 평화 구축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별 연락 지점(National Focal Points)과 아세안 평화유지센터 네트워크(ASEAN Peacekeeping Centres Network)를 통한 활동을 포함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으로 총 5,052명의 군인 및 경찰 평화유지 요원이 10개의 유엔 평화작전 임무에 파견되었다. 특히, 여성 평화유지 요원의 점진적인 증가를 통해 글로벌 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연기되었던 삼각 파트너십 프로그램(Triangular Partnership Project)의 평화유지 공병 훈련 과정이 2022년 인도네시아에서 재개되었으며, 이후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추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 ASEAN 홈페이지.

넷째, 유엔 TPP를 통한 공병, 의료, C4ISR 분야의 기술훈련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섯째, 「UNSCR 1325」 등 유엔 WPS 결의 이행을 위한 WPS 이행 지원이 지역 대화, 기술 자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36. ASEAN Secretariat,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the United Nations (2021-2025)*,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1/09/ASEAN-UN-POA-2021-2025-final.pdf> (검색일: 2025. 3. 25).

137. ASEAN Secretariat, *Overview of ASEAN-UN Cooperation (2024.7)*, <https://asean.org> (검색일: 2025. 3. 25).

[표 6] 아세안-유엔 간 PKO 관련 행동계획

협력 과제	세부 내용	기대 효과
아세안의 평화역량 및 젠더 주류화 지원	· 「WPS 공동성명」 및 RPA(지역 행동계획)에 기반한 WPS 연구 수행 · AWPR 및 AIPR를 활용한 젠더 주류화 연구 · 평화구축,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 ASEAN-ISIS 및 CSCAP 등 학술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유엔 WPS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및 아세안 내 평화구축 성인지 감수성 제고
유엔 평화유지 구성(A4P) 협력	· A4P 이행 협력 확대: 8개 영역,¹³⁸ 45개 과제 · PKO의 목적 적합성을 위한 제도적 연계 ·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참여 확대	유엔 중심 PKO 정책과의 정합성 강화 및 아세안의 전략적 참여 확대
평화유지 훈련 및 교육지원	· CIMIC, 인도적 지원, 보건·보안, 아동보호, SEA 방지 등 다분야 훈련 · APCN 강화를 위한 UN 모범사례 공유 · 평화유지 관련 연구·교육기관 협력 확대	임무수행 역량 제고 및 지속가능한 훈련 네트워크 형성
삼각협력 프로그램(TPP) 협력	· 공병, 의료, C4ISR 등 실무 기반 훈련 · 유엔-지원국-아세안 간 3자 협력 기반 훈련 · 참여국의 준비도에 기반한 자율적 이행	기술 기반 평화유지 역량 강화 및 유엔 A4P 기여 확대
여성·평화·안보 (WPS) 이행 지원	· 「WPS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역내 정책 대화, 기술 자문, 훈련 지원 · UNSCR 1325 및 관련 결의 이행	젠더 기반 평화활동 정책의 지역 내 제도화 및 유엔 표준화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출처: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the United Nations(2021-2025)를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협력 구조는 아세안의 PKO 참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유엔 PKO 정책과의 일관된 연계를 통해 아세안이 전문성과 전략적 역할을 동시에 갖춘 기여자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138. ①분쟁의 정치적 해결, ②여성평화안보, ③민간인 보호 강화, ④평화유지요원의 안전 강화, ⑤성과 및 책임성 강화, ⑥평화구축 및 지속적 평화, ⑦파트너십 강화, ⑧행동규범 준수.

5. 아세안 PKO 전략의 평가와 과제

아세안은 「아세안 헌장」과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 내 평화, 안전 및 안정성 유지”와 “평화 지향적 가치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이러한 가치 기반 접근은 정치·안보 공동체(APSC) 구축이라는 구조적 비전과 결합되어, PKO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의 PKO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다.

첫째, 유엔 PKO와 연계한 아세안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지향한다.

아세안은 유엔과 제도적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평화유지 기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시에 회원국 간 정치·안보 연대 역시 강화해왔다. 유엔 PKO 참여를 계기로 아세안은 분쟁 지역에서 중립적 중재자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내에서 아세안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서구 주요국가의 PKO 참여가 축소되는 가운데, 아세안의 지속적인 병력공여와 정책 연계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평화협력 파트너로서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보다 능동적인 평화협력 참여를 위해 역내 자립적 역량 강화를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APCN, ADMM-Plus PKO 분과회의, AAPTC 등 다자협력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은 공동 훈련 확대, 교리 표준화, 정책 조율을 추진하는 한편, 회원국 간 훈련 교범과 콘텐츠를 공유하고, 교관·교육생 교류, 연합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엔 중심의 활동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아세안 중심성을 실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아세안은 유엔 TPP, A4P,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글로벌 협력 플랫폼에서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중국 등과 제도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적 흐름은 인태 전략, 글로벌 사우스 연대, 소다자 협의체(minilateralism) 확대 전략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¹³⁹ 아세안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39. Capie, *Evolving Attitudes to Peacekeeping in ASEAN*, pp. 120-123.

둘째, 국방 현대화와 안보역량 강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PKO 참여를 군의 작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 평화작전에서 요구되는 작전개념(CONOPS), 부대 요구사항(SUR),¹⁴⁰ 위임명령(Mandate)을 기반으로, 각국은 지휘통제(C2) 및 군수지원 체계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다차원 임무 수행을 통해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대응능력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전략(Strategy for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을 반영한 스마트 작전 운용 및 훈련체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¹⁴¹

특히 AAPTC와 ADMM-Plus 훈련체계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은 PKO 관련 전기(techniques)·전술(tactic) 능력 향상과 더불어,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표준화된 훈련 과정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다국적 임무수행의 준비태세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아세안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 창출 수단이기도 하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PKO를 외교·안보 차원의 기여를 넘어, 국방 예산 보완과 경제적 이익 확보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엔은 병력 공여국을 대상으로 병력 유지비와 장비 사용료를 보전해주는 ‘병력 공여국 경비보전제도(Contingent-Owned Equipment, COE Reimbursement)’¹⁴²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예산이 제한된 중소 병력 공여국에게 실질적인 재정 보완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PKO 파병을 통해 외화 수입 확보, 장비 운용비 회수, 인건비 절감 등의 실익을 실현하고 있다. 예컨대, 장비 보유율이 높은 국가들은 PKO 참여를 통해 운용 장비의 국제 검증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140. Statement of Unit Requirement (SUR)는 유엔이 임무단별로 요구하는 부대 유형, 병력, 장비, 임무 범위 등을 명시한 공식 문서로, 병력공여국과 파병 협의 및 작전 표준화를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141. United Nations,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 (New York: UN DPO, 2021), <https://peacekeeping.un.org/en/digital-transformation-strategy> (검색일: 2025. 3. 25).

142.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Reimbursement Rates for Troop and Equipment Contributors”,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검색일: 2025. 3. 25).

적으로 군수 효율성 강화와 무기체계 현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PKO 참여는 청년층 고용 및 병력 유지 부담 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군 내부의 직업 전문성 제고와 병력 활용 융통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PKO는 군사적 임무 수행과 동시에 국가 경제안보 전략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다.

향후 아세안은 PKO의 재정·경제적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국가 재정전략, 군 구조 개편, 방산산업과의 연계 등과 통합하는 정책적 설계를 통해 PKO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넷째, 한국과의 PKO 협력 확대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아세안의 PKO 전략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은 중견 기여국으로서 유엔 중심 다자협력 경험과 더불어, 축적된 훈련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맞춤형 역량 강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23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 훈련과정, 디지털 기반 콘텐츠 개발, TPP 확대, UN 스마트캠프 구축 지원, C-IED 및 의료훈련 강화, 엘시 이니셔티브(Elsie Initiative) 추가 재정 기여, WPS 역량공유 세션 개최 등 아세안 대상 공약을 다수 발표하며 실질적 연계를 강화했다.¹⁴³

이러한 공약은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WPS, 연합훈련, UN-CIMIC, TPP, 스마트기술 기반 훈련 등과 전략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여군 참여 확대와 지역 내 훈련 주도권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ADMM-Plus PKO 분과회의, APCN, AAPTIC 등 다자협력 체계를 매개로 한-아세안 간 PKO 협력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에 부합하는 국방협력의 핵심 과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한국은 장관회의에서 제시한 공약의 이행을 기반으로,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

143. 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전세계 국가들의 실질적 기여 결집,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결과」, 보도자료 (서울: 외교부, 2021. 12. 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53> (검색일: 2025. 3. 25).

형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아세안의 PKO 역량 구축과 유엔 평화활동 체계에 대한 기여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PKO 참여를 통해 역내 안보 안정, 국방 현대화, 외교적 위상 제고, 경제적 실익 확보 등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특히 PKO는 개별 회원국에게는 군의 전문성 향상과 국제사회 기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세안 전체로는 정치적 부담이 낮고 규범 수용성이 높은 협력 방식으로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동 파견, 통합 지휘체계, 집단적 대응 역량 등 아세안 차원의 PKO 협력 구조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는 APSC의 제도적·정치적 한계가 평화유지 분야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PKO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ADMM-Plus, APCN, AAPTC 등 다자 협력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¹⁴⁴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아세안의 PKO 전략과 한국과의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PKO 협력의 구조화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44. Catherine Jones, "South East Asian Powers and Contributions to Peacekeeping Operations: UN-ASEAN Partnering for Peace?" *Australian Outlook*,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February 24, 2024, <https://www.internationalaffairs.org.au/australianoutlook/south-east-asian-powers-and-contributions-to-peacekeeping-operations-un-asean-partnering-for-peace/> (검색일: 2025. 4. 6).

IV. 한-아세안 PKO 협력 현황과 전략

아세안은 유엔 PKO를 역내 평화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그리고 다자협력 능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회원국 간 협력은 물론 주요 대화상대국 및 유엔과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실질적 협력 기반을 확장해왔으며, 이러한 접근은 제Ⅲ장에서 살펴본 ADMM-Plus, APCN, AAPTC 등 다층적 협력 구조와 밀접히 연계된다. 한국 역시 유엔 중심의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체제 안에서 외교·안보 정체성을 정립해 왔으며, 이 점에서 아세안과의 PKO 협력은 전략적 상호보완성이 큰 분야로 평가된다.

한국은 유엔 창설 초기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6·25 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유엔 연합군(Greater UN Coalition)’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받은 첫 번째 국가로 기록된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22개국이 참전한 유엔군은 유엔 역사상 최초의 집단안보 작전이자, 사실상 유엔 주도의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작전으로 평가된다.¹⁴⁵ 전쟁 이후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한국이 국제안보 협력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유엔과 다자안보체제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중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한국은 1993년 소말리아에 상륙수부대를 파견하며 유엔 PKO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3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병력공여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이러한 발전 경로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에 실질적 참고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의 사례를 PKO 참여 확대와 국방역량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 공유와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간 PKO 협력은 병력공여국으로서 유사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ADMM-Plus PKO 분과회의, PKO 훈련센터 간 인적 교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 협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무 중심의

145. Jiyul Kim and Sheila Miyoshi Jager, “The ‘Greater’ UN Coalition during the Korean War”, Wilson Center, May 26, 2020,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greater-un-coalition-during-korean-war> (검색일: 2025. 3. 25).

연합훈련과 교육 협력은 단순 교류를 넘어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 강화와 제도적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협력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아세안 PKO 협력의 전략적 배경과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주요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그 성과와 시사점을 분석한다. 나아가 향후 협력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고 구조화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협력 기반과 추진체계

1) 협력의 전략적 배경과 정책 방향

한-아세안 국방협력은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정책의 진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구조화되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발표하며 아세안을 외교·경제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했고, 2021년에는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통해 11개 과제 중심의 국방협력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당시에는 방산 협력과 비전통 안보 분야에 국한된 제한적 협력 성격이 강했으며, 경제·문화 중심의 기존 협력 구조를 보완하는 차원에 머물렀다.¹⁴⁶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2022)」¹⁴⁷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2023)」을 통해 아세안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재정의하였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계획」에서는 국방·안보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확대를 명시하였고,¹⁴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아세안 중심성 존중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였다.¹⁴⁹ 이는 ADMM-Plus, ARF, EAS 등 아세안 주도의 다자안보 메커니즘을 통해 규범 기반의 전략적 신뢰 구축을 지향하는 한국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146. 최원기, 「신남방정책 4년의 평가: 외교적 성과와 향후 과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34 (2021), pp. 12-13.

147. 외교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서울: 외교부, 2022), pp. 6-8, 22-24.

148.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분야 이행계획」 (서울: 국방부, 2022).

149. 외교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서울: 외교부, 2023), pp. 1-3.

2024년 10월, 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개최된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는 CSP에 부합하는 국방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PKO 협력을 포함한 국방협력의 범위와 수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⁵⁰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전략적 배경과 정책적 흐름은 아래 [표 7]과 같이 시기별 주요 정부 전략과 정책 발표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7] 한-아세안 국방협력 관련 국가 전략 및 정책 발표 현황

연번	시기	주요 내용
1	2017. 11월	· 신남방정책 및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
2	2021. 11월	·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국방협력 이행계획 (11개 과제)
3	2022. 7월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4	2022. 9월	· 「2022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국방협력 이행계획 발표 (12개 과제)
5	2022. 12월	·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6	2022. 12월	·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부 이행계획」
7	2023. 4월	·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	2023. 6월	·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9	2024. 10월	· 한-아세안 관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10	2024. 11월	·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국방협력 확대

출처: 정부 공식 발표 및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2) 국방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협력 구조

아세안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과 ‘아세안+1’ 형식의 국방 다자회의를 정례적으로 개

150. 국방부, 2024.

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8년 아세안에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한 이후 2021년 11월 비공식 회의를 화상으로 처음 개최하였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 국방협력에 있어 제도적 협의 채널을 공식화한 첫 사례로, 이후 PKO,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⁵¹

이 회의에서 한국은 신남방정책과 AOIP 원칙을 반영한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2021)」을 발표하였으며, [표 8]과 같이 총 11개 과제를 중심으로 ADMM-Plus 분과회의와 연계를 고려한 협력을 제시하였다. 이 중 PKO 협력은 핵심 과제로 포함되어 실제 협력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¹⁵²

[표 8]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2021)

추진 방향	세부 과제
사람(3)	① 인적자원개발, ② 군 의료 역량 강화, ③ 국방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상생·번영(3)	④ 인도적 지원·재난대응 체계 구축, ⑤ 지뢰·불발탄 제거 능력 향상, ⑥ 방산·군수·기술협력 연계 추진
평화(5)	⑦ 해양협력 확대, ⑧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⑨ 증진, ⑩ 대테러 역량 강화, ⑪ 화생방 분야 협력 모색

출처: 국방부 국방정책실.

이후 2022년 9월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개최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에서는 이 계획을 최신화하여, 디지털 전환, 여군역량 강화, HADR 등의 과제가 추가된 12개 과제로 확장 제시하였다.¹⁵³ 이는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중장기적 비전과 실질 협력 확대 의지를 반영한 정책 진전으로 평가된다.

151.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2024, p. 63.

152. 국방부,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최초 개최 - 한-아세안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 발표」,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21. 11. 10).

153. 국방부, 「국방부 차관, 2022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22. 9. 6).

[표 9]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2022)

추진 방향	세부 과제
자유(3)	① 인적 교류 활성화, ② 국방기관 간 다층적 협력 기반 마련, ③ 해양법 협력 강화
평화(5)	④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⑤ PKO 협력 증진 , ⑥ 해양안보 역량 강화, ⑦ 對테러 역량 강화, ⑧ 화생방 분야 협력 모색
번영(4)	⑨ 군 의료 역량 강화, ⑩ 인도적 지원·재난 대응 체계 구축, ⑪ 지뢰·불발탄 제거 능력 향상, ⑫ 방산·군수·기술협력을 통한 역량발전 지원

출처: 국방부 국방정책실.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포괄적 대아세안 전략을 공식화하였다. 이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3대 비전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 지지’, ‘아세안과 포괄적 안보 협력 강화’, ‘유엔 PKO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¹⁵⁴

이러한 전략의 실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에서는 ‘유엔의 국제질서 수호 역할 지지’를 핵심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 이행계획에서는 유엔 PKO에 대한 실질적 기여 확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여 공약의 이행과 더불어, 병력공여의 지속, PKO 훈련 및 장비 지원,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¹⁵⁵

아울러, 미국, 호주, 일본, 아세안 등과의 연합훈련 확대와 함께 ADMM-Plus, 아태지역 PKO 정책협의체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PKO 과제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아세안과 PKO 협력을 구조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정책 이행과제로 기능하고 있다.

154. 외교부, 2022.

155. 국방부, 2022.

[표 10]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계획에 반영된 PKO 과제

구분	세부 과제
정 부 이행계획 (총괄)	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1.4. 유엔(UN)의 국제질서 수호 역할 지지 ·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및 증진에 기여 · 유엔총회 및 관련 회의 적극 참여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및 기여 공약 이행
국방부 이행계획	① 포괄안보 협력 확대 · (평화유지활동) 국제무대에서 신장된 국방분야의 영향력과 우리 군의 발전된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 역내 평화유지활동 선도 -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에서 제시한 5대 공약 이행 - 부대단위 파병 지속(동명·한빛부대) - 미국·아세안 등과 PKO 연합훈련 및 인적 교류 확대 - ADMM-Plus PKO 분과, 아태지역 PKO 정책협의체 등 다자협의체 참여를 통한 사례 공유

출처: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계획」(2022); 국방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분야 이행계획」(2022) 를 참고하여 재구성.

이 전략은 [표 11]과 같이 2024년 12월에 발간된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 2024년 이행보고서」에서 실제적인 성과로 명시되어 있다. 유엔 임무단에 파견 중인 동명·한빛부대의 파병 연장,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공약 이행, 그리고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재정·훈련 지원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PKO 기여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¹⁵⁶

2023년 4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은 아세안을 한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지역 내 ‘자유, 평화, 번영’의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대아세안 전략이다. 본 구상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8개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한-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 중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와 ‘전략적 공조 활성화’ 과제는 국방협

156.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4년 이행보고서」 (서울: 대한민국 정부, 2024), pp. 12, 48.

력을 핵심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¹⁵⁷

[표 11]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계획 내 PKO 이행성과(2024)

1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	
UN 국제질서 수호 역할 지지	· 2024-25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및 증진에 기여 · 유엔 PKO 파견 연장 추진 및 對PKO 기여 확대 · 유엔총회 참석 등 다자 논의 리더십 제고 및 유엔과 협력 강화 · 책임 있는 PKO 공약 이행 및 5대 공약 지속 추진

출처: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4년 이행보고서」(2024).

특히 KASI는 ADMM-Plus PKO 분과회의,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의 정례화, 국방차관회의 및 국방정책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방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추진 중인 한-아세안 국방협력계획(총 12개 과제)의 지속적 이행과 실질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PKO, HADR,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 등 국방·안보 전반에 걸친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⁵⁸

다음 [표 12]는 KASI가 제시한 8대 중점 추진 과제와 국방·안보 협력 관련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은 이러한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세부 협력과제가 도출되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으며, 2024년 CSP 격상은 국방협력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157. 외교부, 2023.

158. 최인아·장한별,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과 대아세안 협력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23-10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pp. 1-7.

[표 12] KASI의 8개 중점 추진 과제

인태전략 비전	추진 과제
자유	□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아세안 회원국과 관계 강화 □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 내 한-아세안 협력 제고
평화	□ 한-아세안 포괄안보 협력 확대 □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번영	□ 한-아세안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한 미래 분야 협력 확대 □ 지역·국제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 미래 번영을 이끄는 차세대 교류 증진 □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등 각종 협력 자원 확충



[평화] 한-아세안 전략적 공조 활성화

- 역내 정세 관련 전략적 관점 공유를 위한 한-아세안 국방당국 협의 확대
 -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추진
 - 서울 안보대화(SDD) 계기 한-아세안 국방차관 회의 연례 개최
 - 한-아세안 국방포럼 정례화 추진 및 이를 통한 한-아세안 국방협력 의제 발굴
- 한-아세안 국방협력계획 이행 및 ADMM-Plus 매커니즘 내 협력 참여를 통한 한-아세안 국방협력 확대
 - ADMM-Plus 7개 분과회의 활동 기여 확대
 - 한-아세안 국방협력계획(12개 과제) 이행

출처: 외교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3)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격상과 PKO 협력

2024년 10월, 한-아세안 관계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해당 성명은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3 정상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PMC+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아세안 주도 다자 협의체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 대화·외교·네트워킹을 확대한다”고 명

시하였다.¹⁵⁹ 이러한 CSP 격상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국방·안보 분야 협력의 실질적 심화와 정책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PKO 협력을 전략적 협력과제로 정착시키는 촉매로 작용하였다.

이어 2024년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DMM-Plus 계기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 국방부는 CSP 격상에 따른 국방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해양안보, △방산협력, △PKO가 3대 우선협력 분야로 제시되었으며,¹⁶⁰ 특히 PKO는 지속적인 국방협력 과제로 공식화되었다. 이는 기존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PKO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려는 양측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아세안 간 PKO 협력은 과거에도 제도화된 문서에 명시된 바 있다. [표 13]과 같이 「2016-2020 한-아세안 행동계획(PoA)」에서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유엔 평화유지 및 분쟁 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이 아세안의 평화유지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을 보여준다.¹⁶¹

[표 13] 2016-2020 PoA에 명시된 PKO 협력 사항

한-아세안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6-2020)
1. 정치 및 안보 협력 1.2 안보 협력 1.2.7 아세안 회원국들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및 분쟁 이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출처: ASEAM Main Portal.

그러나 2021-2025 PoA에서는 해당 PKO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한-아세안 간 PKO

15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아세안 35년…‘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새로운 미래 역사 함께 써나갈 것」 (2024. 10. 10),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914323> (검색일: 2025. 3. 26).

160. 국방부, 2024.

161. ASEAN Secretariat, *ASEAN-Republic of Korea Plan of Action (2016-2020)* (Jakarta: ASEAN, 2016), p. 2.

협력의 정책적 명시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바 있다.¹⁶²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인적 교류를 통한 교류제한과 보건·재난 대응이 안보 의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등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P 격상과 함께 PKO는 다시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핵심 의제로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이후 채택될 예정인 「2026-2030 한-아세안 행동계획」¹⁶³에는 PKO 관련 협력 조항이 재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책 연속성과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PKO 협력은 ADMM-Plus PKO 분과회의, AAPTC, 회원국 간 협력, 유엔 기여공약 이행 등 다양한 다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인적 교류, 다자 훈련, 여군 역량 강화, TPP 등 주요 과제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구조화를 촉진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한국의 PKO 참여 현황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3년 소말리아에 상륙수부대를 파병하며 유엔 PKO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공병부대, 의료지원단 등 지원부대(enabling units)¹⁶⁴ 중심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부 임무단에 참모 및 군 옵서버를 개인 단위로 파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1999년 동티모르에 파견된 상륙수부대는 한국군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 사례로, 이는 유엔 PKO 참여의 전환점이 되었다.

2025년 5월 기준, 한국은 2개 부대(동명·한빛)를 비롯해 개인 단위 참모·옵서버를 UNTSO(이스라엘), UNMOGIP(인도·파키스탄), UNDOF(골란고원), MINURSO(서사

162. ASEAN Secretariat, *ASEAN-Republic of Korea Plan of Action (2021-2025)* (Jakarta: ASEAN, 2021).

163. 이재현, 2024, pp. 102-103.

164. 유엔 소유 자산 또는 병력공여국이 제공하는 군 지원 부대들을 포함하며, 평화유지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공병, 수송, 항공, 의료, 통신, 이동통제, 보급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Generic Guidelines for Troop Contributing Countries Deploying Military Units to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Missions*, Force Generation Service, 2008, p. 5.

하라), UNIFIL(레바논), UNMISS(남수단) 등 총 6개 임무단에 파견하고 있다.¹⁶⁵ 부대단 위 파병 현황은 다음 [표 14]에 정리되어 있다.

[표 14] 한국의 부대단위 유엔 PKO 참여 현황('24. 12월 기준)

기간	부대	연인원(명)	기간	부대	연인원(명)
'93. 7.~ '94. 3.	소말리아 상륙수 부대	516	'07. 7.~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9,519
'94. 8.~ '06. 5.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542	'10. 2.~ '12. 12	아이티 단비부대	1,425
'95. 10.~ '96. 12.	앙골라 공병부대	600	'13. 3.~ 현재	남수단 한빛부대	5,034
'99. 10.~ '03. 10.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3,283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한국군 해외파견 약사(1991년 이후)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0901030000 (검색일: 2025. 3. 26.).

한국군은 PKO 임무단에서 감시·정찰, 주보급(MSR)¹⁶⁶로 건설 및 유지·보수, 의료 지원, CIMIC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비 운용 능력, 군기 유지, 공병·의무 분야 전문성 측면에서 유엔과 타 병력공여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 평화유지요원 파견, 기여공약 이행 등 포용성과 민감성에 기반한 활동에서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신뢰 제고와 중견국으로서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한국은 병력공여 29위, 재정기여는 9위로 병력과 재정을 아우르는 복합 기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단지 유엔 내 한국군의 기여에 그치지 않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에서도 구체적인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은 UNIFIL(레바논), UNMISS(남수단), UNMOGIP(인도·파키스탄), MINURSO(서사하라) 등 4개 임무단에서 아세안 회원

165. 국방부,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 <https://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010901040000> (검색일: 2025. 3. 26.).

166. Main Support Route.

국들과 함께 병력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통해 교훈을 축적해오고 있다. 특히 수탁생 교육, 여군 역량 강화 및 TPP 등 유엔 기여공약 이행 등 한국이 지원해온 아세안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일부 회원국의 PKO 인력이 실제 임무단 파견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아세안의 PKO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협력은 향후 한-아세안 PKO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PKO는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정치 여건과 여론에 따라 파병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며, 전략적 목표 설정과 외교·안보 전략과의 연계성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예산 및 법률 기반의 미비,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체계의 미흡, 민군 통합 접근의 한계, 사후 평가체계의 부재 등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요소로 꼽힌다.¹⁶⁷ 향후 한국이 아세안과의 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기반 정비, 정책 연속성 확보, 그리고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3. 한-아세안 PKO 협력 현황과 주요 사례

한-아세안 간 PKO 협력은 ADMM-Plus PKO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 협력, 한국 국제평화활동센터를 통한 교육 및 인적 교류,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여공약 이행 등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다층적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아세안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국방협력의 전략적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대면 협력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계기로 협력 체계가 구조적으로 재정립되었고, 이후 기여공약 기반의 실질적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한-아세안 PKO 협력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강국 실현”을 위해서도 아세안과의 PKO 협력은 향후에도 확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167. 이흥주,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1991-2016)」(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10. 30).

1) ADMM-Plus PKO 분과회의(EWG)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과 주요 대화상대국 간 PKO 협력은 ADMM-Plus 체제 내 PKO 분과회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회의는 회원국 간 실질 협력을 위한 주요 다자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각 주기의 의장국은 PKO 관련 현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초빙 워크숍, 회원국별 활동 현황 브리핑,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교류와 정책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이 구조는 AAPTC와 연계되어 지역 중심의 훈련 및 정책 협력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국방부 국제정책관실의 국제협력과(舊 국제평화협력과)와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를 중심으로 해당 분과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행된 제2차 주기에 한국은 캄보디아와 함께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였다.¹⁶⁸ 이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세안과의 다자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라는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8] ADMM-Plus PKO 분과회의(2015 & 2023) 활동



출처: ADMM 홈페이지 <https://admm.asean.org/index.php/2012-12-05-19-08-54/admm-plus/admm-plus/admm-plus-ewg-on-pko/admm-plus-ewg-on-pko-workshop-on-sustainable-and-practical-cooperation-seoul-24-26-september-2014.html> (左) / 육군본부 공병실 분과회의 참가 결과 보고 (개인소장) (右)

최근에는 제4차 주기(2021년 1월~2023년 12월) 동안 국방부 국제협력과를 중심으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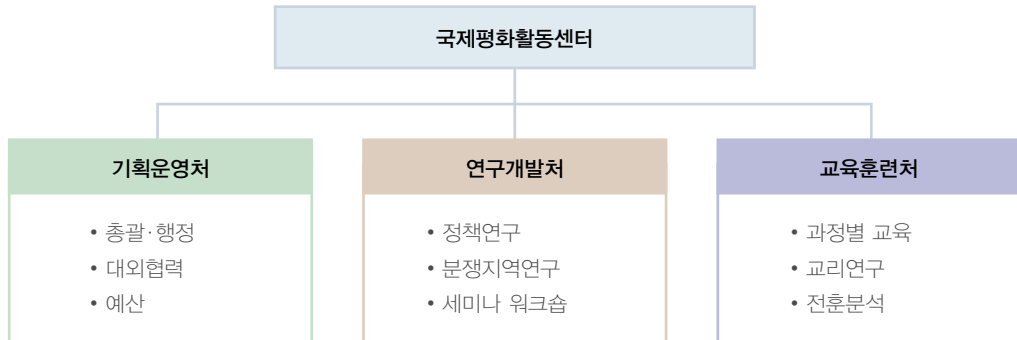
168. 국방부, 「PKO 협력 국제회의 개최」,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14. 9. 23).

제평화활동센터, 육군본부 공병실, 국군의무학교¹⁶⁹가 협력하여 정례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기 마지막 연도(2023년)에는 야외훈련(CEPPP)에 참여하였다. 야외훈련에는 PKO 참여 경험을 보유한 공병 및 의무 교관이 파견되어, 유엔 공병중장비(HEE) 운용 및 전술적 전투 사상자 처치(TCCC)에 대한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하였다.¹⁷⁰ 이는 한국이 PKO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적용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서,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참가국들의 훈련 역량 강화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2) PKO 센터 간 인적 교류

한국 국제평화활동센터는 2015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동참모대학교 소속이었던 PKO 센터가 국방대학교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현재의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센터는 국내 유일의 PKO 전문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기획운영처, 연구개발처, 교육훈련처 편성되어 있다. 센터는 한국의 모든 해외파병 장병을 대상으로 파병 전 교육, 파병 복귀 후 성과·교훈집 작성, 관련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¹⁷¹

[그림 9] 국제평화활동센터의 편성 및 주요업무



출처: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홈페이지 https://www.kndu.ac.kr/pko/ibuilder.do?menu_idx=101

169. 맹수열, “국군의무학교, 군 최초 TCCC 전문교육센터 지정”, 『국방일보』, 2021. 3. 25,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326/5/ATCE_CTGR_0010010000/view.do (검색일: 2025. 3. 27).

170. ADMM-Plus PKO EWG, “Competency Evaluation Program for Prospective UN Peacekeepers (CEPPP)” (베트남: 베트남 국방부 및 일본 방위성, 2023).

171. 국제평화활동센터, <https://www.kndu.ac.kr/pko/index.do> (검색일: 2025. 3. 27).

센터는 유엔 통합훈련처(ITS), 유엔 회원국 PKO 센터, 국내외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 수준의 교육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13년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사무국(DPKO)으로부터 유엔 참모장교 과정(UNSOC)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적 PKO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이외에도 연례 ‘PKO 발전 세미나’ 개최, 「PKO 저널」 발간 등 정책연구기관의 기능도 병행하고 있다.¹⁷²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한국군의 파병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 교육을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16년부터 아세안 회원국과 인적 교류가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부터 아세안 회원국의 장교를 대상으로 수탁교육이 시작되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회원국의 교관을 초빙하거나 한국 측 교관을 파견하는 교환 교관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상호 이해 증진과 신뢰 형성, 그리고 제도화된 협력 기반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10] 국제평화활동센터 PKO 교육 수탁생(左)과 교환 교관(右)



출처: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개인소장).

외국 수탁생 및 교환 교관 프로그램은 [표 15]와 같이 2016년 이래 지속 운영 중이며, 아세안 회원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한국이 아세안 역량 강화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72.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2).

[표 15] 국제평화활동센터 외국인 수탁생 및 교환 교관 현황

단위: 명 / *청색: 아세안 회원국

구 분	수탁생	교관	
		초빙	파견
2016년	베트남(2)	핀란드(1) 스웨덴(1)	-
2017년	캄보디아(2), 베트남(2)	말레이시아(1), 필리핀(1), 태국(1)	-
2018년	캄보디아(2), 베트남(2), 영국(2)	방글라데시(2), 인도네시아(1), 태국(1), 핀란드(1), 스웨덴(1)	태국(1), 일본(1)
2019년	캄보디아(2), 베트남(2), 영국(1)	호주(2), 말레이시아(1), 핀란드(2), 태국(1)	호주(2), 일본(1), 프랑스(2)
2022년	호주(1), 캄보디아(2), 베트남(2), 영국(1)	호주(1), 인도(1), 태국(1), 파키스탄(1)	-
2023년	캄보디아(3), 베트남(1), 영국(2)	파키스탄(1)	파키스탄(2)
2024년	캄보디아(1), 베트남(1)	-	태국(1)
2025년	베트남(1), 파키스탄(1)	파키스탄(1), 베트남(1)	-

출처: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3)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여공약 이행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eacekeeping Ministerial)는 2015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공동 주최한 「평화유지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Peacekeeping)」를 계기로 출범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임무 중 하나인 PKO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본 회의는 각국의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고 구체적인 기여공약을 장려하여, 유엔 PKO 임무의 효과성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¹⁷³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표 16]과 같이 2016년 이후 홀수 연도에 개최되며, 각 회의마다

173. Matthew C. Weed and Luisa Blanchfield, "2015 Leaders' Summit on U.N. Peacekeep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ctober 5, 2015, <https://sgp.fas.org/crs/row/IN10370.pdf> (검색일: 2025. 3. 27).

PKO 현안을 반영한 핵심 이니셔티브들이 제시되고 있다.

[표 16]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연도별 주요 내용

연도	구분	주요 내용
2016	제1차 런던 (영국)	• 평화유지 공약 이행 촉진과 신규 공약 발굴 • 회의 형식의 제도화 및 상설화
2017	제2차 밴쿠버 (캐나다)	• 「밴쿠버 원칙(Vancouver Principles) 발표 * 소년병 금지, 54개국 지지 서명 • 「엘시 이니셔티브(Elsie Initiative)」 발표 *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참여 확대
2019	제3차 뉴욕 (미국)	• ‘국방장관회의’에서 ‘장관회의(Ministerial)’로 확대 • 평화유지군 역량, 성과, 보호 강화 논의
2021	제4차 서울 (한국)	• A4P+ 이행을 위한 4대 주제별 논의 및 공약 발표 * 한국, 6대 기여공약 발표 •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선언 * 기술 및 의료역량 강화 중점
2023	제5차 아크라 (가나)	• 민간인 보호, 전략적 소통, 여성 참여, 성과 책임성 등 논의 * 민간인 안전과 유엔 임무단의 책임과 투명성 강조
2025	제6차 베를린 (독일)	• 디지털 전환, 기후안보, 지역주도 협력 등 신형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과 PKO 혁신 전략 • ‘미래 평화유지모델’ 보고서 공개: 모듈형·정치중심·사람중심 접근 제시

출처: UN Peacekeeping Ministerials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https://peacekeeping.un.org/en/un-peacekeeping-ministerials> (검색일: 2025. 5. 19).

이와 같이 각 회의는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국제 파트너십 기반의 기여공약을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현실적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복합적 안보환경 속 유엔 PKO 임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파트너십 기반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① 스마트캠프 시범 사업, ② 의무지원팀 파견(남수단), ③ 공병·지뢰 제거 훈련 지원, ④ 헬기 공여(16대), ⑤ 여성 장교 교육과정 주관, ⑥ 경찰 요원 추가 파견 등 총 6대 기여공약과 함께 PKO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¹⁷⁴ 이 중

아세안과 협력 사례로는 △ 캄보디아와의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TPP), △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1)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TPP)

유엔 TPP는 2015년 유엔 평화활동 사무국(DPO)이 병력공여국, 특히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의 평화유지 역량 강화를 위해 출범시킨 다자협력 프로그램이다.¹⁷⁵ 본 프로그램은 유엔, 병력공여국, 공여국 간 삼각 구조를 기반으로, 공병, 의료, 통신(C4ISR 포함) 등 핵심 분야의 기술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잡한 임무 환경에서 유엔 PKO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TPP는 유엔의 평화유지구상(A4P 및 A4P+) 이행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병력공여국의 현장 맞춤형 역량 제고를 위해 ‘교관 훈련(ToT)’과 함께 지역 내 훈련 인프라 및 훈련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다.

[그림 11]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TPP)



출처: 유엔 작전지원국(DOS) 홈페이지, <https://operationalsupport.un.org/en/triangular-partnership-programme-tpp>

이 프로그램은 한국, 일본, 호주, 스위스 등의 재정 및 장비 공여와 더불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훈련 주최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 훈련체계 구축을 확대하

174. 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실질적 기여 결집,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결과」, 보도자료 (서울: 외교부, 2021. 12. 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53> (검색일: 2025. 3. 27).

175. United Nations Peacekeeping,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United Nations, <https://peacekeeping.un.org/en/triangular-partnership-programme> (검색일: 2025. 3. 27).

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가장 먼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¹⁷⁶

2022년 11월, 한국과 캄보디아는 PKO MOU 및 공병장비 양도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한국 육군의 공병 교관이 캄보디아 훈련센터에 파견되어 공여된 공병 중장비(HEE)를 활용한 주보급로(MSR) 개설 과제 훈련을 4주간 실시하였다.¹⁷⁷ 2024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2차 훈련에서는 기존 훈련 과목 외에 △위험성 폭발물 식별훈련(EHAT), △현장의무지원(FMAC), △PKO 파병부대 방역 조치 등 총 4개 훈련 과목으로 확대되었다. 훈련 대상도 기존의 캄보디아 공병부대에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병력공여국으로 확대하였으며, ADMM-Plus 회원국인 호주, 일본, 그리고 유엔 지뢰대응 활동기구(UNMAS) 소속의 교관들이 참여하였다.¹⁷⁸

[그림 12] 한-캄보디아 유엔 삼각협력 프로그램(TPP)



출처: 국방일보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31205/3/ATCE_CTGR_0010010000/view.do (左)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1223/1/ATCE_CTGR_0010010000/view.do (右)

이러한 다자협력 기반 훈련은 병력공여국의 역량 강화 차원을 넘어, 유엔이 제시한 4대 핵심 가치(Inclusion, Integrity, Humility, Humanity)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176. United Nations,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Factsheet* (New York: Department of Operational Support, 2024), p. 1.

177. 조아미, “한·유엔·캄보디아 ‘삼각협력’ 공병훈련 실시”, 『국방일보』, 2023. 12. 4,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31205/3/ATCE_CTGR_0010010000/view.do (검색일: 2025. 3. 27).

178. 조아미, “캄보디아서 열린 유엔 삼각협력 공병훈련 성공적 마무리”, 『국방일보』, 2024. 12. 22,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1223/1/ATCE_CTGR_0010010000/view.do (검색일: 2025. 3. 27).

의의를 가진다.¹⁷⁹ 첫째,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 인원들이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구조는 “포용성(Inclusion)”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례로, 상호 존중과 문화 간 이해 증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교관과 교육생 모두가 윤리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훈련을 수행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태도는 “청렴성(Integrity)”의 실천으로 연결된다. 셋째, 훈련 중 피드백을 수용하고 현지 여건에 맞게 과정을 조정하는 모습은 “겸손함(Humility)”의 가치에 부합하며, 넷째, 평화유지군의 궁극적 사명인 “인류애(Humanity)”, 즉 민간인의 안전과 존엄 보호를 위한 실질적 준비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다.

(2)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여성 평화유지요원은 유엔 PKO의 효과성과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들은 남성 요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내 사적 공간에서 여성, 아동, 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인권 보호, 정보 수집, 지역사회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여성과 소녀들에게는 공감과 연대의 상징이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롤모델로 기능하며, 임무단 내 성평등 실현과 평화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유엔은 여성 평화유지요원의 의미 있는 참여가 여성을 대표하는 차원을 넘어, 임무 수행의 효과성, 합법성, 책임성을 제고하는 필수 요소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¹⁸⁰

이러한 인식하에, 유엔은 2018년 「평화유지구상(A4P)」과 이를 보완한 「A4P 이행전략(A4P+)」을 통해 성평등과 여성의 참여 확대를 PKO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은 그 실행 전략으로 「Uniformed Gender Parity Strategy(UGPS)」을 수립하여, 군, 경찰, 교정 및 사법 분야 등 평화유지현장에 파견되는 유니폼 인력 전반에 걸쳐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⁸¹ 이 전략은 여성 유니폼 인력이 유엔 평화임무단의 다양한 직책에 공정하게 접근

179. United Nations DPO, *CPTM 2025 Lesson 3.1. UN Values and Behaviours*, pp. 8-9. 유엔은 2025년 개정된 CPTM(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을 통해 기존의 핵심 가치 체계를 재정비하여, 포용성(Inclusion), 청렴성(Integrity), 겸손함(Humility), 인류애(Humanity)를 유엔 PKO의 4대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다. 이는 평화유지 임무의 윤리적 기준과 협업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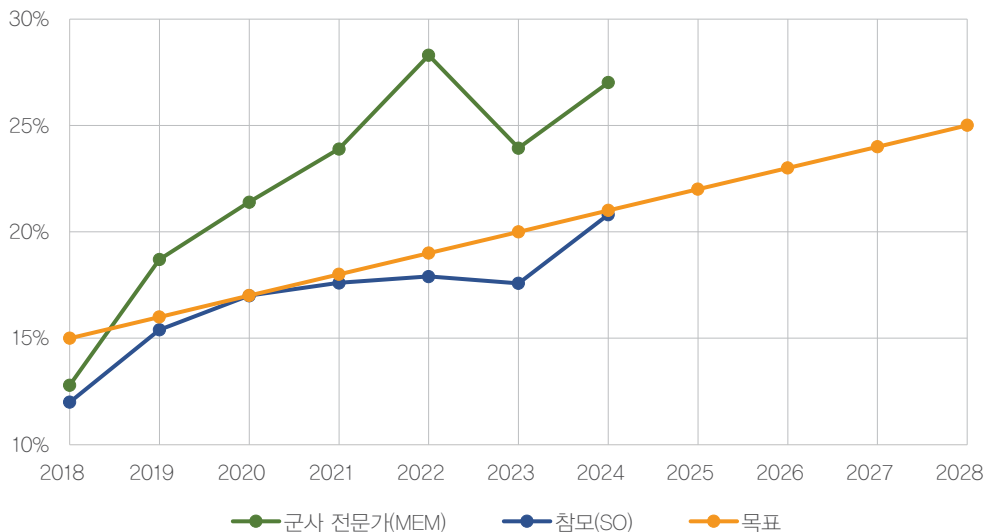
180. United Nations Peacekeeping, “Women Peacekeeping”, <https://peacekeeping.un.org/en/women-peacekeeping> (검색일: 2025. 3. 27).

181.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Uniformed Gender Parity Strategy 2018-2028*, 2019, pp. 2-4.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전 효과성과 현장 다양성을 제고하며,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민간인 보호 등 핵심 임무의 수행에 있어 여성 인력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UGPS는 성인지적 임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과 여성 인력의 채용·배치 확대, 성평등 기반의 리더십 형성, 성인지 훈련 및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유엔은 병력공여국과 협력하여 △여성의 파견 기회 확대, △여성 장교 대상 유엔 교육 참가 기회 보장, △여성 교관 파견, △임무단 내 숙소·위생시설 개선, △여성 유니폼 인력 네트워크 조성 등의 다양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군, 경찰, 교정 등 각 분야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2028년까지 각 분야별 여성 참여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¹⁸² 본 보고서에서는 그중 군 차원의 조치 및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13] 유엔 PKO 여군 참여 비율(군사 전문가 및 참모)



출처: The Elsie Initiative Fund 홈페이지, DPO Gender Parity data, <https://elsiefund.org/dpo-gender-parity-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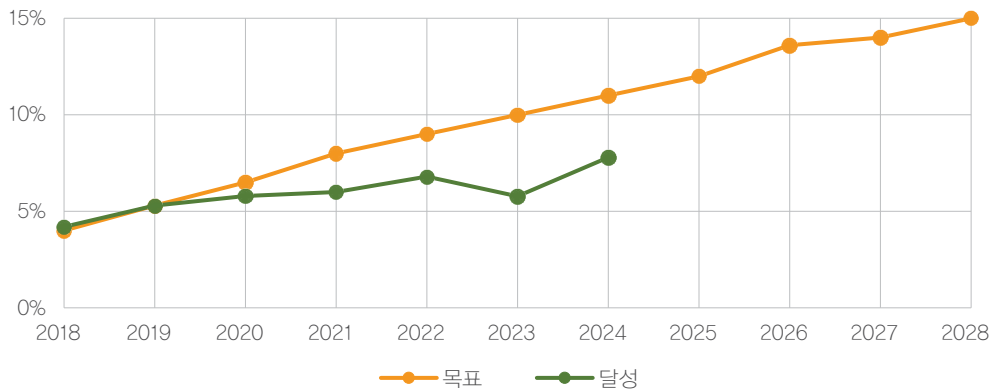
정책 이행의 결과로, 2024년 기준 유엔 군사 전문가(UN Military Experts on Mission,

182. Ibid., pp. 5-7.

UNMEM)¹⁸³와 참모장교(Staff Officers, SO)의 여성 참여율은 [그림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27.01%와 20.81%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 24%로 유엔이 설정한 목표치인 21%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는 병력공여국과 유엔의 지속적인 정책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반면, 같은 해 부대 단위 여군 파견 비율은 [그림 14]와 7.8%로, 목표치인 11%에는 미달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장벽과 문화적 요인, 작전 환경, 숙소 및 위생시설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⁸⁴ 이는 여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포용적 작전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14] 유엔 PKO 여군 참여 비율(부대 단위)



출처: The Elsie Initiative Fund 홈페이지, DPO Gender Parity data, <https://elsiefund.org/dpo-gender-parity-data/>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 과정’의 향후 5년간 정례 개최를 공약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2주 과정의 여군장교과정(FMOC)은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유엔 평화활동 사무국(DPO)의 통합 훈련처(ITS)의 협의를 거쳐 3주 과정의 WMPOC로 개편되었다. 여군 평화작전 역량 강

183.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개별적으로 파견되는 군사 전문가이다. 군 옵서버(UN Military Observers, UNMOs), 군사 연락장교(Military Liaison Officers, MLOs), 군사 고문(Military Advisers, MILADs)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임무지역에 배치되며, 감시, 조정, 중재, 보고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184. Ibid., p. 6.

화 과정(WMPOC)은 유엔 PKO에서 여성의 완전하고(Full), 평등하며(Equal), 의미 있는(Meaningful)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종합 과정이다.¹⁸⁵

2023년에는 국방부,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서울)가 공동으로 WMPOC를 개최하였으며, 1~2주차는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유엔 파병 전 훈련 핵심과목(CPTM) 및 참모 특별훈련과목(STM)을 교육하고, 3주차는 유엔 여성기구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과 ‘여성 유엔평화유지군 포럼’을 실시했다. 이후 2024년에는 대륙 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태국에서 WMPOC가 개최되었고, 한국은 여성 교관을 파견하여 이행을 지원하였다.

[그림 15] 여성 유엔평화유지군 포럼(2023)



출처: 유엔 여성기구(UN Women) Asia and the Pacific, <https://asiapacific.unwomen.org/en/stories/press-release/2023/10/military-officials-and-diplomats-from-around-the-world-gather-in-the-republic-of-korea>

2024년, 한국은 지속적인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 평화활동센터는 호주 평화훈련센터(POTC), UN Women 성평등센터(서울)와 공동으로 UWPT를 개발하여, 유엔 참모장교 과정과 역량 강화 포럼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

185. UN Women Asia and the Pacific, “Military officials and diplomats from around the world gather in the Republic of Korea to support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operations”, September 22, 2023, <https://asiapacific.unwomen.org> (검색일: 2025. 3. 27).

로 이행하였다.¹⁸⁶ 이를 통해 한국은 유엔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병력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16]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 과정(2023~2024)



출처: 유엔 여성기구(UN Women) Asia and the Pacific <https://asiapacific.unwomen.org/en/stories/press-release/2023/10/military-officials-and-diplomats-from-around-the-world-gather-in-the-republic-of-korea>
(左) / 국방대학교 <https://www.kndu.ac.kr/bbs/data/view.do> (右)

[표 17] 유엔 여성평화유지군 역량 강화 과정 교관 및 교육생 현황

구분		참가인원	
		ADMM-Plus 회원국	기타 국가
WMPOC 2023	교관	호주	방글라데시, 독일, 케냐, 몽골, 네팔, 나이지리아, 르완다
	교육생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UWPT 2024	교관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교육생	한국, 호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피지, 몽골, 네팔, 파키스탄,

출처: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186. 국방일보, “[유엔의 날] ‘PKO 파병 현장, 여군 참여 확대 필요’”, 『국방일보』, 2024. 10. 23,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1024/21/ATCE_CTGR_0010010000/view.do (검색일: 2025. 4. 25).

한국이 기여공약으로 제시한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는 [표 17]과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주요 병력공여국으로 참여 중인 아세안 회원국들의 여군 교육생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 간 PKO 협력 기반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WPS와 연계한 여성 평화유지요원 역량 강화 중심의 국방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 MOU 기반 양자협력과 제도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유엔 PKO 양자협력은 MOU를 중심으로 제도화되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베트남(2015), 캄보디아(2022),¹⁸⁷ 인도네시아(2023)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PKO 센터 간 학술교류, 교관 및 수탁생 교류, 장비 공여, 현장 중심 훈련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협력은 인적 교류 차원의 협력을 포함하여 유엔 TPP와 WPS 의제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연계되며 전략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역내 주요국가들과 양자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2023년 호주 POTC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인도 CUNPK와는 이행약정(IA)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들 협력은 평화유지활동 교육훈련 역량의 상호 공유와 연계 기반 조성을 통해 ADMM-Plus 체제 내 다자협력 거버넌스를 실질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엔 PKO의 주요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기구(UN Women),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는 국방부와 국방대학교가 각각 MOU를 체결하여, 유엔 PKO 교육과정의 내실화, 인도적 지원, 성인지적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유엔 기여공약 이행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견 기여국으로서 국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다자 평화협력의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¹⁸⁸

187. 국방부, 「ADMM-Plus 계기 한·캄보디아 국방협력 행사 개최」,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22. 11. 24).

188. UN Women, “Military officials and diplomats from around the world gather in the Republic of Korea to support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operations”, UN Women Asia and the Pacific, September 22, 2023, Military officials and diplomats from around the world gather in the Republic of Korea to support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operations | UN Women - Asia-Pacific (검색일: 2025. 3. 27).

이와 같이 MOU 기반의 양자협력 체계는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ADMM-Plus 회원국 간 협력을 제도화하고, 유엔 및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평화협력이 보다 전문화·국제화된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며, 한-아세안 간 협력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5. 협력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한-아세안 간 PKO 협력은 PKO 센터 간 인적 교류, ADMM-Plus PKO 분과회의 참여,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기여공약 이행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과를 축적해 왔다. 특히 2024년 양측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로 격상되면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의 AOIP 간 전략적 접점이 확대되었고, 이는 PKO 협력의 제도적·물리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진전은 한국이 아세안의 역량 강화 지원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역내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협력 구조의 제도화와 정책 연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중장기 협력 전략의 부재, 정책 이행 의지 부족, 그리고 PKO 및 아세안 협력 분야 전문인력의 부족은 한-아세안 간 PKO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2011년 수립된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에는 PKO 협력이 포함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후속 과제 도출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일부 PKO 협력 사업이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 이행계획에 따른 협력과제로 명확히 연계하기에는 정책적 정합성과 실행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또한 평화, 안보, 해양, 방산 협력을 포괄하는 전략적 계획 아래 ADMM-Plus 활동 확대와 국방협력계획 이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PKO 협력은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과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위 전략과의 연계성 부족, 예산 및 사업 설계 부재 등으로 인해 단기성 행사나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략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아세안 PKO 협력이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정책 연계성과 실행의지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단기 교류사업이

나 일회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은 협력의 전략적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KO 협력을 비롯한 신규 과제들을 전략적 국방협력 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정합성에 기반하여 과제별 단기 및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과제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CSP 격상에 부합하는 국방협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 제 V 장에서는 한-아세안 PKO 협력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V. PKO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국가안보전략」 등 주요 외교·안보 전략을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핵심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 속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중심성을 존중하며 국방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는 주요 협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방협력 과제 중 PKO 협력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민감성이 낮고, 이미 구축된 유엔 체계를 기반으로 협력의 제도화가 용이하며, 실질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분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력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략적 연계성과 실행 체계가 미흡해 정책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아세안 간 PKO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전략-제도-예산-인력-협력 프로그램’ 등 다층적 요소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제의식과 협력 환경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PKO 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핵심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략적 연계와 정책 실행력 강화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협력 여건과 역내 전략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PKO를 포함한 국방협력도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무 이행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국방협력은 단순한 교류사업을 넘어, 병력 운용과 외교 자산의 긴밀한 조율이 요구되는 고차원적 군사외교 영역으로, 상위 전략과 하위 실행계획 간 유기적 연결이 필수적이다. 정책 비전이 불분명하거나, 정책 설계자와 실행 주체 간 공감대가 부족할 경우 협력 사업은 일회성 행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의 “상하동욕자승(上下同欲者勝)”

勝)¹⁸⁹”, 즉 위와 아래가 같은 목표와 의지를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통찰은 한-아세안 국방협력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의 PKO 정책이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국방부 중장기계획 등과 긴밀히 연계되기 위해서는,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현장 실행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전략과 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가 구축될 때, 국방협력은 한-아세안이 포괄안보 협력과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데 기여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진화에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23년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일부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사례는,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미중 간 전략경쟁이 한국 외교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이 캄보디아와 함께 ADMM-Plus PKO 분과회의 공동의장국을 수임하고, 삼각협력 프로그램(TPP)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교적 지지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서 전략적 연속성과 신뢰 확보의 과제를 시사한다.

이재현(2024)은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은 정권 교체에 따른 일관성 결여, 아세안에 대한 국내 사회의 이해 부족과 피상적 접근이 협력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한다.¹⁹⁰ 이는 아세안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신뢰 형성과 내실화를 더욱 중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준다.

결국,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협력사업을 넘어,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내부 역학, 그리고 유엔-아세안-미중 전략경쟁이 교차하는 다층적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각 회원국의 PKO 전략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과 외교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한-아세안 국방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189. 손자, 「손자병법」, 김광수 역, (서울: 책세상, 2020).

190. 이재현, 2024, pp. 77-79.

2. 대상별 맞춤형 협력 전략

그동안 한-아세안 협력은 경제,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어 왔으나, 정치·안보 분야, 특히 국방협력은 상대적으로 협력의 범위와 깊이에 한계가 있었다. 이재현(2024)은 “한-아세안 관계의 가장 큰 구조적 과제는 분야 간 협력의 불균형”이라 지적하며, 국방·안보 분야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¹⁹¹

집합적 차원에서는 ADMM-Plus PKO 분과회의와 APCN을 중심으로 역내 주요국과 다자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반면, 개별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PKO 센터와 군사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파트너국과 양자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안보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PKO 협력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다자와 양자 협력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단편적 사업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전략적 연계성과 정책 일관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상이한 수요를 가진 회원국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거나, 특정 국가에 한정된 단기 지원사업에 치우치는 방식은 협력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

향후 한-아세안 PKO 협력 전략은 아세안 공동체와 개별 회원국 간 협력 구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자협력은 아세안, 유엔, 주요 대화상대국 등을 고려하여 ADMM-Plus, APCN, IAPTC 등 제도화된 정례 협의체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양자협력은 각 회원국의 PKO 센터, 훈련체계, 인적 교류 및 기술협력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Ⅱ·Ⅲ장에서 분석한 아세안 국방협력 체계와 회원국별 유엔 PKO 전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다자 및 양자 협력의 대상을 고려하여 구체적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실현될 때, 한-아세안 PKO 협력은 구조적 정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전략 파트너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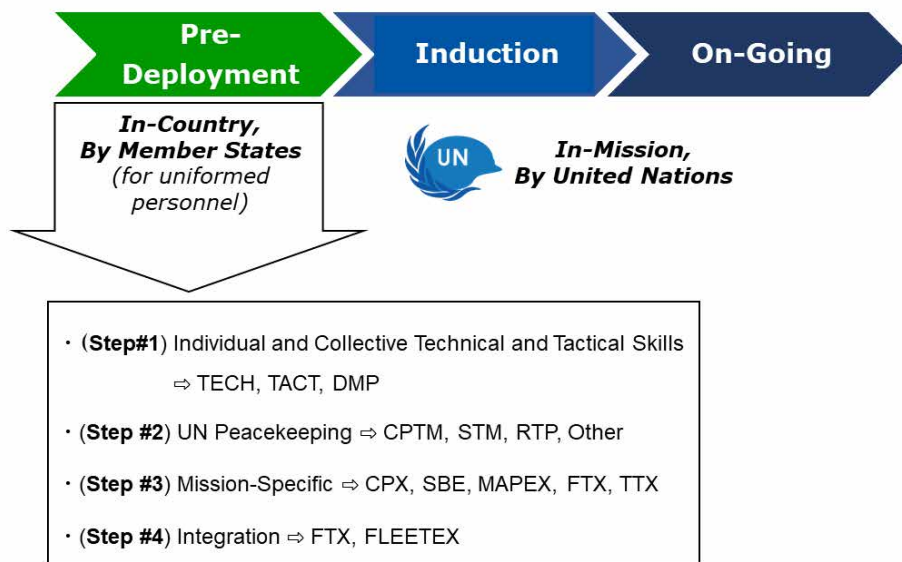
191. Ibid., p. 85.

3. 유엔 PKO 체계에 기반한 전문성 강화

유엔 PKO는 분쟁지역에 병력을 투사하여 위임명령을 수행하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병력공여국의 정치적 의지, 군사역량, 국제적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고도의 외교·안보 절차를 필요로 한다. 특히 아세안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은 파병 전 교육과 훈련 중심의 역량 강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유엔 PKO 구조와 지휘통제(C2) 체계 및 파병 준비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공적인 협력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다.

유엔의 지휘통제 체계는 전략-작전-전술 수준으로 구분되며, 병력공여국은 주로 임무단 현장의 전술 수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파견 병력은 임무단의 작전통제권(OPCON)하에 활동하며, 파견국은 작전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반면, 파병 전 교육은 유엔 회원국, 즉 병력공여국의 책임하에 실시되며, 유엔은 「Operational Readiness Preparation」(2024)을 통해 훈련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7] 유엔 평화유지 교육·훈련 단계



출처: UN DPO, 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2025) 참고하여 작성.

[그림 17]과 같이, 유엔 평화유지 훈련은 기초 전술역량(TECH, TACT, DMP),¹⁹² 공통 교육(CPTM, STM, RTP),¹⁹³ 임무 특화 교육(CONOPs, ROE, DUF, POC, WPS 등),¹⁹⁴ 통합 실전훈련(FTX 등) 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군사역할 역량을 초월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유엔 시스템과 정합성을 적용한 체계적 기반 위에서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보여준다.

한국이 아세안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기반이 요구된다.

첫째, 유엔 PKO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요하다.

브라히미 보고서(Brahimi Report, 2000),¹⁹⁵ HIPPO 보고서(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 2015),¹⁹⁶ 크루즈 보고서(Cruz Report, 2017)¹⁹⁷는 유엔 PKO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대응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 방향을 제시한 핵심 문서로 평가된다. 이들 문서는 전략 기획, 신속 대응체계, 정보역량 강화, 임무통합성, 민간인 보호, 평화유지군의 안전 등 핵심 영역에서 PKO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하였다.¹⁹⁸

192. Technical (TECH), Tactical (TACT), Decision Making Process (DMP)

193. 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CPTM), Specialised Training Materials (STMs), Reinforcement Training Package (RTP)

194. Concept of Operations (CONOPs), Rules of Engagement (ROE), Directives on the Use of Force (DUF), Protection of Civilians (POC), Women, Peace and Security (WPS)

195.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A/55/305-S/2000/809), August 2000. 유엔 평화활동 개혁을 위해 구성된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전략적 계획, 신속한 배치, 정보 수집, 임무 통합성 강화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하였다.

196.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 on Uniting Our Strengths for Peace: Politics, Partnership and People* (A/70/95-S/2015/446), June 2015. 평화유지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적 평가로, 정치적 해결 우선 원칙, 분쟁 대응의 유연성, 지역 파트너십 강화 및 평화활동의 보다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197. United Nations, *Improving Security of United Nations Peacekeepers: We Need to Change the Way We Are Doing Business (Cruz Report)*, December 2017. 고위급 임무안보 개선팀이 작성한 보고서로,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 증가에 대응하여 병력 보호, 정보역량 강화, 보다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유엔 평화유지구상(A4P)」(2018)과 후속 전략인 「A4P+」(2021-2023), 「디지털 전환 전략」(2021),¹⁹⁹ 「평화유지의 미래 구상」(2024) 등으로 구체화되며, PKO의 국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유엔은 창설 80주년을 맞아 'UN 80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직의 민첩성, 책임성,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평화활동 전반의 구조 개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개혁 흐름을 제도화·정비하는 상위 전략적 구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들 전략에 대한 체계적 이해 없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협력 과제 설계와 실행이 어렵다.

둘째, 파병 전 '사전역량 준비 단계(Operational Readiness Preparation)'에 대한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

유엔의 정책에 따라 병력공여국은 PKO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와 국제 기준의 충족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 특히 유엔은 다양한 정책 문서와 현장 경험을 통해 평화유지군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전술기술, 작전계획, 민간인 보호, WPS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체계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임무수행에서 도출된 모범사례와 교훈은 교육과정 설계와 교관 역량 향상, 평가 기준 정립 등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공동 훈련, 교관 교류, 교육과정 공유 등 협력과제를 구체화함으로써 사전역량 준비단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상호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PKO 기여공약 이행, Elsie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통해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 왔으나, 협력의 구조화, 국제 기준 기반 정책 설계, 실무 인력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엔 PKO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이해 부족과 전략적 해석의 미흡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은 유엔 기준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협력 대상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협력과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력공여국의 역할을 넘어 PKO 구조의 설계자이자

198. 폴 D. 윌리엄스 & 알레스 J. 벨라미, 『평화유지의 이해』, 이한솔·이지수·양희용 역, (계룡: 국방 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3), pp. 93-99, 118-122, 318-325.

199. United Nations, *The Future of Peacekeeping, New Models, and Related Capabilities* (New York: United Nations), October 2024.

실행 파트너로서 전략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아세안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PKO 협력을 지속하고 실효성 있게 확대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정책 추진체계와 협력자원 정비

한-아세안 간 협력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사업 단위 접근을 넘어 정책의 기획-조율-이행이 통합된 추진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관 간 역할 정립과 더불어, 인력·예산 기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방부를 포함한 유관 기관들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령」,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표 18]과 같이 파병, 교육, 정책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기능 중복과 부처 간 조율 부족으로 인해 정책이 단편화되고, 전략적 연계성 또한 약화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엔 PKO 관련 다자·양자 협력과 국제기구 대응은 부처 간 연계 없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 성격도 단기적·단발성에 머무르기 쉽다.

[표 18] 해외파견 및 한-아세안 PKO 협력 관련 기관별 업무 분장

구 분		내 용
국 방 부	국방정책실장	·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정책 총괄·조정
	국제정책관	· 국제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해외 PKO 관련 협력 정책 검토
	인도태평양 정책과	·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 다자안보협력 조정, 군사외교
	국제협력과	·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대내외 협조, 다자간 교류협력 지원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 해외파병 교육 및 정책연구, PKO센터 간 교류협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		· 해외파견 전투부대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출처: 「국방부 직제령」, 「직제 시행규칙」,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국방정책실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PKO 협력의 전략적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외교부, 합참,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각 군 본부 등 유관 기관 간 정례 정책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휘·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책-예산-작전 지휘·감독-사후 평가 등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공동 의사결정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내 유일의 해외파병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기여공약 이행을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실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따라서 센터는 한-아세안 PKO 협력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아세안 대상 자문·훈련·교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협력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아세안 중심성 존중 원칙에 부합하는 맞춤형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PKO 등 군사외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순환보직 중심의 인력운영 체계하에서도, 군사외교 및 해외파병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 군사외교·국제협력 분야에 지속 보직되어 전문성 축적과 업무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한국은 30년 이상의 PKO 참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기존 인사제도와 운영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셋째, PKO 협력을 중장기 전략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전략 목표-사업 개발-예산 편성-사업 이행을 연계하는 기본 구조는 마련되어 있으나, 전문 인력 확보 미흡과 정책 집행 주체들의 실행력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 편성과 실행의 연속성이 제약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구조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전문성 기반 인력운영 강화와 함께, 국방·외교 자원을 연계한 공동 예산 편성 및 이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기계획 수립과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략사업으로서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아세안 PKO 협력의 내실화는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할 조직-인력-예산의 통합적 기반 위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5. 단계별 과제와 중장기 협력 전략

한-아세안 간 협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명확히 구분한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국방 중기계획 및 유관 부처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인력·외교 자원의 통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 추진의 지속 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에 따라 과제의 이행 시기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 로드맵은 다음 절에서 제시할 ‘국가 평화활동 전략(National PO Strategy)’과 정합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단기 과제: 제도화 및 현장 중심 협력 기반 강화

현재 진행 중인 △센터 간 인적 교류, △PKO 기여공약(TPP, WPS) 이행 등은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의 12개 과제에 연계하고, 격년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eacekeeping Ministerial)²⁰⁰의 기여공약 목록에 포함시켜 협력의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신뢰도와 정책이행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호주, 인도 등 유사 입장국과 MOU 체결, UNCT 및 ICRC 등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의 확대를 통해 한국은 유엔 임무단의 복합적 작전환경(POC, CRSV, UN-CIMIC 등)을 반영한 훈련 모델을 PKO 센터 및 육군 파병 전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 과정을 개설하여 정책 설계와 현장 역량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의 PKO 교육 역량을 국제적 수준의 교육 PKO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등과 연계하여, AOIP의 4대 우선 분야(해양,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기술협력)에서 PKO와 연계 가

200. 장관회의 개요 및 한국의 기여공약 현황은 본 보고서 제Ⅳ장 제3절 ‘(3)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기여공약 이행’ 참조.

능한 협력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예를 들어, SDGs 17개 목표 중 SDG #4(양질의 교육), #5(성평등), #16(평화와 정의), #17(파트너십)은 PKO 임무단의 인도적 지원, 여성·평화·안보(WPS), 성 착취 및 학대(SEA), 분쟁 관련 성폭력(CRSV), 무장 및 동원해제·사회재통합(DDR), 민군협력(CIMIC) 그리고 정부·민간·군·경 등 평화활동 주요 주체 간 협력 활동 등과 연계할 수 있다.²⁰¹ 이러한 과제들은 공적개발원조(ODA)와도 결합 가능하며, 유엔과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보다 고차원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림 18]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출처: United Nations DEAS 홈페이지, <https://social.desa.un.org/issues/disability/sustainable-development-goals-sdgs-and-disability>

2) 중기 과제: 역내 다자 PKO훈련 참여 및 국방외교 채널 강화

중기 과제로는 ADMM-Plus PKO 및 HADR 분과회의 야외훈련(FTX), 미 인도-태평양

201. 후지이 다케시 외, 『UN선정, 미래 경영의 17가지 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인가?』, 배정희·최동건 역, (서울: 진성북스, 2020), pp. 329-347.

사령부(USINDOPACOM)가 주관하는 몽골 칸 퀘스트(Khaan Quest)²⁰² 및 네팔 산티 프라야스(Shanti Prayas)²⁰³ 등과 같은 다국적 평화유지훈련, 호주가 주관하는 피랍 자비루(Pirap Jabiru) 등 아세안 및 역내 주요국이 주관하는 다국적 PKO 훈련에 대한 정례적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세안 및 CSP 수립 국가들과 연대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

[그림 19] 미 인태사 주관 2024 다국적 평화유지훈련(몽골 Khaan Quest & 네팔 Shanti Prayas)



출처: U.S. Indo-Pacific Command <https://media.defense.gov/2024/Jul/30/2003514897/-1/-1/0/240727-A-JK517-2110.JPG> (左) / <https://media.defense.gov/2024/Mar/04/2003405126/-1/-1/0/240304-M-AS595-1069.JPG> (右)

한국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라 지정된 국제평화지원단과 PKO 센터를 중심으로 역내 PKO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 목표의 불명확성, 통제기관 부재, 가변적인 예산 편성, 참가 부대 및 인원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과 연계되는 성과 도출과 노하우 축적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역내 다양한 PKO 훈련 참여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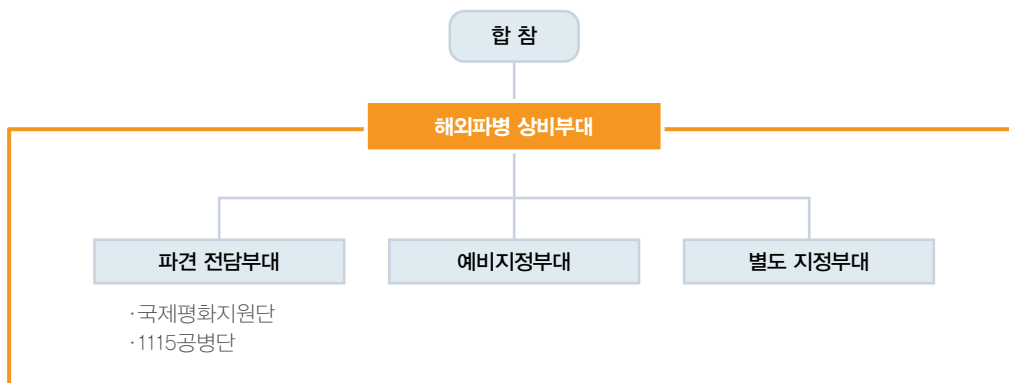
202. 미 인태사와 몽골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다국적 평화유지훈련으로, 매년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Five Hills Training Area'에서 개최된다. 이 훈련은 유엔 평화유지임무를 가정한 지휘소 훈련(CPX)과 실전 중심의 야전 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며, 평화유지 역량 강화, 군 간 상호 운용성 증진, 유엔 평화유지 교리 발전을 목표로 한다. 한국은 매년 특수전사령부와 해병대가 격년 주기로 교대로 참가하고 있다.

203. 미 인태사와 네팔 육군이 공동 주관하는 훈련으로, 유엔 PKO에 참여하는 각국 평화유지요원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 제4차 훈련(Shanti Prayas IV)이 네팔 판치칼(Panchkhal)의 비렌드라 평화작전훈련센터(BPOTC)에서 개최되었으며, 19개국 1,100여 명이 참가하였다. 한국은 개인단위(1~2명)로 참여하고 있다.

책 목표와 연계하여 훈련 통제기관 단일화, 훈련 목표 설정, 참가 부대 및 인원 구성,²⁰⁴ 예산 편성, 현 PKO 병력공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훈련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훈련 참여를 통해 유엔의 PKO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상비부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파병 적응태세를 제고해야 한다. 이는 향후 한국 주도의 PKO 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역내 다자훈련 네트워크에서 중심국가로서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20]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



*공병, 의무, 군사경찰, 무인항공기 소대(해병), 해·공군 수송부대, 헬기부대 등

출처: 국방부, 2022 국방백서.

또한 한국이 아세안과 CSP 수립에 걸맞게 ADMM-Plus PKO 분과회의 공동의장국 수임, AAPTC 개최, GPOI PKOCB TWG 국내 유치 등 다양한 PKO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여 역내 안보협력의 주도적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4. 현 PKO 임무단에 파병되는 부대를 역내 다국적 PKO 훈련에 직접 참가시킴으로써,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 강화와 파병 준비가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칸 퀘스트(Khaan Quest) 훈련에는 특전사와 해병대가 교대로 참가하고 있으나, 해병대는 현재 유엔 PKO에 부대 단위로 파병되지 않고 있으며, 훈련 역시 편조된 부대의 참여로 체계적 노하우 축적에 한계가 있다. 이처럼 파병 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훈련 참여는 전략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훈련 참가 부대는 실제 파병 가능성과 연계한 선별적 운용이 필요하다.

국방외교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주아세안한국대표부(자카르타)에 국방무관²⁰⁵을 파견하여 ADMM-Plus 및 아세안 사무국과의 국방협력 조율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한국의 협력 의지 표명 및 신뢰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6·25 전쟁 참전국인 태국·필리핀과의 PKO 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기념사업 추진은 역사적 연대성과 전략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높은 상징성을 지닌다. 최근 아세안 가입이 승인된 동티모르와는 과거 한국의 PKO 참여 경험을 연계하여 수탁생 교육 지원, 교관 파견, 호주 등 역내 주요국과 연계한 훈련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소다자 기반 공공안보 협력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행력 높은 과제로 판단된다.

3) 장기 과제: 유엔 PKO 시스템에 기반한 전략 다변화

장기적으로는 유엔의 역량협력체계(LCM)²⁰⁶를 활용한 모듈형 연합 파병 구조를 도입하여, 병력 자원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 및 유엔 PKO 기여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LCM은 병력공여국과 훈련, 장비, 재정, 물류 등 지원이 가능한 회원국 간의 훈련·장비·운용 통합형 연합부대 구성을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2024년 도입된 역량협력체계 온라인 운영 시스템(LCMOS)을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 협력 기회 탐색, 글로벌 PKO 훈련 일정 관리가 가능하며, LCM Marketplace를 통해 구체적 훈련, 역량 강화 요청과 제안을 직접 등록 및 조율할 수 있다.²⁰⁷

205. 현재는 주인도네시아 주재 국방무관이 아세안과 국방협력 업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으나, 아세안 사무국 및 ADMM-Plus 관련 협의체와의 실질적 조율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아세안한국대표부(자카르타 소재)에 별도의 국방무관을 파견하여 정책 조율력과 협력 대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아세안 간 국방외교의 상시화 및 평화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206. 유엔 평화활동 사무국(DPO)과 운영지원국(DOS)이 주도하여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파트너십 플랫폼으로, 양자·다자간 훈련·역량 강화 협력, 장비 및 인프라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평화유지요원의 역량 및 안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시스템인 LCMOS를 통해 회원국 간 훈련 일정과 협력 제안이 실시간 공유되며, 한국-아세안 간 연합 파병 모델 구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and Department of Operational Support, *LCMOS: Light Coordination Mechanism - Launch of the Marketplace Presentation* (New York: United Nations, 2023), pp. 3-6.

예를 들어, ‘한국은 장비와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아세안은 병력을 제공’ 또는 ‘한국은 지휘부를 포함한 일부 병력과 장비를 제공하고, 아세안 국가가 주 병력을 구성’하는 등 구성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임무단에 파견할 수 있다. 연합병력 구성 사례는 UNIFIL의 과거 ‘아일랜드-핀란드’, ‘인도-카자흐스탄’과 같은 연합 보병대대처럼 다양한 협력 모델 구축의 참고가 된다.

또한 모듈형 파병구조는 장비 실증훈련과 연계하여 아세안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 유엔 조달시장 진출, 산업 역량 강화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KOTRA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PKO-산업-외교 연계형 전략’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PKO 협력을 산업화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전략과 연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별 실행과제 로드맵은 한국의 PKO가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실행 기반이 되며, 다음 절에서 제시할 ‘국가 PO 전략’과 정합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실천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6. 국가 평화활동(PO)²⁰⁸ 전략 수립 방향

[그림 21] 다국적군(청해부대) 및 국방교류협력(아크부대) 해외파병



출처: 국방일보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0131/7/ATCE_CTGR_0010010000/view.do (左) /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507/5/ATCE_CTGR_0010010000/view.do (右)

208. 평화활동(Peace Operations, PO)은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유엔 Capstone Doctrine 및 미국 합동교범 JP 3-07. 에서 정의하듯, 분쟁예방(Conflict Prevention), 평화조성(Peacemaking),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구축(Peacebuilding) 등을 아우르는 민간·군사·경찰 등 다양한 주체의 포괄적 평화활동이다. PKO는 이 중 평화유지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며, 다른 PO 활동들과 통합적·연계적으로 설계될 때 그 전략적 효과가 극대화된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간 유엔 PKO에 병력 및 재정 기여를 지속해왔지만, 이를 총괄·조정할 국가 평화활동 전략(National Peace Operations Strategy, NPOS)은 아직 명확히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해외파병 시스템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라 유엔 PKO,²⁰⁹ 다국적군(MNF),²¹⁰ 국방교류협력²¹¹ 등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파병 유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파병 목적, 기여 방식, 전략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선택·집중이 부족해, 전체 파병 활동이 병력·예산 중심의 획일적 관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내적으로는 병역 자원 감소, 징병제 기반 약화, 복무기간 단축 등이 병력 운용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UN PKO의 효율성 제고 요구, 글로벌 사우스 부상, 미중 전략경쟁,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가 기존 병력 중심 파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현행 파병 체계의 문제점을 단순 반복해 지적하기보다는 앞으로 PKO를 포함한 해외파병 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 방식, 역할 설정, 전략적 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재설계하고, 상위 전략 개념으로서의 NPOS를 수립해 국가 차원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 국가 평화활동 전략(NPOS): 국가 대전략으로서 기능 수행

국가 평화활동 전략(NPOS)은 유엔 PKO, 다국적군, 국방협력, HADR, 인도적 지원 활동 등 국가의 평화활동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상위 전략 플랫폼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군·외교 주체 간 통합 거버넌스 체계, 파병 전-중-후 순환 연계 관리,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이행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접근을 적용하여 문제와 모순을 전략적 혁신과 창발적 발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20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평화유지임무로, 한국은 동명부대(레바논), 한빛부대(남수단), 유엔 참모 및 군 옵서버 등을 유엔 PKO 임무단에 파견하고 있다.

210. 특정 국가나 지역기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근거로 다국적군(Multi National Forces)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으로, 한국은 청해부대(아덴만) 및 연합해군사(CMF), 미 지역 사령부(CENTCOM, AFRICOM) 등에 참모·협조장교를 파견하고 있다.

211. 당해 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을 수행하며, 대표적으로 아라우부대(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와 現 아크부대(UAE군 특수전 교육훈련) 파견 사례가 있다.

이 전략은 유엔의 평화활동 원칙 및 지침(Capstone Doctrine)에서 제시한 ‘평화·안보 활동 스펙트럼(Peace and Security Spectrum)’²¹²과 미국 합동교범 JP 3-07(「Stability」),²¹³ JP 3-07.3(「Peace Operations」)²¹⁴에서 강조하는 민·군·외교 통합(Comprehensive Approach), 통합된 노력(Unity of Effort), 최종 상태 기반 계획(End-State Planning) 같은 전략 원칙에 기반해, 평화유지 이후 단계인 평화구축(Peacebuilding)까지 전략적 비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Acemoglu와 Robinson(2012)이 강조한 바와 같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착취적(extractive) 권력 구조를 벗어나 포용적(inclusive) 제도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²¹⁵ 따라서 치안 확보나 인도적 지원을 넘어, 분쟁 이후 해당 국가들이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평화구축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병력·재정 공여를 통한 평화유지와 ODA를 결합한 평화구축을 포괄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평화활동의 설계자이자 실행 파트너로서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PKO는 NPOS 안에서 정치적 부담이 낮으면서도 규범 기반 다자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외교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한국은 PKO 파병을 통해 UN-CIMIC, 공병, 의료, WPS, 역량 강화 지원 등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평화활동(PO) 협력 확대·강화 과제로 연계함으로써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민주화·경제발전·평화 기여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NPOS는 앞서 제시된 정책 고려사항들을 상위 전략 개념으로 통합·정리하는 핵심 틀로서, 한국이 한-아세안 PKO 협력을 넘어 국가 평화활동 전반에서 전략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병력 및 재정 공여국을 넘어 지식·역량 공여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12. 분쟁예방(Conflict Prevention), 평화조성(Peacemaking),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구축(Peacebuilding)

213.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lication 3-07: Stability*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2022), pp. I-2, III-4.

214. U.S. Joint Chiefs of Staff, *Joint Publication JP 3-07.3: Peace Operations*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2019), pp. II-3-II-6.

215.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완규 역, (서울: 시공사, 2018).

2) 국방개혁을 반영한 스마트 파병 전략

한국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Seoul Initiative)를 통해 기술 중심 유엔 PKO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감시·정찰 드론, 전술 AI, 통신·전자전, 사이버 방어, 스마트캠프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파병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병력 자원 감소라는 현실을 보완하고, 방위산업·과학기술 외교 연계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는 전략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분쟁지역에서 이러한 기술을 실제 운용·검증할 수 있는 유엔 PKO 현장은 「국방혁신 4.0」이 지향하는 AI 기반 초지능·초연결 강군과 첨단기술 기반 전장 대응 능력을 국제 안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증적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국방개혁은 AI·무인·로봇·스마트 자산 중심의 지능형 전력구조 혁신, 다영역 통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 디지털 기반 지휘통제체계 고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²¹⁶ 이는 스마트 파병 전략을 통해 유엔 및 다자 협력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전시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기반 평화기여 모델은 한국의 혁신 역량과 전략적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군사외교 자원으로서 예비전력의 역할 확대

예비전력은 병역 자원 감소, 복무기간 단축 등 국내 안보 여건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PKO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육군 기본정책서 '24-'40」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예 예비전력 자원 확보, 부대구조 최적화, 예비전력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며, 특히 비전통 위협 및 회색지대 전략²¹⁷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²¹⁸

216. 국방부, 「국방혁신 4.0」 (서울: 국방부, 2023).

217. 회색지대 전략은 전면적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정치·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저강도 압박과 기정사실화 전략을 포괄하는 비선형적 위협 개념으로, 최근 북한과 중국의 활동에서도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18. 육군 정책실, 「육군 기본정책서 '24-'40」 (계룡: 육군본부, 2023. 10. 12), pp. 14-15.

상비군 중심의 해외파병 방식은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가 개편되는 환경에서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전력을 비군사 임무 중심의 전략 운용 자산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²¹⁹

육군은 현재 미국, NATO,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예비전력 협력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²²⁰ 이를 해외파병에도 연계하여 UN-CIMIC, 공병, 의료, 재건지원, WPS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과의 PKO 협력에서도 예비전력을 특화·운용함으로써 맞춤형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행정 기반 정비, 맞춤형 사전훈련, 실전형 교육과정 체계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국방혁신 4.0」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 강군과 결합해 병력 자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새로운 파병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파병 유형별 전략 재설정 및 우선순위 설정

앞서 제시된 전략적 고려사항들을 실행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병 참여 방식이 평화활동 원칙과 한국의 외교·안보 목표, 군의 역량 강화, 국제적 위상 등 국가이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정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택과 집종의 원칙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화활동 원칙과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파병 유형에 대해서는 국가 평화활동 전략(NPOS)에 따른 과감한 조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재설정은 단순히 자원을 나누는 행정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가 보유한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술한 예비전력 활용, 재정·장비 중심 기여, 연합 파병 등 다양한 전략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맞춤형 이행계획, 부대(개인) 편성, 교육훈련, 예산 배분, 외교적 파트너십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파병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괄적 지도·감독 체계를 탈피하고, 제한된 자원과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달성하는 평화활동 전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19. 박종길, “한국 예비군의 해외파병 필요성과 가능성”, 『한국군사학논집』 76권 2호 (2020), pp. 303-340.

220. 육군 정책실, 「육군 기본정책서 '24-40」, p. 43.

VI. 결론

본 보고서는 한-아세안 국방협력 확대의 전략적 해법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을 중심에 두고,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국제적 기여 강화 비전을 연결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ADMM-Plus, AAPT, APCN 등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체계와 한-아세안 양자협력 사례들을 종합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과 단계별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오늘날 한국은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좁은 회랑(Narrow Corridor)’²²¹을 유지하며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단기간에 달성한 모범 국가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중견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영감을 주는 대표적 사례로 인식된다. 최근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경제·문화 분야를 넘어 안보·군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 질서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는 우리의 국력 성장에 걸맞은 필연적인 책무로, 한-아세안 국방협력 강화는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V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 평화활동 전략(NPOS)은 본립도생(本立道生)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에 입각해 한국의 평화활동과 국방외교를 지탱하는 전략적 기둥으로 설계되어 대전략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 전략은 해외파병 전략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엔 PKO 원칙과 정책 방향은 UN 창설 80주년을 계기로 추진 중인 구조 개혁 흐름(UN 80 initiative)과도 정합성을 갖추어야 하며, 아세안과 개별 회원국의 PKO 전략, 그리고 역내 유사 입장국가들의 전략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의 중심(center of gravity, COG)²²²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중심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은 외교·안보·민간을 아우르는 다층적 평화활동 협력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

221.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좁은 회랑」, 장경덕 역, (서울: 시공사, 2020). ‘좁은 회랑’은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가 균형을 이루며 상호 긴장 속에서 자유와 번영이 유지되는 좁은 공간을 의미하며, 이 균형이 깨지면 국가의 과도한 통제나 무정부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한다.

화를 실현할 뿐 아니라, 국제 안보 협력에서 책임 있는 핵심 중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부처 간 협력 체계 재정비,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기존의 문제와 모순을 혁신과 창발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아세안 국방협력은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의 역내·국제 전략 기여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국가 전략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일관되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 평화안보 질서를 설계하고 이행하는 리더로 도약하며, 다자·양자 협력 전반에서 전략 설계자이자 협력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경제·문화·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종합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며, 책임 있는 핵심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222. U.S. Joint Chiefs of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2017), p. 33; Wikipedia, "Center of Gravity(military)", [https://en.wikipedia.org/wiki/Center_of_gravity_\(military\)](https://en.wikipedia.org/wiki/Center_of_gravity_(military)) (검색일: 2025. 4. 3). "군사에서 '중심(COG)'은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전쟁론」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적군의 힘의 중심, 즉 그들이 힘을 발휘하고 의지를 유지하는 결정적 중추로 정의된다. 미합참(Joint Chiefs of Staff)의 공식 정의에서는 '도덕적 또는 물리적 힘, 행동의 자유 또는 행동 의지를 제공하는 힘의 원천(the source of power that provides moral or physical strength, freedom of action, or will to act)'으로 규정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국문)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 _____,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분야 이행계획」 (서울: 국방부, 2022).
- _____, 「국방혁신 4.0」 (서울: 국방부, 2023).
-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완규 역 (서울: 시공사, 2018).
- _____, 제임스 A. 로빈슨, 「좁은 회랑」, 장정덕 역 (서울: 시공사, 2020).
- 대한민국 정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4년 이행보고서」 (서울: 대한민국 정부, 2024).
- 데이비드 샴보, 「강대국이 마주치는 곳」, 이한솔·이지수·양희용 역 (계룡: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3).
- 마티 나탈레가와, 「아세안은 중요한가?」, 최기원 역 (서울: 생각의힘, 2020).
- 손자, 「손자병법」, 김광수 역 (서울: 책세상, 2020).
- 외교부, 「아세안 개황 2024」 (서울: 외교부 아세안협력과, 2024).
- _____, 「ARF의 안보 협력 발전 방향」, 『한국외교연구원 정책보고서』 (서울: 외교부, 2020).
- _____,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서울: 외교부, 2022).
- _____,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서울: 외교부, 2023).
- 육군 정책실, 「육군 기본정책서 '24-'40」 (계룡: 육군본부, 2023).
- 이지용, 「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서울: EPOCH, 2025).
- 이흥주,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1991-2016)」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류제승 역 (서울: 책세상, 1998).
- 폴 D. 윌리엄스, 알렉스 J. 벨라미, 『평화유지의 이해』, 이한솔·이지수·양희용 역, (계룡: 국방 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3).
- 후지이 다케시 외, 『UN 선정, 미래 경영의 17가지 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무엇인가?』, 배정희·최동건 역. 서울: 진성북스, 2020.

2. 논문/저널(국문)

- 강석울, 「트럼프 2.0 시대의 인도-태평양 안보: 대중국 경쟁 승리를 위한 미국의 지역 전략과 리더십 쇠퇴의 도전」, 『KIDA FOCUS』 제22호, 한국국방연구원, 2025.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얀마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아세안의 역할」, 『안보현안분석』 제179호, 2023.
- 김상배,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역할과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50집 제1호, 2010.
- 김영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제약」,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9.
- 박민정, 「트럼프 2.0 시대 동남아의 대응 방향과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2024-44호, 국립외교원, 2025.
- 박변순, 「미중 갈등의 파고를 헤쳐 나가는 아세안의 지혜: 이선진 저, 『중국과 공존하는 아세안의 지혜』(박영사, 2023)를 읽고」, 『아시아리뷰』 제14권 제1호, 2024.
- 박종길, “한국 예비군의 해외파병 필요성과 가능성”, 『한국군사학논집』 제76권 제2호, 2020.
- 배궁찬, 「미·중 경쟁과 ASEAN의 전략적 대응: 남중국해 분쟁을 중심으로」, 『정책연구과제 2015-07』, 국립외교원, 2015.
- 아산정책연구원, 『ASAN 국제정세전망 2025』, 아산정책연구원, 2024.
- 이강규, 「미중의 평화유지활동 접근방식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2024.
- 이숙연, 「안보목표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제도적 전략: ADMM-Plus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24권 제4호, 2021.
- _____,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진전: 역내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9집 제4호, 2021.
- 이재현,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전략」,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2.
- _____, 「트럼프 2.0 시대와 동남아, 아세안」, 『아시아 브리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4.
- _____, 「한-아세안 관계 35년의 회고와 전망」,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2024.
- 이진영 외, 「아세안(ASEAN)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고찰: AOIP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제6권 제3호, 2024.
- 최원기, 「신남방정책 4년의 평가: 외교적 성과와 향후 과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34, 2021.
- _____, 『미중 경쟁과 아세안 중심성 약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주요국제문제분석』 제 2023-40호, 국립외교원, 2023.
- 최원기 외, 「한국의 인태지역 역할 확대 방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기획과제 2024-05』, 국립외교원, 2024.
- 최윤정, 「2024년 아세안 정세 평가와 2025년 전망」, 세종연구소, 2024.
- 최인아·장한별,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과 대아세안 협력 전망」, 『세계경제포커스』 제23-10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3. 단행본(영문)

- Japan Ministry of Defense, Japan's Defense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Tokyo: MOD Japan, 2023.
- Kingdom of Cambodia, National Defence Policy 2022, Phnom Penh: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2022.
- Malaysian Ministry of Defence, Brunei-Malaysia Defence Cooperation Overview, Kuala Lumpur: MINDEF, 2023.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Indonesia, Indonesia's Commitment to UN Peacekeeping: Strategic Contributions and Regional Cooperation, Jakart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2.
-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of Viet Nam, Vietnam National Defence White Paper, Hanoi: MND Viet Nam, 2019.
-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RC, China's Armed Forces: 30 Years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Beijing: 2020.
-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2019.
- U.S. Joint Chiefs of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2017.
- _____, Joint Publication 3-07: Stability, Washington, D.C.: Joint Chiefs of Staff, 2022.

4. 논문/저널(영문)

- Catherine Jones, “South East Asian Powers and Contributions to Peacekeeping Operations: UN-ASEAN Partnering for Peace?” *Australian Outlook*, 2024.
- David Capie, “Evolving Attitudes to Peacekeeping in ASEAN”, in *New Trends in Peacekeeping: In Search for a New Direction*, 2014.
- Kang Kyu Lee, “Differing US and Chinese Approaches to Peacekeeping”,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2024.
- Matthew C. Weed and Luisa Blanchfield, “2015 Leaders’ Summit on U.N. Peacekeep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 Max-Otto Baumann et al., *Trump 2.0 and the United Nations: Implications for Multilateral Funding and Leadership*, 2025.
- Shoji Tomotaka, “Japan’s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East Asian Policy*, 2024.
- Vinod Bhatia, *Indonesia and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From Participation to Leadership*, 2023.
- Vershinina, V. V., Koldunova, E. V., and Kuklin, N. S., “Southeast Asian States’ Approaches to Peacekeeping and Conflict Resolution”, *Vestnik RUDN. International Relations*, 2023.

5. 아세안 및 유엔 문서

- ASEAN Regional Forum, 3rd ARF Peacekeeping Experts’ Meeting Summary Report, June 2019.
- ASEAN Secretariat, *ASEAN-Republic of Korea Plan of Action (2016-2020)* (Jakarta: ASEAN, 2016).
- _____, *ASEAN-Republic of Korea Plan of Action (2021-2025)* (Jakarta: ASEAN, 2021).
- _____, *Joint Statement of the ASEAN-China Special Summit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China Dialogue Relations: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Security, Prosperity and Sustainable*

- Development, November 22, 2021.
- _____, ASEAN-China Plan of Action (2021-2025).
- _____, ASEAN-India POA (2021-2025).
- _____, ASEAN-United States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Strateg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2021-2025).
- _____,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Joint Declaration on Comprehensiv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the United Nations (2021-2025).
- _____, Plan of Action to Implement the ASEAN-Australi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2025-2029).
- _____, Final Implementation Plan of the Joint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2023.
- _____, ASEAN Expansion and Regional Cooperation (Jakarta: ASEAN Publishing, 2023).
- United N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
- _____,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A/55/305-S/2000/809), 2000.
- _____,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Principles and Guidelines, 2008.
- _____, Report of the High-Level Independent Panel on Peace Operations on Uniting Our Strengths for Peace: Politics, Partnership and People (A/70/95-S/2015/446), 2015.
- _____, Improving Security of United Nations Peacekeepers: We Need to Change the Way We Are Doing Business (Cruz Report), 2017.
- _____,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UNMISS) Statement of Unit Requirement for a Horizontal Military Engineer Company (HMEC), 2017.
- _____, Uniformed Gender Parity Strategy 2018-2028, 2019.
- _____,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Statement of Unit Requirement for Light Infantry Task Force in UNIFIL, 2019.
- _____, A4P+: Implementation Priorities for 2021-2023, 2021.
- _____, 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021.

- _____. LCMOS: Light Coordination Mechanism - Launch of the Marketplace Presentation, 2023.
- _____. Secretary-General, Our Common Agenda Policy Brief 9: A New Agenda for Peace, 2023.
- _____.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3, 2023.
- _____. Future of Peacekeeping: New Models and Related Capabilities, 2024.
- _____.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Factsheet, 2024.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Basic Facts about the United Nations*. 42nd ed. New York: United Nations, 2017.

6. 법령 및 정부규정(대한민국)

-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8년 2월 25일 시행.
- _____. 『국방대학교 설치법』. 법률 제14609호, 2017년 6월 22일 시행.
- _____.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94호, 2022년 6월 22일 시행.
- _____.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년 7월 26일 시행.
- _____. 『합동참모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34789호, 2024년 10월 1일 시행.
- _____.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32호, 2024년 10월 8일 시행.
- _____.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295호, 2025년 2월 25일 시행.
- _____.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170호, 2025년 2월 25일 시행.
- _____.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국방부훈령 제2964호, 2024년 8월 23일 시행.

7. 인터넷 자료(국문/영문) 및 기타

-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 <https://www.kndu.ac.kr/pko/index.do> (검색일: 2025. 3. 27).
- 국방부, 「PKO 협력 국제회의 개최」,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14. 9. 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130> (검색일: 2025. 3. 27).

- _____, 「국방부 차관, 2022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22. 9. 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634&call_from=naver_news (검색일: 2025. 3. 27).
- _____, 「ADMM-Plus 계기 한·캄보디아 국방협력 행사 개최」,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22. 11. 24),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671> (검색일: 2025. 3. 27).
- _____,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올해 대화관계 35주년, 한·아세안 관계 격상에 따른 국방협력 확대」,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24. 11. 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1718> (검색일: 2025. 3. 27).
- _____,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최초 개최 - 한-아세안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 발표」, 보도자료 (서울: 국방부, 2021. 11. 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75> (검색일: 2025. 3. 27).
- _____,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 https://www.mnd.go.kr/mbshome/mbbs/mnd/subview.jsp?id=mnd_010901040000 (검색일: 2025. 3. 26).
- 국방일보, “[유엔의 날] ‘PKO 파병 현장, 여군 참여 확대 필요’”, 『국방일보』, 2024. 10. 23,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1024/21/ATCE_CTGR_0010010000/view.do (검색일: 2025. 4. 25).
- 김명웅, “PKO 협력 통한 한·아세안 관계 발전”, 『국방일보』, 2024. 12. 2,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1203/1/ATCE_CTGR_0050040000/view.do (검색일: 2025. 3. 11).
- 맹수열, “국군의무학교, 군 최초 TCCC 전문교육센터 지정”, 『국방일보』, 2021. 3. 25,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326/5/ATCE_CTGR_0010010000/view.do (검색일: 2025. 3. 27).
- 박상현, “중국이 낸 유엔 분담금 20% 첫 돌파…’고립 심화’ 미국과 대비”, 『연합뉴스』, 2025. 3. 5,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095400073?input=1195m> (검색일: 2025. 4. 21).
- 조아미, “캄보디아서 열린 유엔 삼각협력 공병훈련 성공적 마무리”, 『국방일보』, 2024. 12. 22,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41223/1/ATCE_CTGR_0010010000/view.do (검색일: 2025. 3. 27).
- _____, “한·유엔·캄보디아 ‘삼각협력’ 공병훈련 실시”, 『국방일보』, 2023. 12. 4,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31205/3/ATCE_CTGR_0010010000/

view.do (검색일: 2025. 3. 27).

채현정, 「태국의 고속철도 건설: 이동과 연결의 인프라 정치학」, Diverse Asia,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ttps://diverseasia.snu.ac.kr/?p=3023> (검색일: 2025. 4. 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新)남방정책」, 2021. 9. 6,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검색일: 2025. 3. 26).

_____, 「한-아세안 35년...‘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새로운 미래 역사 함께 써나갈 것」, 2024. 10. 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904> (검색일: 2025. 3. 26).

외교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실질적 기여 결집, 20 21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결과」, 보도자료 (서울: 외교부, 2021. 12. 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53> (검색일: 2025. 3. 25).

ASEANSecretariat, Overview of ASEAN-UN Cooperation (Jakarta: ASEAN, 2024), <https://asean.org/wp-content/uploads/2025/02/Overview-ASEAN-UN-Cooperation-as-of-13-February-2025.pdf> (검색일: 2025. 3. 25).

_____, “Overview of Dialogue Partners and External Relations”, <https://asean.org/our-communities/asean-political-security-community/outward-looking-community/external-relations/overview/> (검색일: 2025. 3. 25).

_____, “ASEAN Vision 2020”, <https://asean.org/asean-vision-2020> (검색일: 2025. 3. 24).

ASEAN Regional Forum, “First ARF Chairman’s Statement” (1994), <https://asean.org> (검색일: 2025. 2. 12).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About ADMM”, <https://admm.asean.org/index.php/about-admm/about-admm.html> (검색일: 2025. 3. 25).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 “About ADMM-Plus”, <https://admm.asean.org/index.php/about-admm/about-admm-plus.html> (검색일: 2025. 2. 17).

_____, “5th Cycle Co-Chairs of EWG on Peacekeeping Operations (2024-2026): Brunei Darussalam & China”, <https://admm.asean.org> (검색일: 2025. 3. 25).

Bandar Seri Begawan, “The 19th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Plus

- Experts' Working Group on Peacekeeping Operations held in Brunei", <https://www.aseanall.com/news/8823.html> (검색일: 2025. 4. 21).
- Embassy of Vietnam in India, "VINBAX 2024", Vietnam Embassy in India,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09587> (검색일: 2025. 3. 25).
- Ind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dia's Legacy in UN Peacekeeping: Leadership, Commitment, and Sacrifice",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109587#:~:text=Paratroopers%20from%20India%20and%20the,security%20in%20the%20developing%20world> (검색일: 2025. 3. 25).
- Japan Ministry of Defense, "WPS Promotion Plan", https://www.mod.go.jp/en/d_act/d_policy/wps_plan.html (검색일: 2025. 4. 5).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https://www.mofa.go.jp/policy/un/pko/triangular.html> (검색일: 2025. 4. 5).
- _____, "Quad Joint Leaders' Statement", <https://www.mofa.go.jp/files/100506959.pdf> (검색일: 2025. 4. 6).
- Jiyul Kim and Sheila Miyoshi Jager, "The 'Greater' UN Coalition during the Korean War", Wilson Center, May 26, 2020,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greater-un-coalition-during-korean-war> (검색일: 2025. 3. 25).
- Unacademy, "IMBAX Army Exercise between Myanmar and India", <https://unacademy.com/content/upsc/study-material/army-exercise/imbax-army-exercise-between-myanmar-and-india/#:~:text=Conclusion:,the%20armed%20forces%20within%20Myanmar> (검색일: 2025. 4. 5).
- United Nations, "After Years of Conflict, Timor-Leste Turns Peacemaker", UN Geneva, February 8, 2025, <https://www.ungeneva.org/en/news-media/news/2025/02/103107/after-years-conflict-timor-leste-turns-peacemaker> (검색일: 2025. 3. 25).
- _____,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I - Purposes and Principles",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full-text> (검색일: 2025. 3. 25).
- _____, "UNTAC Background", <https://peacekeeping.un.org/mission/past/untac.htm> (검색일: 2025. 3. 25).

- _____.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Official Website, <https://peacekeeping.un.org/>(검색일: 2025. 3. 25).
 - _____.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Overview”, <https://peacekeeping.un.org/en/departement-of-peace-operations> (검색일: 2025. 2. 17).
 - _____.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Troop and Police Contributors”, <https://peacekeeping.un.org/en/troop-and-police-contributors> (검색일: 2025. 3. 25).
 - _____. United Nations Peacekeeping,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https://peacekeeping.un.org/en/triangular-partnership-programme> (검색일: 2025. 3. 27).
 - _____. United Nations Peacekeeping, “What Is Peacekeeping?”, <https://peacekeeping.un.org/en/what-is-peacekeeping> (검색일: 2025. 3. 21).
 - _____. United Nations Peacekeeping, “Women in Peacekeeping”, <https://peacekeeping.un.org/en/women-peacekeeping> (검색일: 2025. 3. 27).
 - _____. Security Council, “Security Council Open Debate on UN Peacekeeping Operations”, UN Press Release SC/14093, March 30, 2020,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whatsinblue/2024/09/un-peacekeeping-operations-open-debate.php> (검색일: 2025. 3. 25).
 - _____. “CPTM 2025 Lesson 3.1. UN Values and Behaviours”, 2025, <https://peacekeepingresourcehub.un.org> (검색일: 2025. 4. 23).
 - _____. “Secretary-General Prioritizes Reform with Launch of UN 2.0, Now Scaled Up to UN 8.0 for the 80th Anniversary.” UN News, May 2024. <https://www.un.org/en/delegate/guterres-prioritizes-reform-un80-initiative-launch> (검색일: 2025. 5. 16).
 - _____.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UN Peacekeeping Ministerials*. <https://peacekeeping.un.org/en/un-peacekeeping-ministerials>. (검색일: 2025. 5. 19).
- UN Women, “Military Officials and Diplomats from Around the World Gather in the Republic of Korea to Support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Operations”, UN Women Asia and the Pacific, September 22, 2023, <https://asiapacific.unwomen.org> (검색일: 2025. 3. 27).

약어표

약어	영문	국문
A4P	Action for Peacekeeping	평화유지구상
A4P+	Action for Peacekeeping +	평화유지구상 +
AAPTC	ASEAN Peacekeeping Centres Network	아시아·태평양 PKO 훈련센터 협업체
AC	ASEAN Community	아세안 공동체
ADMM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SOM-Plus	ASEAN Defense Senior Officers' Meeting-Plus	아세안 확대 국방고위관리회의 (실·국장급)
ADSOM-Plus WG	ADSOM-Plus Working Group	아세안 확대 국방고위관리회의 실무회의(과장급)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경제 공동체
AEM	ASEAN Economic Ministers' Meeting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AIPR	ASEAN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아세안평화화해연구소
AMCA	AS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Culture and Arts	아세안 문화예술 장관회의
AMM	ASEAN Ministerial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APCN	ASEAN Peacekeeping Centres Network	아세안 평화유지센터 네트워크
APSC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APSE	ASEAN Peacekeeping Staff Exercise	아세안 평화유지 참모훈련
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MAC	ASEAN Regional Mine Action Center	아세안 지역지뢰대응센터
ASC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약어	영문	국문
ASEAN-ISIS	ASEAN Institutes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아세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AWPR	ASEAN Women for Peace Registry	아세안 여성 평화 위원회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중국 일대일로
C2	Command and Control	지휘통제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CEPPP	Competency Evaluation Program for Prospective UN Peacekeepers	예비 유엔 평화유지요원 역량평가 프로그램
C-IED	Counter-Improvised Explosive Device	급조폭발물(IED) 대응
CIMIC	Civil Military Coordination	민군협력
COG	center of gravity	중심
CONOPs	Concept of Operations	작전개념
CPTM	Core Pre-Deployment Training Materials	파병 전 훈련 핵심과목
CRSV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분쟁 관련 성폭력
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 이사회
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CUNPK	Centre for UN Peacekeeping	인도 평화유지 훈련센터
DDR	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무장해제·동원해제·사회재통합
DMP	Decision Making Process	결심수립과정
DOD	Defence Officials' Dialogue	국방당국자대화
DPKO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활동 사무국
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유엔 평화활동 사무국
DUF	Directive on the Use of Force	무력사용지침
EAS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정상회의
EHAT	Explosive Hazards Awareness Training	위험성 폭발물 식별훈련

약어	영문	국문
EWG	Expert Working Groups	분과회의
FMAC	Field Medical Assistants Course	현장의무지원
FMOC	Female Military Officers Course	여군장교과정
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FTX	Field Training Exercise	야외훈련
GPOI	Global Peace Operations Initiative	미 국무부 범세계평화활동구상
GPS	Global Pivotal State	글로벌 중추국가
HAD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HDUCIM	Heads of Defence Universities / Colleges / Institutions Meeting	국방대학총장회의
HEE	Heavy Engineering Equipment	공병중장비
IA	Implementation Arrangement	이행약정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IMBEX	India-Myanmar Bilateral Exercise	인도-미얀마 양자훈련
INTERFET	International Force East Timor	동티모르 국제군
ITS	Integrated Training Service	통합훈련처
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한-아세안 연대구상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CM	Light Coordination Mechanism	역량협력체계
LCMOS	Light Coordination Mechanism Online System	역량협력체계 온라인 운영 시스템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LBAT	Malaysian Battalion	말레이시아 대대
MGA	Military Gender Advisor Course	군 젠더 어드바이저 과정
MINURSO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UN 서부사하라 임무단
MINUSCA	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Integrated Stabilization Miss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UN 중앙아프리카 안정화 임무단

약어	영문	국문
MNF	Multi National Forces	다국적군
MONUSCO	United Nations Organization Stabil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UN 콩고 안정화 임무단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PC	Malaysian Peacekeeping Centre	말레이시아 평화유지 훈련센터
MSR	Main Support Route	주보급로
NPOS	National Peace Operations Strategy	국가 평화활동 전략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NUC	United Nations Operation in the Congo	UN 콩고임무단
OPCON	operational control	작전통제권
PDT	Pre-deployment Training	파병 전 훈련
PKO	Peace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활동
PKOCB TWG	Peacekeeping Operations Capability and Capacity Building Technical Working Group	평화유지활동 역량 및 능력 구축 실무협의체
PMPP-TNI	PUSAT MISI PEMELIHARAAN PERDAMAIAN-TNI	인도네시아 평화유지 훈련센터
PO	Peace Operations	평화활동
PoA	Plan of Action	행동계획
POC	Protection of Civilians	민간인 보호
POTC	Peace Operations Training Centre	호주 평화훈련센터
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 대화 또는 4개국 안보 회담(쿼드)
RAMSI	Regional Assistance Mission to Solomon Islands	솔로몬제도 지역지원임무단
ROE	rules of engagement	교전규칙
RPA	Regional Plan of Action	지역 행동계획
RTP	Reinforcement Training Package	보충 훈련 과목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가능발전목표

약어	영문	국문
SEA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성 착취 및 학대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운영절차
STM	Specialised Training Materials	특별훈련과목
SUR	Statement of Unit Requirement	부대요구사항
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TACT	Tactical	전술적
TCC	Troop Contributing Countries	병력공여국
TCCC / TC3	Tactical Combat Casualty Care	전술적 전투 사상자 처치
TECH	Technical	기술적
TOR	Terms of Reference	위임사항, 권한
ToT	Training of Trainers	교관 훈련
TTX	Table-top Exercise	도상훈련
TPP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삼각협력 프로그램
UN Women	United Nations Women	UN 여성기구
UNCT	UN Country Team	UN 산하기구
UNFICYP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UN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SFA	United Nations Interim Security Force for Abyei	UN 아비예이 평화유지군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UN 지뢰대응 활동기구
UNMIS	United Nations Mission in the Sudan	UN 수단 임무단
UNMISET	United Nations Mission of Support to East Timor	UN 동티모르 지원단
UNMIS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UN 남수단 임무단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UN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UNPROFOR	United Nations Protection Force	UN 보스니아 평화유지군

약어	영문	국문
UNSOC	United Nations Staff Officer Course	UN 참모장교 과정
UNSOM	UN Assistance Mission in Somalia	UN 소말리아 임무단
UNTAC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 캄보디아 과도통치기구
UNTAET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UN 동티모르 임시행정기구
UNTAG	United Nations Transition Assistance Group	UN 나미비아 독립지원그룹
UNTSO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UN 휴전감시단
USINDOPACOM	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UWPT	Uniformed Women Peacekeepers' Training	여성 평화유지군 트레이닝
VINBAX	India-Vietnam Bilateral Army Exercise	인도-베트남 양자 육군훈련
VNDPKO	Vietnam'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베트남 평화유지활동 훈련센터
WMPOC	Women's Military Peace Operations Course	여군 평화작전 역량 강화 과정
WPS	Women, Peace and Security	여성·평화·안보
YPS	The Youth, Peace and Security	청년·평화·안보
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동남아 평화·자유 및 중립지대

아산-육군 정책 연구 시리즈

1. F-35 JSF and Military Transformation: American Militarism during the Post-Cold War Era (안기현·신범철, 2019년)
2. 전작권 전환 대비 미래연합사가 준비해야 할 과제: 유엔군사령부 변천사 및 한미 연합 방위체제 분석 중심으로 (정만기·차두현, 2021년)
3. 우주력의 전략적 의미 (김선문·차두현, 2021년)
4. 우주영역과 우주지형에 대한 군사적 활용방안 고찰 (이상창·차두현, 2022년)
5.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추진방안 (강경일·차두현, 2022년)
6. 한국의 우주전력 발전 방향 (최원석·차두현, 2023년)
7.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한국의 국방력의 발전 방향 (노현석·차두현·홍상화, 2023년)
8.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합한 육군의 부대 구조: 한미동맹과 전통·비전통 위협을 고려한 육군의 부대 편성을 중심으로 (임근영·차두현·이신형, 2024년)
9.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특수작전부대 발전 방안 (김성수·차두현·양 욱, 2025년)
10.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 (남관우·차두현, 2025년)
11. 한-아세안 국방협력 확대 방안: 평화유지활동(PKO) 협력을 중심으로 (김명웅·차두현·이신형, 2025년)

ASAN REPORT

한-아세안 국방협력 확대 방안 평화유지활동(PKO) 협력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5년 11월

지은이 김명응, 차두현, 이신형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Copyright © 2025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BN 979-11-5570-317-5 95390 (PDF)



9 791155 703175 (PDF)
ISBN 979-11-5570-317-5